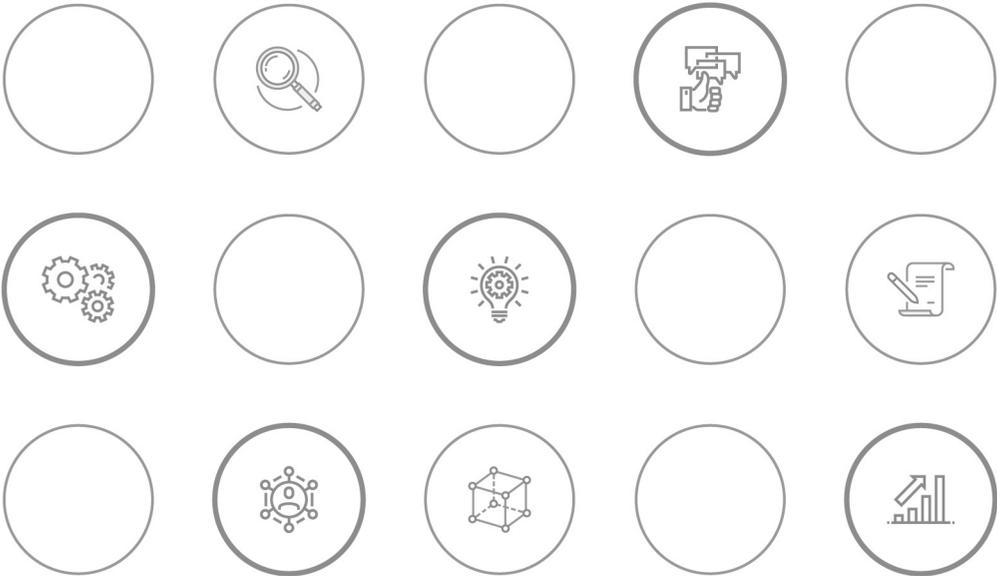


고양특례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Social Withdrawal(Hikikomori) in Goyang Special City: Current State and Policy Measures

- 문정화, 최봉은



고양특례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Social Withdrawal(Hikikomori) in Goyang Special City: Current State and Policy Measures

연구책임자

문정화 고양연구원 행정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최봉은 고양연구원 행정사회연구실, 연구원

자문위원

권현숙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신실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원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이사장

나경은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고은인 센터장

박주홍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백희정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영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은애 (사)씨즈 이사장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요약

1.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Hikikomori, 引き籠もり)의 한국식 표현임
 -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1990년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며 출현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존재와 실체가 구체화 됨
- 은둔 청년 급증,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예상
 -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의 2.4%가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됨
 - 은둔형 외톨이는 불규칙한 생활로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간 고립된 생활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에 발생 가능성이 높음. 사회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 감소 및 지원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초래됨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민간기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업을 시작함
 - 지자체에서는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처음 제정하였고 현재 68개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중앙정부에서는 2023년 심층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현재는 사업 초기로 체계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임
-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사회 적응 등 변화가 쉽지 않음
 - 은둔은 학교·가정 폭력, 실패에 대한 낙인 등 ‘사회적 문제’에서 기인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회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의 고령화 진행은 향후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화를 예상

- 일본의 '8050'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도 닥칠 문제임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연구 목적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른 실태 파악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 제시

□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체계

그림 1 | 연구의 체계



2. 은둔형 외톨이 개념 및 선행연구

□ 은둔형 외톨이 개념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① 사회참여, 대인관계 등을 하지 않고 ② 방이나 집안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며 외출하지 않는 조건을 공통 요소로 가짐
 - 대부분 '은둔 기간'도 조건으로 제시되는데, 기간은 '3개월'과 '6개월'로 구분됨
 - ※ 3개월이 지나면 고립 생활이 굳어질 수 있으므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외 '정신질환 원인 유무', '임신 출산의 원인 유무', '고통 수반 유무' 등의 조건 등이 제시됨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3개월 이상 자신의 방, 집안 등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함
 - 임신,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로 인한 은둔은 제외함

□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령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률은 없음
 - 2022년 10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 폐기됨
 - 22대 국회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취약 청년 자립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한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고 소관 위 심사 중임
- 2024년 11월 현재 68개 지자체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있음
 -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2021년 5개 지자체, 2022년 6개 지자체, 2023년 30개 지자체, 2024년에는 11월까지 2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함
 - 지자체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회활동 참여 촉진과 일자리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으로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조사연구, 가족 상담 및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 조례와 다르게 은둔형 외톨이 발굴 주체를 시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으로 명시하며 발굴을 강조하고 있음

-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법적 지위와 정책의 합법성을 보장하며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은둔형 외톨이 선행연구

- 학술적 연구는 2000년에 들어와 시작되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음

- 2003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연구가 시작되었고, 202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연구 주제는 크게 일본의 히키코모리 및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 개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과 현실, 극복담, 청소년이 은둔형으로 발전하는 과정, 은둔형 외톨이의 정신·사회적 특성,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등임
- 연구 방법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 등 심층 면담, 문헌 연구, 연구 경향 분석 등 질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양적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자체 정책 연구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지자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 연구는 2020년 광주광역시 실태조사부터 시작되었으며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시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광주광역시(2022년), 부산광역시(2023년), 전라남도(2023년), 제주특별자치도(2023년)는 최근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진행함

-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 인구 규모 추정

- 일본은 2010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규모가 추정되었고 2018년부터는 중장년을 포함

- '10년 15~39세(1.8%), '15년 15~39세(1.57%), '18년 40~64세 (1.45%), '22년 10~39세(2.05%), 40~64세(2.01%)

- 국내 은둔형 외톨이 규모 추정은 청년 대상으로 이루어짐

- 18~34세 대상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17년) 0.9%, ('18년) 0.49%, ('19년) 0.93%, ('20년) 1.59%, ('21년) 2.15%
- 19~34세 대상 청년 삶 실태조사: ('22년) 2.4%
- 19~39세 대상 서울시 고립·은둔 실태조사: ('22년) 1.2%

- **국내 고립 인구 규모 추정**

- 고립을 사회적 관계가 없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로 정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통계청 사회조사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고립 인구 규모: 19~34세(5.0%), 35~49세(5.4%), 50~64세(6.6%), 65세 이상(9.2%), 전체(6.0%)

- **고양시 고립 인구 규모 추정**

- 고립을 사회적 관계가 없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로 정의
- 통계청 고양시 사회조사 2024년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고립 인구 규모: 19~34세(1.2%), 35~49세(2.4%), 50~64세(3.1%), 65세 이상(7.4%), 전체(3.4%)

3.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분석

□ **국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 **일본은 히키코모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최초의 국가임**

- 1989년 버블경제 절정기 히키코모리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민간 영역에서 프리스페이스(이바쇼=居場所) 운동이 시작됨
- 2000년 광역자치단체에서 히키코모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작되었고, 2009년 전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히키코모리 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22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지역지원센터를 확충함
- 15~39세의 무직 청년과 히키코모리를 대상으로 지역의 NPO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청년 서포트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자립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함
- 2023년 종합적인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에 히키코모리를 포함하여 대상 확장함
-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당사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형태의 근무와 초단시간 근무 환경을 만들어 체험함으로써 성공적인 일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함

- **핀란드는 청년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예방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년법(Youth Act)」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함**

-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이 고용서비스 사무소에 구직자로 등록하면 3개월 이내 사례관리자가 해결책을 제시함
- ‘아웃리치 사업’과 ‘원스톱 안내센터’인 오희야모(Ohjaamo) 운영, 국가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이바지함

※핀란드는 사전 예방, 지속적인 관리,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함

- 영국은 외로움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와 연계된 문제로 인식하고,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과제 중 하나로 간주함
 - 은둔형 외톨이와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유사성을 찾고, 이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고용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적 재통합을 강조함
 - 은둔형 외톨이를 돕기 위해 NHS(영국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복지 시스템이 연계 되어, 정신 건강 치료뿐 아니라 주거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함
 - 영국은 2018년 1월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외로움 부’ (Ministry of Loneliness) 부처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 외로움을 ‘사회적 전염병’으로 규정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며 보건 사회복지부, 교육부, 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력함

□ 국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심층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사업을 시작 했으나, 아직 사업 초기로 체계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임
 - 고립·은둔 위기 징후 조기 포착 체계 마련, “2024년 新 취약 청년(가족 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 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부)함
 - 취약 청년 전담 지원체계 가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학교 밖] 학생 정보 연 계, 인식개선 등 지원체계 강화(여성가족부, 교육부), 구직 단념, 직장 부적응 위기 선제 대응(고용노동부), 문화 캐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함(문화 체육관광부)
- 지자체에서는 2019년 광주광역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처음 제 정한 이후 현재 68개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는 등 관심이 높아졌으나,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안산시 사례를 검토함
- 민간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여 플랫폼 운영, 상담, 부모 교육, 자조 모임, 셰어하우스 등의 사업들을 추진

하고 있음

- 민간 단체 사례로 K2인터내셔널코리아, (사)씨즈, KHPA(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KHSH(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안무서운회사, 푸른고래리커버리, 고·은·인 지원센터(지속가능경영재단), G'L청소년연구재단(G'L학 교밖청소년연구소) 사례를 검토함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지원사업

- 고양시는 현재 은둔형 외톨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으나, 고립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함
 - 고양시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상담서비스,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 청소년 안전망 사업,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춘나래서포터즈, 청년마인드 토크, 시크릿 상담소,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의 마음돌봄, 마음돌봄행복살피미, 다 함께 Single빙글,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의 플러그인 노크(Knock)! & 두드림,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의 이웃마실, 다함께찬(儻)!찬(餐)!찬(贊)!,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중장년-이음,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의 마을꾼(마을의 일꾼), 화목한 꽃할매, 만송, 고양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의 비빌언덕, 사회적고립가구 '찾기' · '위드유허동단' · '지원' 활동· 민관 협력네트워킹

4.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분석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 설문조사 결과

- 은둔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및 함의
 -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최종 당사자 198명, 가족 30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함
 -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은둔 당사자의 비율이 높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마련 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은둔 당사자의 은둔 정도는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가 20.6%,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가 30.7%로 은둔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은둔 시작 시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20~30세가 6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년기 전 은둔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집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은둔의 주된 이유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은둔 관련 경험에서도 취업과 창업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은둔 대상자는 은둔과 관련된 주요 경험 중 단일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 4개의 중복된 원인을 가지고 있어, 은둔은 단순히 취업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경험의 산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족과의 대화 빈도가 '서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대화함'이 가장 높고(38.6%) '거의 없음'(36.8%)도 높으며 28.7%가 '대면 없이 필요시에만 SNS'로 대화함
※ 2주 동안 가족 외 대화를 하지 않은 비율이 6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은둔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 부족을 그대로 보여줌
- 은둔 당사자의 60.1%는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기, SNS 활동, 메신저 채팅 등을 하고 있으며 약 40%가 하루에 10~15시간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개입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은둔 당사자는 밤낮이 바뀐 생활, 불규칙한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 위생 관리가 안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에 대한 개입이 꼭 필요한 부분임을 보여줌
-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고', '타인의 시선이나 말이 신경 쓰이고', '세상일에 무관심하며', '사회의 규칙에 맞춰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이상임을 고려할 때, 사회관계 관련 교육과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활동 재개에 대한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신체적인 건강 상태는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56.6%로 높고, 신체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비율이 60%로 나타나 은둔 당사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개입도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정신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은둔 당사자는 7.5%로 낮지만 PHQ-9로 측정된 우울 유병률이 28.3%로 (비교: 2022년 청년실태조사 청년의 유병률 6.1%)로 매우 높고 자살 충동 경험률도 높게 나타나 우울 등 정신 건강에 대한 개입이 매우 필요함
-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가 5점 만점에 1점 대로 매우 낮게 나타나 가족과의 관계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회,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 상태도 2점대 초반으로 낮아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 은둔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은둔 당사자 혼자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고,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2.6%임. 은둔 당사자에게 영향

을 미치는 정도가 3.37점/5점인,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3.27점,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3.09점으로 은둔 당사자가 은둔이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은둔 당사자어의 46%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7%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등 극복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남. 은둔을 위한 극복 노력에 대해서도 '노력한다'가 34.3%, '노력하지 않는다'가 47.5%로 나타남. 은둔 당사자의 태도가 극복을 위한 의사 및 은둔 극복이라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둔 당사자의 개별적인 인식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은둔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는 운동과 산책, 가족에게 도움 요청, 인터넷 검색, 지인의 도움 요청 순으로 나타남
-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경험에 있어서는 가족이 노력하는 부분을 친구나 사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노력이나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절반 가량 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은둔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업, 취업, 창업 참여의 어려움(86.4%)이고, 다음으로 친구 사귀기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 순으로 나타남
- 은둔 당사자의 98.0%는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도 5.1%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플랫폼의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함
-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도 6.1%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상담을 받은 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도 11.1%로 매우 낮아, 상담 서비스 제공과 효과 있는 양질의 상담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은둔 당사자의 욕구는 '자유롭고 편하게 쉬며 놀고 싶다'가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을 하고 싶다(63.6%).', '여행을 가고 싶다(6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집으로 찾아오는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욕구는 9.1%, '자조 모임'은 18.7%로 낮게 나타났는데 기존의 전형적인 상담, 교육, 치료보다는 여가, 문화, 성취 활동 등의 개입 방법을 선호함을 보여줌
- 지원 방법 선호도를 1+2+3순위로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적 지원, 취업 일자리 알선, 마음 편한 공간 지원, 직업교육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 등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은둔 당사자 가족 설문조사 결과 및 함의

-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러 항목 중 '은둔 당사자가 앞으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 두렵다'가 4점/5점 만점, '은둔 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다'가 3.83점, '은둔 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된다' 3.80점, '은둔 당사자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가 3.27점으로 나타나, 은둔 당사자에 대한 가족의 걱정과 가족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3.20점으로 은둔 당사자 3.10점 보다 높지만 정신적 건강 상태 평가는 오히려 당사자 3.09점보다 더 낮은 3.07점으로 나타났고, 자살 충동 경험 여부도 30%로 당사자 2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족의 정신 건강상 어려움을 나타내며, 가족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보여줌
- 삶의 만족도는 각 항목이 3점 내외/5점 만점 이며, 전체 항목 중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행복도 역시 4.67점으로 당사자 3.31점보다는 높지만,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 평균 점수(5점대 후반)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은둔의 문제를 은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둔 당사자와 가족, 사회의 문제로 보거나, 은둔 당사자와 가족의 문제로 보는 비율이 높음. 은둔이 당사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 당사자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사회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은둔당사자 인식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은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3.3%로 당사자 20.7%보다 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가족의 절망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은둔 회복을 위한 가족의 노력으로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인터넷 검색, 전문 상담 기관 의뢰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0%로 높게 나타남
- 가족들도 은둔 지원 관련 온라인 플랫폼 및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해 93.3%가 인지를 못 하고 있으며, 인지하는 경우에도 이용률이 50%로 낮게 나타나 플랫폼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줌
- 상담을 받은 경험은 6.7%로 매우 낮지만,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는 5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은둔 당사자보다는 상담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은둔 당사자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지원의 참여 의향은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정보 제공, 문화지원, 가족여행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 집단 프로그램, 가족 상담 등에서는 50~63.3% 정도의 희망률을 보이며, 집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

스, 자조 모임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은둔 당사자보다는 더 높게 나타난 결과임. 가족들에게는 현재 스트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함을 보여줌

○ 은둔 당사자 심층 면접 결과 및 함의

-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6명과 가족 4명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와 1대1 심층 면접 시행
- 자존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심층 면접 참여자 대부분은 자존감이 낮고 내성적인 성향을 지니며,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적고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함. 유년 시절 힘들었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경험이 많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주변인들과의 갈등이 은둔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인관계와 정서적 스트레스 회피: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주로 은둔생활을 통해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특히 20~30대 참여자 중에는 억압된 부정적 감정이 불만이나 분노의 형태, 특히 가족을 향한 폭언과 폭력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표출되는 경우도 많았음.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담 없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선호함
- 외부 환경변화를 기대하는 문제 해결 태도와 상담에 대한 양가감정: 자신의 문제를 내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나 지원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함. 은둔생활 중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경험한 경우가 일부 있으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전문 상담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방문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의향을 보이는 양가감정을 보임
- 사회복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인관계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사회복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 게으르거나 의지가 박약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임
- 은둔 현상은 일련의 과정: 은둔생활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은둔의 정도가 심화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중요한 시점이 있음을 보여줌. 이는 은둔이 시작되는 시기와 은둔에서 벗어나려는 회복 노력을 스스로 나타내는 시점이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 가족 체계나 사회체계의 지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내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이해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고립과 은둔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

였고, 가정, 지역사회 내 학교, 직장, 복지센터 등 외부체계의 도움을 구하는 일도 쉽게 하지 못함

-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이 좋지 않고 외로움이 큼: 참여자들은 식사와 수면이 불규칙하고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 특히, 깊은 우울감으로 인한 무기력함을 보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외로움'에 대한 언급이 많음. 특히,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을 전반적으로 보였고,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힘든 경우가 다수임
- 개인에 따른 은둔생활의 다양함: 공통으로 은둔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작 시점, 계기, 기간, 상황적 맥락 등에서 차이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외출 빈도, 소통 정도, 활동 수준, 건강 상태, 재정적 여건 등에서 다양성을 보였음. 또한, 가족 및 친구와의 애착과 지지 수준, 사회적 지원의 수혜 여부와 그 효과도 각기 달랐음
- 사회구조적 요인도 강함: 일부 면접 사례에서는 개인적 취약성 외에도 이혼, 취업난, 경쟁 심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인터넷 발달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 지속 등이 은둔생활 지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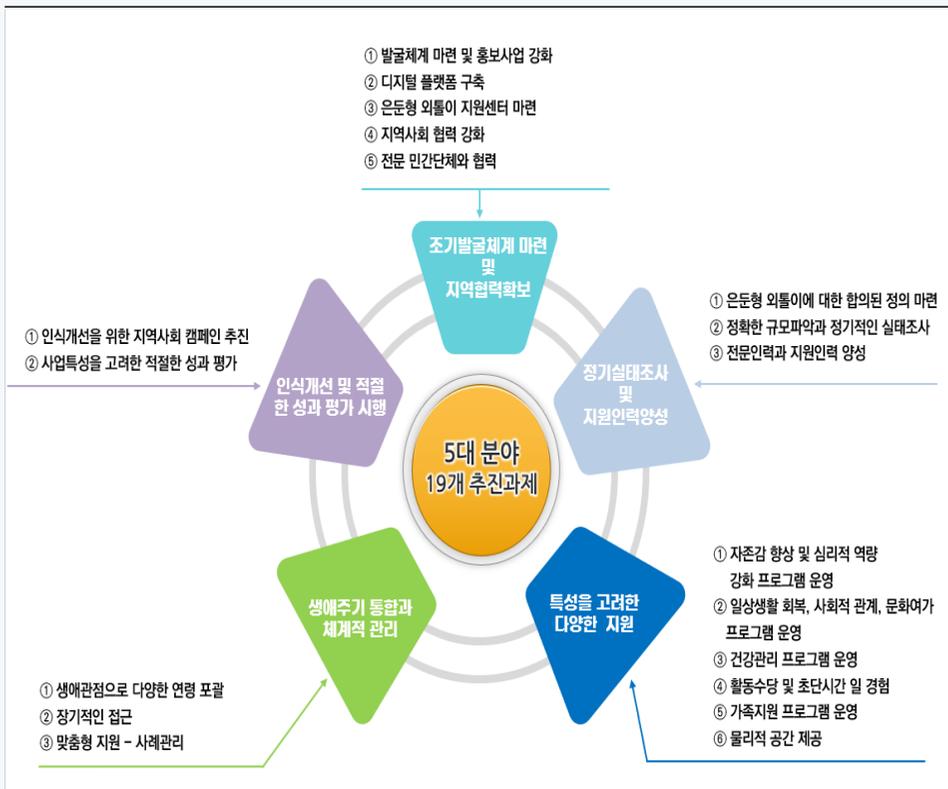
5.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

- 연구의 각 장의 시사점 및 함의를 종합하여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을 도출함
- 5대 지원 정책 방향으로 “조기 발굴 체계 마련 및 지역 협력 확보”, “정기 실태조사 및 지원 인력 양성”,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생애주기 통합과 체계적인 관리”, “인식개선 및 적절한 성과평가 시행”을 도출함
- 19개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조기 발굴 체계 마련 및 지역 협력 확보 영역의 추진 과제는 ‘발굴 체계 마련 및 홍보사업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마련’, ‘지역사회 협력 강화’, ‘전문 민간 단체와 협력’임
 - 정기실태조사 및 지원 인력 양성 영역의 추진 과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합의된 정의 마련’, ‘은둔형 외톨이 정확한 규모 파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전문인력과 지원 인력 양성’임
 -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단계적 제공 영역의 추진 과제는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일상생활 회복, 사회적 관계’,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활동 수당 및 초단시간 일 경험’,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물리적 공간 제공'임

- 생애주기 통합과 체계적 관리 영역의 추진 과제는 '생애 관점으로 다양한 연령 포괄', '장기적인 접근', '맞춤형 지원-사례관리'임
- 사회적 문제 인식 및 공감대 마련 영역의 추진 과제는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성과평가'임

그림 2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5대 분야 19개 추진 과제)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연구 체계	9
제2장 은둔형 외톨이 개념 및 선행연구	11
제1절 은둔형 외톨이 개념	13
제2절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령	21
제3절 은둔형 외톨이 선행연구	27
제4절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 인구 규모 추정	34
제3장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분석	39
제1절 국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41
제2절 국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60
제3절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지원 사업	9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05
제4장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분석	109
제1절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설문조사	111
제2절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심층 면접조사	167
제3절 조사 결과 종합	177

제5장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	183
제1절 지원 정책 방향	185
제2절 주요 지원 과제	188
1. 조기 발굴 체계 마련 및 지역 협력 확보	188
2.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원 인력 양성	191
3.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193
4. 생애주기 통합과 체계적 관리	196
5. 인식개선 및 적절한 성과평가 시행	197
참고문헌	199
부록	205
[부록 1] 은둔 당사자 설문지	207
[부록 2] 은둔 당사자 가족 설문지	224
Abstract	243

표 목차

[표 1-1] 연구 방법	8
[표 2-1] 고립·은둔 청년 개념 구성 지표	15
[표 2-2]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17
[표 2-3]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안	21
[표 2-4]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연도별 제정 현황	23
[표 2-5] 지자체별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	25
[표 2-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과제 주요 내용	31
[표 2-7] 일본의 히키코모리 실태조사	34
[표 2-8] 국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5
[표 2-9] 전국 고립 인구 규모 추정	37
[표 2-10] 고양시 고립 인구 규모 추정	37
[표 3-1]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	44
[표 3-2]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의 지원 사항	47
[표 3-3] 고립·고독 대책 추진법의 개요	48
[표 3-4] 2019 핀란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예산 편성	53
[표 3-5] 니트족(NEET)과 히키코모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57
[표 3-6] 중앙정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60
[표 3-7] 고립·은둔 사례 관리 주요 지원 내용	64
[표 3-8] 고위험군 특화 지원	69
[표 3-9] 회복지원	69
[표 3-10] 특별지원	70
[표 3-11] 서울시 외로움·고립 은둔 종합대책	79
[표 3-12]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실태조사	85
[표 3-13]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97
[표 3-14] 고양시 고립·은둔 관련 지원 사업	99
[표 4-1] 조사 주요 내용	111
[표 4-2] 조사 방법 및 내용	112
[표 4-3] 응답자 현황	114
[표 4-4] 은둔 당사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	115

[표 4-5] 심층 면접 참여자	169
[표 5-1]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단독 운영과 고립·은둔 통합 운영	19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	9
[그림 2-1] 사회적 고립 청년 유형	16
[그림 2-2] 사회적 고립, 은둔, 니트	17
[그림 3-1]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의 전체상	45
[그림 3-2] 일본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설치 운영	46
[그림 3-3] 15분 카페 & 곰손카페	49
[그림 3-4] 중학교 졸업 직후 학업 중단 핀란드 청년 규모	55
[그림 3-5] 16세에서 24세 사이의 NEET 비율	59
[그림 3-6] 일본·영국의 연령대별 고독 인구 현황	63
[그림 3-7] 청년미래센터	67
[그림 3-8] 추진 방향	74
[그림 3-9] 경기도 고립 청년 현황	76
[그림 3-1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1)에 따른 전략과 목표	77
[그림 3-11] 당사자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78
[그림 3-12] 생애주기별 고립·은둔	82
[그림 3-13]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업 흐름도	83
[그림 3-14]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	87
[그림 3-15] 제주 리트릿 프로젝트	88
[그림 3-16] 청년 달팽이 휴게소 신청(고립·은둔 척도 검사)	103
[그림 3-17] 만·관 네트워크 회의	104
[그림 3-18] 주민공동체 전문교육 실시	105
[그림 4-1] 실태조사 포스터	113
[그림 4-2] 은둔생활 수준	116
[그림 4-3] 은둔생활 처음 시기(나이)	117
[그림 4-4] 은둔생활 처음 시기(나이)	117
[그림 4-5] 현재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	118
[그림 4-6] 은둔 관련 경험	119
[그림 4-7] 가족과 대화 빈도	120

[그림 4-8] 가족과 대화 방법	121
[그림 4-9]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	121
[그림 4-10] 2주 동안 가족을 제외한 누군가와 만나 대화 경험 횟수	122
[그림 4-11] 비대면 소통 빈도	123
[그림 4-12] 온라인커뮤니티, SNS, 메신저 등 온라인(비대면)에서의 대화 유무 ..	123
[그림 4-13] 온라인(비대면)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	124
[그림 4-14] 하루(24시간) 동안 온라인 활동 비중(시간)	125
[그림 4-15] 일상생활	126
[그림 4-16]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복수 응답)	127
[그림 4-17] 하루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	127
[그림 4-18] 사회생활	128
[그림 4-19] 음주 여부	129
[그림 4-20] 음부 횟수	129
[그림 4-21] 하루 식사 횟수	130
[그림 4-22] 식사 방식	131
[그림 4-23] 하루 평균 수면 시간	131
[그림 4-24]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	132
[그림 4-25]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빈도	133
[그림 4-26] 신체적 질환 또는 치료 필요 여부	133
[그림 4-27] 신체적 질환 병명(복수 응답)	134
[그림 4-28] 신체적 질환에 대한 치료 여부	135
[그림 4-29]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 상태	135
[그림 4-30] 정신적 질환 또는 치료 필요 여부	136
[그림 4-31] 정신적 질환 병명(복수 응답)	137
[그림 4-32]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 여부	137
[그림 4-33] 자살 충동 경험 여부	138
[그림 4-34] 자살 시도 여부	138
[그림 4-35] 영역별 만족도	139
[그림 4-36] 나의 현재 상태(행복사다리)	140

[그림 4-37] 은둔의 문제 대상	141
[그림 4-38] 은둔이 은둔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	141
[그림 4-39]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가족에게 주는 영향	142
[그림 4-40]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	142
[그림 4-41] 은둔 당사자의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	143
[그림 4-42] 은둔 당사자가 은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정도	143
[그림 4-43]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복수 응답)	144
[그림 4-44]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경험	145
[그림 4-45] 은둔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146
[그림 4-46]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	147
[그림 4-47]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경험	147
[그림 4-48]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인지도	148
[그림 4-49]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경험 여부	148
[그림 4-50]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 여부	149
[그림 4-51] 상담을 받은 이후 변화	149
[그림 4-52] 은둔 당사자의 욕구	150
[그림 4-53] 은둔 당사자 지원 방법 선호도	151
[그림 4-54] 은둔 당사자와 동거 여부	152
[그림 4-55]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	153
[그림 4-56]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	154
[그림 4-57]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 상태	155
[그림 4-58] 자살 충동 경험 여부	155
[그림 4-59] 자살 시도 여부	156
[그림 4-60] 영역별 만족도	157
[그림 4-61] 나의 현재 상태(행복사다리)	158
[그림 4-62] 은둔의 문제 대상	158
[그림 4-63] 은둔이 은둔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	159
[그림 4-64]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가족에게 주는 영향	159
[그림 4-65]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	160

[그림 4-66] 은둔 당사자의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	160
[그림 4-67] 은둔 당사자가 은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정도	161
[그림 4-68] 은둔 회복을 위한 지원(복수 응답)	162
[그림 4-69]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	162
[그림 4-70]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경험	163
[그림 4-71]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인지도 ..	163
[그림 4-72]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경험 ..	164
[그림 4-73]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로서 상담받은 경험	164
[그림 4-74]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로서 상담받은 이후 변화 정도	165
[그림 4-75]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참여 의향	166
[그림 5-1]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5대 영역 19과제)	187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체계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은둔형 외톨이

-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Hikikomori,引き籠もり)의 한국식 표현으로 ‘틀어박히다’라는 뜻을 지닌 ‘히키코모루’라는 동사의 명사형임. 1970년대 일본에서 청년실업이 증가하며 청년들이 세상과 접촉을 끊은 채 집에서만 지내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이 ‘히키코모리’로 명명됨
-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1990년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며 출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존재와 실체가 구체화 됨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3년 제정)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뜻함

□ 은둔 청년 급증, 갈수록 다양한 사회문제화 예상

- 최근 코로나-19의 사태 장기화와 경기침체 및 불황, 실업의 증가로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폰의 편리함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촉진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의 2.4%가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됨
- 1인 가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됨
- 은둔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감소 및 전반적

인 삶의 활력 저하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 은둔형 외톨이가 만 19세부터 1인 가구로서 독립적 경제활동 없이 사회활동에 끝내 복귀하지 못한 채 숨진다고 가정했을 때, 64.8년의 기대여명 동안 16억 4,500만 원이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만약 만 45세 은둔생활을 시작한 뒤 탈 은둔에 실패하여 숨지면 비용은 10억 5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국민부담액(조세·사회보장 기여금) 등이 포함됨(김성아, 202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의료·주거급여액과 경제활동 미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조세부담 기여분의 합산액

□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은 부재한 상황

-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은둔형 외톨이 실태나 특성에 관한 연구도 초기 단계임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민간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여 플랫폼 운영, 상담, 부모 교육, 자조 모임, 셰어하우스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와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가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관의 경우, 은둔형 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원 사업 경험자, 전문 지원 인력 부족,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가 많음
- 지자체에서는 2019년 광주광역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처음 제정하였고 현재 68개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없고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은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2023년 심층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현재는 사업 초기로 체계적인 지원은 어려운 상황임

□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변화하기 쉽지 않음

- 현대사회에서 개인화의 심화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동안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현상이나 사적 영역의 문제로 다루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했지만, 이들이 사회적 관계 자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

족의 노력만으로 되기는 어렵고 이들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연결되고 어울려 살 수 있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은둔은 학교·가정 폭력, 실패에 대한 낙인 등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회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로 인한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화

- 최근 일본에서는 '8050'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이는 1980년대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히키코모리가 되고 이들이 현재는 40대~50대 중장년, 부모는 70~80대가 되어 나이 든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일본 사회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어려운 문제임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른 실태 파악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2023년 2월 21일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 지금까지 전혀 파악되지 못했던 고양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및 욕구를 살펴보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및 선제 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른 실태 파악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 특성 파악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 제시

-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 제시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 검토: 은둔형 외톨이 등장 과정, 은둔형 외톨이, 니트(NEET), 고립의 개념 차이 분석, 학술논문과 정책보고서의 은둔형 외톨이 정의 검토 및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
-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령검토: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 분석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선행연구 검토: 학술논문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보고서,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지자체 정책연구 보고서 검토

□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례 검토

- 국외 주요국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례 검토
 - 일본 사례: 히키코모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루고 해결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 핀란드 사례: 은둔형 외톨이를 문제를 특히 청년층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고용, 심리 상담의 통합적 접근
 - 영국 사례: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연결성 강화 정책을 주도
- 국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례 검토
 -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정책 검토
 -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 안산시
 - 민간 단체: K2인터내셔널코리아, 지속가능경영재단 고·은·인지원센터,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사)씨즈,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안무서운 회사, G'L청소년연구재단, (사)파이나다운청년들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사업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대상 설문조사
 - 은둔 당사자의 일상생활, 건강 상태, 은둔 배경, 은둔 상황 인식, 상담 및 지원, 희망 정책

에 대한 설문조사

- 은둔 가족의 생활, 어려움, 은둔에 대한 인식, 희망 정책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심층 면접

- 당사자의 개인적인 배경과 외출 빈도, 은둔의 계기, 은둔 시작 시점,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사회 및 직장생활 경험, 대인관계, 은둔생활 중 주로 하는 활동, 심리적·정서적 상태, 신체 건강 상태, 필요한 지원 및 정책, 가족으로서의 어려움과 소망, 기타 사항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향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헌분석, 사례 분석, 자문회의,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의 방법을 활용함

○ 문헌 연구: 기존의 발표된 은둔형 외톨이 연구보고서와 논문, 정책자료 등을 검토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과 법령, 선행연구 내용 등을 분석함

○ 사례연구: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자문회의: 학계,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내용 및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함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설문조사

- 조사 기간: 2024년 10월 7일~10월 31일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페이지를 활용한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자계식 조사

- 조사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고양시민/ 가족

- 조사 목표 인원: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200명, 가족 100명

- 접속 인원: 605명

- 설문 완료 인원: 276명

- 최종 분석 대상 인원: 은둔 당사자 198명, 가족 30명 총 228명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심층 면접

- 조사 기간 : 2024년 10월 15일~10월 29일
- 조사 방법: 1대 1 심층 면접
- 조사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고양시민/ 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음
- 조사 목표 인원: 은둔형 외톨이 10명, 가족 10명
- 대상자 선정: 고양시 내 종합사회 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내 관련기관의 협조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심층 면접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 최종 분석 대상 인원: 은둔 당사자 6명, 가족 4명

표 1-1 | 연구 방법

연구 방법	내용	비고
문헌분석	은둔형 외톨이 개념, 법령검토, 선행연구	정책보고서, 논문 등
사례연구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례 분석	국외 - 일본, 핀란드, 영국 국내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사례
자문회의	연구 내용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 자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계, 실무 전문가
설문조사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대상 설문조사	기술 분석, 교차분석, T 테스트 등
심층 면접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대상 심층 면접	1대1 대면 상담 내용 질적 분석

제3절 연구 체계

○ 본 연구가 진행된 과정인 연구 체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1-1 | 연구의 체계



제2장 은둔형 외톨이 개념 및 선행연구

제1절 은둔형 외톨이 개념

제2절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령

제3절 은둔형 외톨이 선행연구

제4절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 인구 규모 추정

제1절 은둔형 외톨이 개념

1. 은둔형 외톨이의 등장

-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Hikikomori,引き籠もり)의 한국식 표현으로 ‘들어박히다’, ‘물러나다’ [hikul]와 ‘은둔하다’ [komoru]의 두 글자로 구성된 복합 동사인 ‘히키코모루’라는 동사의 명사형임
 - 1970년대 일본에서 청년실업이 증가하며 청년들이 세상과 접촉을 끊은 채 집에서만 지내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이 ‘히키코모리’로 명명됨
 -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정신과 의사 T. 사이토가 ‘히키코모리 - 끝없는 사춘기’를 출판하면서 명사로 널리 쓰이기 시작함
 - 2010년에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일본어 발음 그대로인 ‘히키코모리 hikikomori’가 새로운 단어로 등재됨
-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1990년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며 출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존재와 실체가 구체화됨
 - 2001년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와 강북삼성병원이 함께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에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함
 - 2005년 KBS <추적 60분> ‘나는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그 실태가 방영되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함
- 히키코모리는 이전에는 문화권에 얽매인 증후군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으로 여겨짐(Kato, 2019)
 - 중국 본토, 인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오만, 브라질 지역에서 히키코모리와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홍콩시민의 1.9%가 히키코모리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럽 히키코모리 유병률(2020~2022)은 1.71%로 추정됨(Kato 외, 2024)
- 미국의 두머(doomer), 중국의 탕핑족, 일본의 히키코모리 등 그 양상이나 이름을 달리 하지만, 청년의 고립과 은둔에 대한 공통된 특징들이 각국에서 나타남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

□ 은둔형 외톨이와 유사 개념

-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개념을 살펴보고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유사한 개념으로 니트족(NEET), 사회적 배제, 사회적 고립 등이 있음
- 니트(NEET)는 의미 그대로 고용되거나 교육 혹은 훈련에 있지 않은 상태(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를 의미함
 - 니트는 경제활동은 없지만 사회관계나 외출 상에는 문제가 없음
 - 니트는 지위 중심적 개념으로 고용되거나, 훈련 중이거나 진학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 훈련, 진학 상태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빈약하거나,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느낄 수 있음

□ 사회적 고립과 은둔형 외톨이

- 사회적 고립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음
- 유민상, 신동훈(2021)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란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며 고립을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과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으로 구분함
 - 외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타인과의 사회적 연락, 사회적 지원, 개인 간 정서적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함
 - 내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의 내적인 단절을 의미하며 인지된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으로 개념화함. 이때 외로움(loneliness)은 고독(solitude)과 다른 개념으로 고독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라면 외로움은 개인이 비 자발적으로 놓인 상황에서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정의됨(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 2020)
- 많은 연구가 은둔을 다룰 때 사회적 고립을 함께 다루는데 연구에 따라 은둔과 고립의 관계는 상이함
-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같은 의미로 간주하고 은둔 대신 고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윤철경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어감이 강해 외부로부터 단

절을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인’으로 시범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사회복지계에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용어를 이미 다양한 고립 계층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구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윤철경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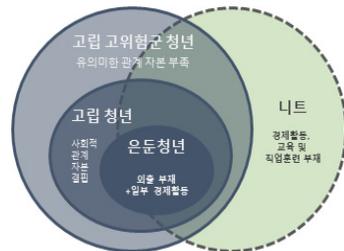
- 청년재단의 고립 청년 실태조사(2020)에서도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 단어를 대신하여 고립 청년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했으며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철수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 정의함

○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고립 내에 은둔을 포함하는 연구가 많음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2022)에서 고립과 은둔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고립 내에 은둔이 포함되고 있으며 은둔을 고립의 유형 중 하나로 전제함. 고립은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를 뜻하고 이 중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은둔생활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자를 은둔이라고 정의함
- 김혜원 외(2021) 연구에서도 은둔 청년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고립 청년 중에서도 ① 외출 없이 ②(방이나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 조작적 정의함
- 김성아 외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모형개발 연구(2022)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에 관해 연구하면서 은둔을 고립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고립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분류함. 고립 청년은 타인과의 ① 사회적 관계 및 ②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지지체계 등 관계 자본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청년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은둔 청년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고립 청년 중에서도 ①외출 없이 ②(방이나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 조작적 정의함

표 2-1 | 고립·은둔 청년 개념 구성 지표

구분	경제활동 지표	사회관계 지표	외출지표
니트 청년	○ (경제활동 없음)	X (미고려)	X (미고려)
고립 청년	X (미고려)	○ (사회관계 자본 부족결핍)	○ (외출 낮거나 없음)
은둔 청년	X (미고려)	○ (사회관계 자본 결핍)	○ (외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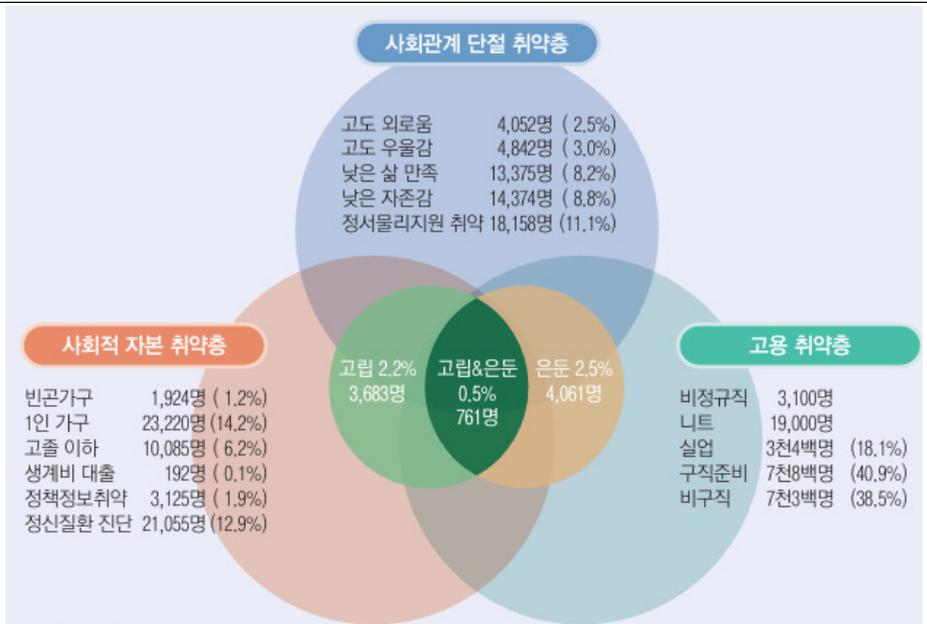
(자료) 김성아 외(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모형 개발 연구

- 청년은 은둔과 고립을 반복하기도 하고, 은둔하는 청년과 고립된 청년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 회복과 치유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안전한 일 경험 등의 공통된 복합적 욕구를 가짐(김성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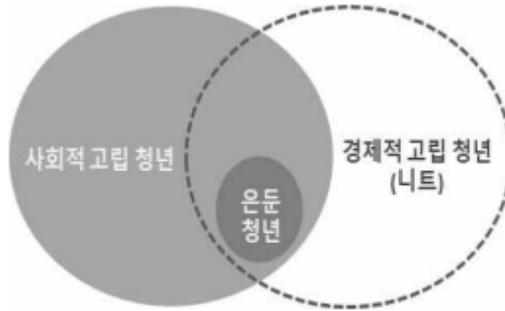
○ 사회적 고립과 은둔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보는 연구도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3)에서는 고립과 은둔 청년에게는 다른 정책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고립과 은둔을 구분함. 고립은 정서적·물리적 지원 자원이 제한적인 상태를 고립으로 정의하였음. 측정 지표는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모두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를 고립으로 보았음. 은둔은 '외출 빈도'와 '기간'을 이용하여 정의했음. 먼저, 외출 빈도는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외출은 하지만 사람들을 피해 늦은 시간 또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를 은둔 행위로 보았고, 이러한 은둔 상태가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은둔 상태로 보았고, 이 중에서 장애, 임신·출산으로 인한 은둔 상태는 제외하고 나머지 응답자를 은둔으로 정의함

그림 2-1 | 사회적 고립 청년 유형



<자료> 김중진 외(202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자료〉 김성아 외(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 니트(NEET)는 고용이나 교육,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나, 사회적 고립 청년은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유의한 사회적 관계가 부재하고, 은둔형 외톨이는 관계 형성 자체를 어려워하며 회피함
- 정책 대상으로서 니트(NEET)는 일을 통한 미래 설계와 취업 지원이 필요한 반면, 사회적 고립 청년은 사회적 관계와 지지체계를 통한 사회통합이,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일상생활 관리, 사회기술 연습 등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 현재까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고 학자와 기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
 - 많은 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는 히키코모리 용어의 최초 소개자인 사이토다마키(1998)의 정의와 일본후생노동성(2010)의 기준을 준용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음
-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상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2 |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구분	정의
사이토다마키 (1998/2002)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히키코모리를 (자택에 틀어박혀)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신장애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로 정의함
여인중 (2005)	우리나라에서 히키코모리를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하여 처음 제시하였으며,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으면서 3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안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청소년위원회 (2005)	은둔형 외톨이는 (1)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2) 진학·취업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는 사람 (3)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는 사람 (4)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며 (5)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지적장애(IQ 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함
일본 후생노동성 (2010)	은둔형 외톨이를 '여러 요인의 결과로써, 사회참여(의무교육을 포함한 학업,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에서의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가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할 수도 있음)'로 정의함
모세종 (2020)	은둔형 외톨이를 다음 다섯 가지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하며,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 정의함 (1)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2)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 (3)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4)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5) 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치유, 자조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Kato (2020)	집에서의 현저한 사회적 고립, 최소 6개월 이상 계속된 사회적 고립 상태 지속,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심각한 기능장애 또는 고통 1. 신체적 히키코모리(외출): 주 3일 이하 외출 2. 지속 기간: 3개월~6개월-pre히키코모리 3. 6개월 이상 히키코모리 4. 고통 또는 손상의 존재: 하나 이상이면 병적 히키코모리, 없으면 비병적 히키코모리로 정의함
광주광역시 1차 실태조사 (2020)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 함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은둔 청년은 타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단절하고 일정 기간 이상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는 은둔형 외톨이인 청년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은 사회적 고립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극단적인 형태라고 분류할 수 있음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는 (1) 자신의 방, 집안 등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고 (2) 가족 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고 (3) 이러한 행동을 최소 6개월 이상(또는 3개월) 지속하며 (4)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은둔하는 것이 아닌 4가지 특성을 가짐
서울시 실태조사 (2022)	은둔형 외톨이를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함 (1)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자로 (2)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생활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하고 (3)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3)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고립 청년 중에서도 ① 외출 없이 ② (방이나 집 등)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 조작적 정의함. 단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하거나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은둔 청년과 구별할 수 있음

제세령 등 (2022)	(1)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2) 은둔 기간이 6개월 이상 에 해당하는지, (3) 은둔으로 인한 고통이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는지의 세 가지 기준
광주광역시 2차 실태조사 (2023)	은둔형 외톨이를 '방이나 집(안)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이고, 친구가 하나이거나 한 명도 없고, 가족 외 대인관계를 거의 하지 않으며, 장애나 정신질환 등으로 은둔하지 않는 사람 으로 정의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최소 3개월 이상 의 기간을 가지고 가족 이외의 사회적 교류와 단절된 채 한정된 공간에서 칩거하며 사회·경제적 활동하지 않는 현상
제주특별자치도 (2023)	'외출 빈도'와 '기간'을 이용하여 정의함. 외출 빈도는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외출은 하지만 사람들을 피해 늦은 시간 또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외출한다+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응답자를 은둔 행위로 보고 이러한 은둔 상태가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인 응답자를 은둔 상태로 보았고, 이 중에서 장애, 임신·출산으로 인한 은둔 상태는 제외 하고 나머지 응답자를 은둔으로 정의했음
김도희 (2024)	은둔 기간, 은둔 상태, 대인관계 측면에서 은둔형 외톨이는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은둔형 외톨이의 주요 기준은 방이나 집의 밀폐된 공간에서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상 머무르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친구가 한 명 이하이면서, 가족과 필요한 말 이외에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함

-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각 연구의 정의는 ① 사회참여, 대인관계 등을 하지 않고 ② 방이나 집안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며 외출을 하지 않는 점을 공통 요소로 가짐. 이외 '기간', '정신질환 원인 유무', '임신 출산의 원인 유무', '고통 수반 유무' 등의 조건 등이 제시됨
-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외출 없음과 함께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은 '3개월'과 '6개월'로 구분이 됨.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3개월이면 고립 생활이 시작되어 굳어질 수 있으므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오상빈, 2020)
 - 3개월 기준: 여인중(2005), 청소년위원회(200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3)
 - 3개월에서 6개월: Kato(2020)-전(pre) 히키코모리
 -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김혜원(2022), 제주특별자치도(2023)
 - 6개월 기준: 사이토다마키(1998, 2002), 모세중(2020), 제세령 외(2022), 김도희(2024), 일본 후생노동성(2010), 광주광역시(2020, 2023), 서울시(2022)
 - 6개월 이상: Kato(2020)

- 다수의 연구에서 정신장애가 원인이 된 경우 은둔형 외톨이에서 제외함
 - 사이토다마키(1998, 2002)는 정신장애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로 명시함
 - 김혜원(2022)은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은둔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 정의함
 - 청소년위원회(2005)는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지적장애(IQ 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3)은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외출하지 않는 경우를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된 은둔 청년과 구별함
 - 광주광역시 2차(2023)에서도 장애나 정신질환 등으로 은둔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함
- 정신장애 외 임신으로 인한 외출 제한의 경우도 제외된 연구도 있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3)에서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구별된다고 함
 - 제주특별자치도(2023)에서도 장애와 함께 임신·출산으로 인한 은둔 상태는 제외함
- 은둔으로 인한 고통 수반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연구도 있음
 - 제세령 등(2002)은 은둔으로 인한 고통이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음
 - 청소년위원회(2005)는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 kato(2020)는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심각한 기능장애 또는 고통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 기타
 - 모세중(2020)은 외출에 있어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치유, 자조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는 은둔에 포함 시킴
 - 서울시(2022)는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은둔형 외톨이 충족 요건으로 추가 제시함
-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3개월 이상을 자신의 방, 집안 등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함
 - 임신, 신체적, 정신적 질환·장애로 인한 은둔은 제외함

제2절 은둔형 외톨이 관련 법령

1. 법률안

□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률안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은둔형 외톨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큼
- 2022년 10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김홍걸 당시 무소속 의원 등 16인에 의해 발의되었고 그 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기본계획을 국가가 수립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그 골자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됨
-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법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3 |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안

구분	내용
제안 이유	<p>은둔형 외톨이는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p> <p>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주요 내용	<p>가. 이 법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안 제2조).</p> <p>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p> <p>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p> <p>마.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p> <p>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지원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p> <p>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p>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비용 추계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 소요는 2024년 62억 9,400만 원, 2028년 65억 8,100만 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19억 7,900만 원(연평균 63억 9,600만 원)으로 추계함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법률안

- 22대 국회에서 고립과 은둔 청년 지원 내용이 담야 발의된 법안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김성원 국민의 힘 의원 등이 발의한 ‘취약 청년 자립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조성환 국민의 힘 의원 등이 발의한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있음
-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자립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 청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심층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센터 지정·운영, 취업·주거·교육·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제정을 촉구함
- 국민의 힘 조은희 위원 등 11인은 2024년 11월 고립·은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경제성능 장애 청년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②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③ 취약계층 청년 주거지원, 금융 생활 지원, ④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 지정 등을 법안에 담아 발의하였고 2024년 12월 현재 소관 위 심사 중인 상태임
- 김성원 의원 등 16인은 2024년 8월 19일 ‘취약 청년 자립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① 취약 청년 자립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② 취약 청년 자립 지원 및 보호 위원회 설립, ③ 청년 자립 준비 학교 설립, ④ 법률·취업·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시행, ⑤ 취약 청년 자립 준비 기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자립 준비 주택 공급 및 운영 ⑥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2024년 12월 현재 소관 위 심사 중인
- 조성환 의원 등 13인은 2024년 8월 22일 ‘위기 청년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이기 청년을 가족돌봄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으로 정의하고 ①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②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기청년정책심의위원회 설립 ③ 가족 돌봄 청년의 가족 돌봄 수당 지급 ④ 위기 청년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건강 관리 등 지원 ⑤ 위기청년지원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현재 소관 위 심사 중인
- 이 법안들은 현행법상 정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부재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취약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개별법 개정이 아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단일법인 것에 의의를 두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 조례

-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제정한 이후 최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
 - 2021년에는 5개 지자체, 2022년에는 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3년에는 30개 지자체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11월 현재 2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은둔'과 관련된 조례를 총 68건으로 연도별 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4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연도별 제정 현황

제정 연도	해당 지자체	조례 수
2019	광주광역시	1
2021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광주광역시 남구	5
20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동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
2023	고양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전광역시, 화성시, 부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주시, 광명시, 순천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전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북구, 장성군, 의왕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산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0
2024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구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중구, 포항시, 대전광역시 서구, 전주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산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해시, 구리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이천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군,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산시, 경상남도, 경기도	26
총계	68건	

(자료) 지방자치 법규 시스템

-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연령으로 대상을 구분하지 않지만, 몇몇 지자체는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은둔과 함께 고립을 같이 포함하는 지자체도 있음
 -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4년에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안산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경기도, 경상북도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이고 예산군은 조례명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이지만 제2조 정의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으로 제한하고 청년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화성시는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이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조례'로 조례 명이 좀 다르지만, 내용은 여타 조례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
- 무작위로 각 제정 연도별 3개 정도의 조례를 추출하여 13개 지자체 조례 내용을 분석하면 공통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회활동 참여 촉진과 일자리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으로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조사연구, 가족 상담 및 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음. 고양시는 5년 의무 규정이며 서울시 금천구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는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2년~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재량과 의무 규정이 혼용되고 있으며 고양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천시 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재량 규정임
 -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지자체도 많은데 대부분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음
 - 지원센터 설치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 재량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음
 -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문화, 예술, 체육 서비스, 조사·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고양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의 조례에는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사업이 있고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동구는 통합지원과 평생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사업으로는 상담 및 교육을 재량 규정으로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을 재량 규정으로 포함한 지자체도 있음
 -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 조례와 다르게 은둔형 외톨이 발굴 주체를 시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명시하며 발굴을 강조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의무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2019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 조례는 명시하고 있는 내용 및 사업이 많고 대부분이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장 적극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음

표 2-5 | 지자체별 자치법규에 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내용

지자체	기본 계획 수립	실태 조사	발굴 주체	위원회 설치	지원 센터 설치	당사자 대상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발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직업 훈련 지원 연계	문화, 예술, 체육 서비스 지원	조사 연구 개발 지원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통합 지원	평생 교육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광주광역시 (2019)	5년 (의무)	3년 (의무)	-	○ (의무)	○ (재량)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의무)	○ (의무)	○ (재량)	○ (재량)	
광주광역시 동구 (2021)	5년 (재량)	3년 (재량)	-	○ (재량)	-	-	○ (재량)	○ (재량)			-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전라남도 (2021)	5년 (의무)	5년 (재량)	-	-	-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	○ (재량)			○ (재량)
부산광역시 (2021)	5년 (의무)	3년 (재량)	-	○ (의무)	-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				
노원구 (2022)	5년 (재량)	-	-	○ (재량)	-	○ (재량)	○ (재량)		○ (의무)		-	-	○ (재량)	○ (재량)		
전라북도 (2022)	5년 (의무)	5년 (의무)			-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	○ (재량)			
울산시 중구 (2022)	5년 (재량)	-	-	○ (재량)	-	○ (재량)	○ (재량)	-	-		-		○ (재량)	○ (재량)		
경기도 (2023)	5년 (의무)	2년 (의무)	-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 (재량)	○ (재량)		
고양시 (2023)	5년 (의무)	○ (재량)	○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 (재량)	-		
제주특별자치도 (2023)	5년 (의무)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서울시 금천구 (2024)	매년 (재량)	-	-	-	-	○ (재량)	○ (재량)	-	○ (재량)				○ (재량)			
이천시 (2024)	5년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부산광역시 사상구 (2024)	5년 (의무)	3년 (의무)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 (재량)		

〈자료〉 지방자치 법규 시스템 내 각 지자체 조례

○ 위에 검토한 은둔형 외톨이 법령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법률은 없고 최근 지자체 조례는 많이 늘어나고 있음.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 정책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바랍직한 방향이지만 지역에 따라 조례 유무와 대상, 사업 범위의 격차가 큰 상황임
- 일본의 경우 '아동 청년 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2009년 제정)'을 통해 히키코모리 등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영국도 'Care Act 2014'를 통해 외로움을 하나의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고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음
- 현재 많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이 연속성 없이 1년이 채 안 돼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은둔형 외톨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법적 지위와 합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법률안은 생애주기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으로 청년이 아닌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다른 세대의 은둔형 외톨이를 포괄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동, 청소년기 등 학령기 은둔형 외톨이 예방 정책과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은둔형 외톨이 선행연구

1. 학술연구

-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학술연구는 2003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발전하는 과정을 사회구조적 요인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시도한 이진희의 연구임. 이진희 연구에서는 히키코모리의 의미와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히키코모리를 단계별로 분류하여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히키코모리가 유독 일본과 한국에서 보이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히키코모리의 회복 프로그램을 검토함
- 백형태 외(2011)는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함
- 박지선(2020)은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함
 -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함
 - 그동안 ‘아동·청소년’ 내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 대상을 ‘중·고령층’으로 확대하고, 분절된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의 지원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음
 - 상담·복지·의료·교육·고용 등 다 영역에서의 포괄적 지원시스템과 더불어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제시함
- 김광희(2020)는 한국 청년의 실업과 히키코모리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일본의 8050 문제 즉 80대 노령의 부모가 경제,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50대 중장년 미혼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실상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와 연결하여 제시함
- 노가빈(2021)은 은둔·고립 생활을 3개월 이상 지속한 경험이 있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고립 청년 5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하여 은둔·고립 생활 발생 및 지속되는 이유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공함
- 이진아(2022)는 국내 은둔형 외톨이 및 가족과 주변인의 삶에 대한 경험적 내용이 적고 논의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강조하며 성인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를 진행함
- 제세령 외(2022)는 은둔형 외톨이 자가 보고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25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제시하였음

- 김혜원(2022)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부모와의 심층 면담, 그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분석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당사자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 기다려 줌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여기고 있고 부모는 멘토링, 부모 교육 등 전문적 도움과 지원시스템 및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함
- 권수영(2023)은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은둔 경험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질적 주제는 <가족 간의 갈등>, <감당키 힘든 일>, <어두운 굴로>, <흑암의 시간>, <다시 세상으로>, <고군분투의 시간>, <경험으로 얻은 것>, <은둔 청년에게 주는 말> 등 9개 주제를 도출함
- 김진숙(2023)은 집안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집 밖으로 나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취업 또는 학업을 준비하거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16명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개별 심층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의 자활을 위한 사회 복지적 실천 및 정책 차원의 논의를 제시함
- 정진영 외(2023)는 은둔형 외톨이의 정신질환 유병률 및 정신 사회적 특징을 연구함
 - 은둔형 외톨이 군에서 주요우울장애 및 사회공포증과 광장공포증 등의 불안장애, 신체이형장애와 함께 성격장애의 유병률이 매우 높고 높은 자폐 성향을 보임
 - 은둔형 외톨이는 젊은 연령, 남성, 미혼, 무직인 비율이 높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인 경우가 많았으며, 높은 우울, 불안 및 자살 위험도를 보고함
 - 한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군을 선별하고 평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획할 때 정신건강의학적인 평가와 지원의 중요함을 강조함
- 류황석(2023)은 히키코모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청년 문제의 대두와 대책을 살펴보고, 일본의 고독 및 고립 대책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함
 - 교육, 고용, 가족,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 또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함
- 김도희(2024)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함
-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정리하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술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2003년 은둔형 외톨이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202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둘째, 연구 주제는 크게 일본의 히키코모리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박지선, 2020; 김광희, 2020; 류황석, 2023) 연구와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 개발(백형태, 2011; 제세령, 2022),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과 현실, 극복담에 대한 질적 연구(노가빈, 2021.; 이진아, 2022; 김혜원, 2022; 권수영, 2023; 김진숙, 2023)와 청소년이 은둔형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진희, 2003), 은둔형 외톨이의 정신 사회적 특성(정진영 외, 2023)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2024) 등이 있음

- 셋째, 연구 방법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 등 심층 면담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외 일본의 문헌 등을 연구한 문헌 연구, 연구 경향 분석 등 질적 연구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통계를 활용한 연구는 정진영 외(2023)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2. 정책연구

-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연구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국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청년재단,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는 다음과 같음
 - 2005년 청년위원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고등학교 1~2학년 1,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 방안을 제시함
 - 2020년 청년재단에서 「고립 청년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시행하여 청년 47명, 부모 34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통해 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모형 개발」 연구를 시행함. 통계청 사회조사를 원자료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고립 청년은 2019년 3.1%, 2021년 5.0%로 추정함
 -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연구 결과로 은둔 청년은 2022년 기준으로 19~34세 청년의 2.4%(경기도 3.3%) 전국 약 24만 4천 명 규모 정도로 추정하였음
 - 202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는 은둔 청년 5,151명, 고립 청년 3,71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그러나 이 연구는 인구 규모 추정은 하지 못함
 - 2023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은둔 청소년 발굴 스크리닝 척도를 개발하고 은둔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은둔 관련 문항을 가지고 있음. ‘평소 외출 정도’와 ‘현재 상태 지속 기간’으로 측정하였고, 18세~34세 청년 중 은둔형 외톨이 발생 비율은 2017년 0.9%, 2018년 0.49%, 2019년 0.93%, 2020년 1.59%, 2021년 2.15%로 나타남.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2022년 청년기본법상 법정 조사인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로 병합되어 지속되고 있음
- 지자체 정책연구로는 광주광역시, 서울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연

구를 진행했으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도 연구를 진행 중임

- 광주광역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2020년 「제1차 광주광역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사자 237명, 가족 112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당사자 11명, 가족 11명 대상 심층 면접을 통해 실태를 조사함. 2023년에는 제2차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고 현재 은둔 당사자 181명,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당사자 142명, 가족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함
- 서울특별시는 2022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함. 청년 가구를 서울특별시 가구 분포에 맞추어 표집을 하여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고립 청년은 3.3%, 은둔 청년은 1.2%로 추정함
- 부산광역시는 2022년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부산연구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4~2023)」 연구를 실시함. 실태조사, 심층 면접, IPA 조사를 근거로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전라남도에서는 2021년 전라남도 은둔형 청장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기초연구를 시행하였고 2023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4~2028년)」 연구를 진행함. 19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243명의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심층 면접을 시행하여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제주 특별시에서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시행하였고 은둔 청년 2.5%, 고립 청년 2.2%로 규모를 추정함
- 경기도에서는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통하여 2024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를 시행하였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총 4,359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은둔 청년은 942명, 고립 고위험군 271명, 고립 위험군 679명, 비 위험군 2,467명이었음
- 인천광역시에서도 2024년 은둔 청·장년층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중임
- 지자체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지자체 은둔형 외톨이 연구는 2020년 광주광역시 실태조사부터 시작되었으며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시 중심으로 실시됨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립 청년에 관해 연구를 진행함.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는 은둔을 특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대상도 청년의 제한되지 않고 장년, 노년까지 그 범위가 넓음
 - 광주광역시(2022년), 부산광역시(2023년), 전라남도(2023년), 제주특별자치도(2023)는 최근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함

표 2-6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연구 주요 내용

순번	과제명/연구기관	목적	연구 대상 /응답자 규모	연구 내용 및 방법 대상
1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2005/ 청소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들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 분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방안에 대해 살펴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대상: 청소년 설문 대상: 고1-2학년 1,46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형 외톨이 개념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실태 외국 사례연구 : 일본, 영국, 미국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 방안
2	고립·청년 (은둔형외톨이)실태조사 2019/ 청년재단 (파이교육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 청년으로 빠져들게 되는 동인과 환경을 분석하여 고립 청년 예방을 위한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 현 고립 청년과 부모들의 생활환경과 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여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대상: 청년 1대1 면담: 청년 47명, 부모 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 배경 면담 문항 개발 연구 면담 논의 및 정책제언
3	제1차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2020/ 광주광역시 (풀인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른 실태 파악 은둔형 외톨이의 심리 사회적 경험의 이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위한 근거자료 확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대상: 전 연령대 온라인 설문조사: 1,095부 당사자 237부, 가족 11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적 논의 관련 법령 실태조사 심층 면접 정책제언
4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청년을 중심으로 2021/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이들의 삶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을 식별 생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공적 지원이 부재한 핵심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대상: 청년 초점집단 면담: 고립청년 8명, 은둔청년 6명, 부모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청년 유형화 및 규모 추정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실태분석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해외사례 청년 삶과 정책 수요 국내 지원실태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방향을 도출 		
5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 202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고립·은둔 청년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지원 사업 운영모형 개발 제도 기반 구축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의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대상: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 청년 개념 및 실태 국내·외 은둔청년 지원사업 사례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 추진전략 및 원칙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운영 모형개발
6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2/ 서울특별시 (피एम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확인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을 위한 근거자료 구축 고립·은둔 청년에 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잠재적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선제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대상: 청년 온라인 설문조사: 청년가구 5,163가구, 일반청년 5,322명, 고립 청년 332명, 은둔 청년 135명 심층 조사: 고립·은둔 청년 16명, 고립·은둔 가족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 서울특별시 청년 고립·은둔 규모 추정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유형화 분석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심층 조사 결과 요약 및 제언
7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수행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모형 개발 연구」 영역의 후속으로, 전국 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의 고립·은둔 삶 실태와 복지 욕구를 입체적으로 파악 현세대 취약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복지정책 수립의 근거를 생산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대상: 청년 설문조사: 56,183명 접속 중 은둔 5,151명, 고립 3,7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립·은둔 청년개념과 삶의 경험 국내외 고립·은둔 실태조사 사례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고립·은둔 청년의 복지 욕구 분석 고립·은둔 청년의 복지 욕구 질적 분석 결론 및 정책제언
8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대상: 전 연령대 온라인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형 외톨이 개념 정의 및 서비스 현황

	<p>지원 기본계획(2024-2028) 2023/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p>	<p>조사 결과에 근거한 지원 기본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일상 및 삶의 회복과 사회적 회복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사회문제 예방과 사회적 부담 경감 	<p>당사자 597명, 가족 21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 면접: 당사자 9명, 가족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심층 면접 • IPA 조사 결과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9	<p>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24~28) 2023/ 전라남도 (세한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분석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경험 이해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5개년 기본계획 근거 확보 •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 전 연령대 • 설문조사: 19세~64세 243명 • 심층 면접: 은둔당사자 및 가족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제도 및 정책환경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특성 • 실태조사 • 욕구 조사 심층 면접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
10	<p>제2차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202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여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 전 연령대 (65세 미만) • 설문조사: 당사자 323명, 가족 90명 • 심층 면접: 당사자 7명, 가족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고찰 • 설문조사 • 심층 면접 • 현장 전문가 FGI • 지원 방안
11	<p>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보고서 2023/ 제주도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 청년 • 설문조사: 1,031명 • 심층 설문조사: 135명 • 심층 면접: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 제도화 현황과 특징 • 제주도 청년 상황과 고립-은둔 규모 • 실태 설문조사 • 실태 심층면접 • 정책과제 기본계획

제4절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 인구 규모 추정

1.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규모 추정

1) 일본 히키코모리 규모 추정

- 일본의 히키코모리 관련 정책은 ‘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 推進法, 2009년 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역시도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히키코모리에 대한 전국 조사는 2010년, 2015년, 2018년, 2022년 이루어졌고 조사의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과 연령대가 다양함
- 15~39세는 히키코모리 규모는 2010년 1.8%, 2015년 조사는 1.57%, 2022년 조사는 2.05%로 추정됨
- 40~64세는 2018년 1.45%, 2022년 2.01%로 규모 추정됨

표 2-7 | 일본의 히키코모리 실태조사

구분		2010년 조사	2015년 조사	2018년 조사	2022년 조사
조사명		청년 의식에 관한 조사	청년 생활에 관한 조사	생활 상황에 관한 조사	아동 청년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대상자		15~39세	15~39세 본인 및 동거하는 성인 가족	40~64세 본인 및 동거하는 성인	- 10~39세 남녀 2만 명 - 40~69세 남녀 1만 명
규모 추계	15~39세	1.8%	1.57%	-	2.05
	40~64세	-	-	1.45	2.01

(자료) 내閣府政策統括官(共生社会政策担当). (2010).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ひきこもり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内閣府; 内閣府政策統括官(共生社会政策担当). (2015).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内閣府; 内閣府政策統括官(共生社会政策担当).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報告書. 内閣府; 内閣府政策統括官(政策調整担当). (2023). こども・若者の意識と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内閣府, 김성아 외(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

※ 평상시에는 집에 있지만 취미에 관한 용무가 있을 때에만 외출한다. 평상시에는 집에 있지만 근처 편의점 등에는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거의 자기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응답한 비율

2) 국내 은둔형 외톨이 규모 추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은둔 관련 문항을 가지고 있음. ‘평소 외출 정도’와 ‘현재 상태 지속 기간’으로 측정하였고. 18세~34세 청년 중 은둔형 외톨이 발생 비율은 2017년 0.9%, 2018년 0.49%, 2019년 0.93%, 2020년 1.59%, 2021년 2.15%로 나타남.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2022년 청년기본법상 법정 조사인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로 병합되어 지속되고 있음(윤철경 외, 2022)
-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지는 승인 통계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1.3%),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1.0%),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0.1%),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0.0%)고 가중치를 적용한 전국 은둔형 청년은 2.4%(24.4만 명)으로 추정됨
 - 단, 이 실태조사는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주된 조사 방법으로 하고 있어, 타인과 관계를 회피할 수 있는 은둔 청년이 접촉 불가 혹은 조사 거부 등의 이유로 체계적으로 응답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김성아 외, 2023)
 - 평소 외출 정도로 분석된 은둔은 2.8%이며 광역시도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5%가 은둔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는 4.1%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높음
 - 임신, 출산, 장애 등으로 외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둔 비율은 2.4%임
-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및 규모 파악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전문 조사업체인 (주)피엠아이가 수행했음
 - 평소 외출 정도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1주일간 경제활동 없음, 1개월 이내 구직활동 및 학업이 없음을 기준으로 조사한 은둔 규모는 1.2%임

표 2-8 | 국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구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	서울시
조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피엠아이
대상자	18~34세	19~34세	19~39세
응답자 규모	-	15,000가구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표본조사 청년 가구 5,163가구
은둔형 외톨이	• 평소 외출 정도	• 평소 외출 정도	• 평소 외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②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③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④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생활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됐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②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③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④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②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③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④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생활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됐음 •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
규모 추정	(‘17년) 0.9%, (‘18년) 0.49%, (‘19년) 0.93%, (‘20년) 1.59%, (‘21년) 2.15%	(‘22년) -임신, 출산, 장애 제외 하고 있는 경우는 전국 2.4%, 경기도 3.3%	(‘22년) 1.2%

<자료> 윤철경 외 (2022). 고립 은둔 청년 바우처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피엠아이(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박규범(2024)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

- 현재까지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국내 실태조사는 조사 방법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며, 조사 결과상 은둔 규모의 차이가 크고, 실제 타인과 관계를 회피할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조사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둔형 외톨이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기 어려움
-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실태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 규모, 지역 규모, 연도별 발생률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3) 국내 고립 규모 추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모형개발」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을 타인과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결핍된 것으로 정의하고 은둔은 고립 인구 중에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작적 정의함
- 고립은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교류가 부재(A.사회적 관계없음)한 경우와 생활경제, 정서적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 부재(B.사회적 지지체계 없음)일 경우로 정의하고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함
- 분석 결과 전체 고립 인구는 6.0%이며 만 19세~34세는 5.0%, 35~49세는 5.4%, 50~64세는 6.6%, 65세 이상은 9.2%가 고립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에 취약함을 알 수 있음

표 2-9 | 전국 고립 인구 규모 추정(2021)

구분	사회적 관계없음(A)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B)	고립(A∩B)
전체	13.7	12.5	6.0
13~18세	8.8	0.0	0.0
19~34세	10.0	10.1	5.0
35~49세	11.9	11.4	5.4
50~64세	14.6	14.4	6.6
65세 이상	21.2	18.0	9.2

〈자료〉 김성아 외(2022).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모형 개발 연구

4) 고양시 고립 인구 추정

- 은둔은 고립의 극단적인 형태로 고립과 은둔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고양시의 고립 인구 규모를 추정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
- 고립 인구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고양시는 2024년 사회조사에서 ‘사회적 관계’ 항목을 추가하여 기존의 사회적지지 항목과 함께 분석하여 고립 인구를 추정함
 - 사회적 관계는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여 유무로 측정함
 - 사회적지지는 귀하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돈을 주고 고용한 파출부, 무료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단체는 포함하지 않음)로 유무를 측정함

-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지지 둘 다 없는 경우는 전체의 15세 이상 3.4%이며 19~34세는 1.2%, 35~49세는 2.4%, 50~64세는 3.1%, 65세 이상은 7.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립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고립 인구 규모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음

표 2-10 | 고양시 고립인구 규모 추정(2024)

구분	사회적 관계없음(A)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B)	고립(A∩B)
전체	13.0	6.7	3.4
15~18세	3.7	1.2	0
19~34세	7.6	3.7	1.2
35~49세	12.2	5.7	2.4
50~64세	12.3	7.0	3.1
65세 이상	23.6	11.9	7.4

〈자료〉 고양시(2024). 사회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제3장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분석

제1절 국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제2절 국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제3절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지원 사업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국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 본 절에서는 국외의 사례를 통해 고립과 은둔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상호보완적 시각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함
 - 일본, 핀란드, 영국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선도적으로 시도한 국가들임
- 일본은 히키코모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최초의 국가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장 초기 사례이며, 수십 년에 걸친 문제 축적과 함께, 일본은 다양한 정책적·사회적 접근을 통해 히키코모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온 국가 중 하나임. 장기적 고립 상태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을 위한 지원책 등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핀란드는 보편적 복지 모델과 예방 중심 정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고용, 심리 상담의 통합적 접근은 은둔형 외톨이 예방 및 회복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임
- 영국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부 (Minister of Loneliness)'를 설립하여 사회적 고립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역사회 기반 지원 및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접근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임

1. 일본

- 일본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용 문제가 비교적 일찍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음. 이에 따라 히키코모리 대책 외에도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음. 2021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고독 및 고립에 대한 대책이 도입되기 시작함

1) 히키코모리

□ 히키코모리의 등장

- 1989년에서 1990년, 버블경제 절정기였던 당시 일본에서는 등교를 거부한 청소년들이 집에 머무르는 현상과 고등학교 졸업 연령에 이르렀음에도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청년들의 모습을 모두 문제로 인식하였음(村澤, 2017)
- 히키코모리의 주요 원인으로는 따돌림(이지메)으로 발생한 ‘학교 공포증’이 거론되며, 이에 따라 등교를 거부하고 결국 히키코모리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이 문제로 지적됨.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8050 문제의 심각성

- 2023년 11월 기준 15~39세 응답자 중 2.05%, 40~64세 응답자 가운데 2.02%가 은둔형 외톨이로 파악됨. 조사의 응답자 수는 약 1만 1,300명이었으며 은둔형 외톨이로 파악된 사람 중 약 20%는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지목함
- 일본 정부는 은둔형 외톨이를 6개월 이상 지속해서 방에 머물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가끔 편의점 방문이나 취미활동과 관련된 외출만 하는 상태로 정의함
- 과거에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구분하여 조사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15세에서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 이번 조사는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층으로도 광범위하게 확산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줌. 특히 조사 결과, 히키코모리의 약 40%가 40대이며, 부모 세대가 고령화된 상태에서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이른바 ‘8050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과제로 지적되었음(김채현, 2023)

□ 히키코모리의 고령화와 장기화

-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과 맞물려 형성된 이른바 ‘취업 빙하기 세대’는 특정한 정치적·경제적 요인과 지속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 구직이 어려운 상황을 뜻함. 이 시기에는 고학력 구직자와 일자리 간의 조건 불일치로 인해 장기간 취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현

재 이 세대가 중장년층으로 접어들면서 은둔생활을 이어가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4070 문제' 또는 '5080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류황성, 2023)

□ 독신 고령자의 히키코모리

- 현재 일본의 독거노인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사회 보장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일본 후생성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0.6%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이 중 20%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도요케이사이신문, 2024)
- 일본에서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강해 노년층이 자녀에게 간병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령자들은 대인관계 단절과 사회활동 거부를 하면서, 히키코모리 현상이 청년에 국한되지 않고 노년층에도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 히키코모리 대책

□ 민간 영역에서 시작된 히키코모리 대책

- 199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프리 스페이스(이바쇼=居場所) 운동은 일본어 '이바쇼(居場所)'에서 유래하며, 이는 '안식처'나 '머무를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이 운동은 대안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집에 머무르는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하지는 못하였음. 이에 따라 지원 방식을,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문형 지원'과 정기적인 상담을 기반으로 한 '통원 치료형 지원'으로 나뉘게 되었음(류황석, 2023)
-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는 가족들은 부모회를 조직하여 상담 지원과 프리 스페이스 제공 등 활동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당사자를 사회활동으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佐藤, 2018)

□ 공적 영역의 지원

- 공적 지원은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히키코모리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섰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공적 지원은 히키코모리의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적 관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표 3-1 |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

연도	내용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히키코모리에 대한 공적 지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작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지원 주체가 점차 지역 주민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변화해 왔음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후생노동성은 '10대와 20대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지역 정신보건 활동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히키코모리를 정신보건복지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히키코모리의 개념적 정의를 설정했음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빙하기 세대의 고용난을 해결하고 생활보장 대상으로 전략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15세에서 39세 사이의 니트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을 돕는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이 시작되었음 이 사업은 지역 커뮤니티 단체, 특히 NPO 기관에 위탁되어 전국 160개소에서 취업 상담, 기업 체험, 구직활동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에 히키코모리 지원에 중점을 둔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 사업'이 시작됨. 이에 따라 전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히키코모리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음 2020년 기준으로, 전국 67개 지자체에서 75개의 히키코모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이곳에서는 상담 지원, 지역 관계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지원, 정보 제공, 지역 지원기관에 대한 조언 및 상담을 제공함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및 청소년 육성 지원 추진법」이 시행되는데 법안은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NEET와 히키코모리 청년을 지원하고자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히키코모리 문제의 장기화와 고령화를 고려하여, 가족 상담 지원을 포함한 지원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음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가계와 주거 지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담 지원이 제공됨. 이후 2018년 개정으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경제적 어려움의 히키코모리도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東京市町村自治体調査会, 2021)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직 빙하기 세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40대 이상의 히키코모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음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히키코모리 지원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독려 되었음(關係府省申合せ, 2021. 6. 29.)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개정된 생활곤궁자 자립 지원제도에 히키코모리 대상자가 포함되었고, 이를 통해 각 지역 상담 창구에서 자립 상담,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됨(政府広報オンライン, 2023. 12. 12.) 같은 해에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이 제정됨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적인 고독·고립 대책 중점계획이 수립되어 히키코모리와 청년 무업자 등 취약 계층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됨(孤独·孤立対策推進本部, 2024. 6. 11.). 또한 2024년 6월, 아동·청년 육성 지원 추진법 개정으로 영케어러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을 18세 이상 영케어러 청년까지 확대하고 있음(こども家庭庁, 2024a; 202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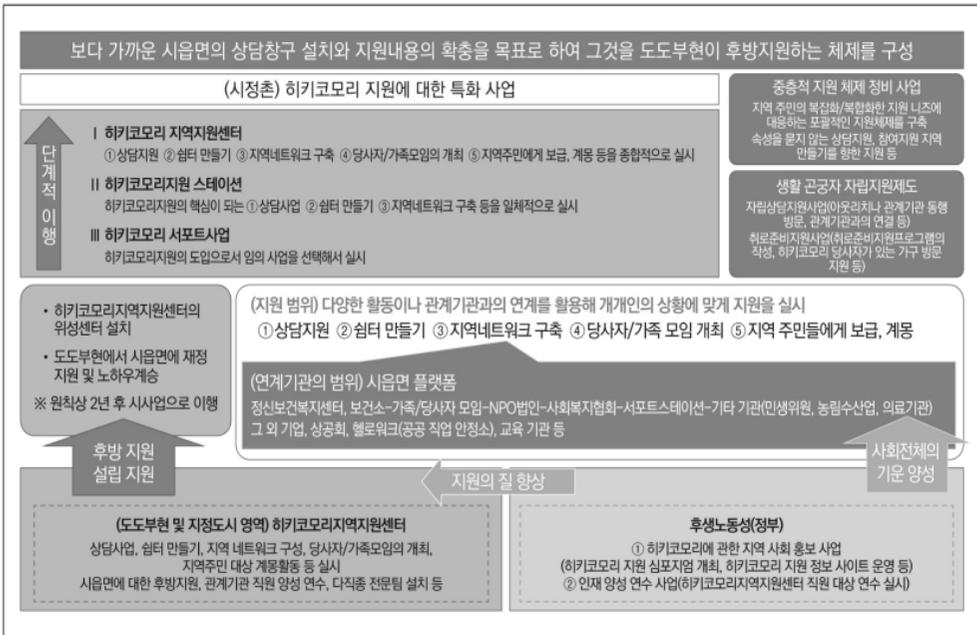
(자료) 류황석(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일본의 지원 정책과 현황: 히키코모리 지원과 '고독·고립 대책'을 중심으로」, p40-43 내용을 재구성함

3) 지원 사례

□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 사업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히키코모리 지원을 사회원호국 지역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이 기관은 지원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인식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심포지엄 개최, 정보 포털 사이트 ‘히키코모리 보이스 스테이션(ひきこもりVOICE STATION)’ 운영)을 진행함
- 광역지자체는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초지자체는 히키코모리 서포트 사업과 히키코모리 지원 스테이션을 운영함
 -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업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기도 하며, 기초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함
 - 이 네트워크에는 NPO 법인,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회복지협의회, 가족 및 당사자 모임, 정신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소, 헬로워크(직업소개소), 교육 기관 등이 포함됨

그림 3-1 |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의 전체상



(자료) 노현주 외(2024). 일본의 취약 청년 지원 정책: 니트와 히키코모리 청년을 중심으로

□ 히키코모리 지원센터 운영

- 히키코모리 지원센터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히키코모리 개인

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개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연계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해 히키코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8년 4월까지 전국 47개 도도부현과 20개의 정령 지정 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에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설립함. 2022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역지원센터를 확충함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해 상담 지원, 거주 공간 제공, 네트워크 형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히키코모리 지원 스테이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박대원, 2023)
 - 지역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복지사, 임상심리사,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코디네이터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연계함
 - 또한, 지역 내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림 3-2 | 일본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설치 운영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Youth Support Station)

- 일본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15~39세의 무직 청년과 히키코모리를 대상으로 한 자립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은 이곳에서 직업 상담, 직업 체험, 구직활동 지원, 사회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취업 및 사회 진입을 준비할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약 160개소에 운영 중이며, 지역의 NPO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이승주, 2023)

표 3-2 |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의 지원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커뮤니케이션 강좌	전문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며 대화의 어려움을 극복함
잡 트레이닝 (취업 체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희망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을 경험해 봄
비즈니스 매너 강좌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매너를 배우기 위해 옷차림, 인사법, 말투, 전화 응대 등을 학습함
취업 세미나 (면접, 이력서 지도 등)	채용 응시 방법과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등을 통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취업 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함
집중훈련 프로그램	합숙 형식의 생활 지원과 직장 실습,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
PC 강좌	워드, 엑셀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컴퓨터 기능을 학습함
work fit	일본 파견 회사인 (주)리크루트와 함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신의 가능성 발견부터 채용 응시와 면접 준비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함
out reach 지원 (고교 중퇴자 등)	고교 중퇴자의 희망에 부응하여 고교나 자택을 방문하는 아웃리치 형식의 상담 등 세심한 지원을 제공함

(자료) 이승주(2022). 「일본의 청년 자원 정책-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법

- 2015년 4월에 시작된 자립 지원제도는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약 900개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음. 이 제도의 근거법인 '생활곤궁자 자립 지원법' 제2조는 '생활곤궁자'를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로 정의함. 다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 등 요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생활곤궁자 자립 지원법은 제도의 기본 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생활곤궁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제정되었음. 자립 지원제도의 목표는 생활곤궁자의 자립과 존엄성 확보 및 생활곤궁자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만들기임. 지원 형태로는 포괄적 지원, 개별적 지원, 조기 지원, 지속적 지원, 분권적·창조적 지원이 제시되고 있음(최성준, 2022)

-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사업인 자립 상담 지원 사업과 주택 확보 급부금이 있으며, 임의 사업으로는 취업 준비 지원제도, 임시 생활 지원 사업, 가계 상담 지원 사업, 아동 학습·생활 지원 사업, 그 외 자립 촉진 사업이 있음. 선택적인 사업은 법에서 정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이용자의 개별 욕구에 맞춰 맞춤형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 과정은 자립 상담 지원 사업을 통해 이용 신청 및 상담이 이루어지며, 생활 곤란자의 문제를 평가한 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업들을 조합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함. 이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및 계획 수립 전에 주택 확보 급부금과 임시 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기본적인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자립 상담 지원 사업은 제도의 창구 역할을, 주택 확보 급부금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별로 생활곤란자의 욕구에 따라 5개의 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임(최성준, 2022)

□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

- 2023년 제정된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은 히키코모리를 포함한 고립된 개인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제도화한 것임. 이 법을 통해 히키코모리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음

표 3-3 | 고립·고독 대책 추진법의 개요

개요	기본이념	1.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 당사자 등 모두의 입장에서 상황별 지원이 계속해서 가능하도록 한다. 3. 당사자의 의향에 따라, 고독과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기본적 시책	1. 중점계획 작성 2. 국민 이해 증진(인식개선) 3. 개별적, 종합적 상담 지원 4. 협의 촉진 5. 인재 확보 6. 지방공공단체 및 자원 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 7. 조사연구의 추진 8. 지역 협의회 설치
	추진체계	1. 내각부에 고독 및 고립 대책 추진 본부를 설립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고독·고립 대책 지역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료〉 류황석(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일본의 지원 정책과 현황」

□ 단시간 직업 체험

- 히키코모리 당사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형태의 근무와 초단시간 근무 환경을 만들어 체험함으로써 성공적인 일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함
 - 도쿄도(都)내 니시도쿄시의 한 서점은 수제 인형을 만드는 공방이기도 하며, 또 다른 쪽은 헌 옷 등을 파는 잡화점으로 운영하는데 이곳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교육·지원 단체인 YI 히바리가오카 칼리지가 사회 적응을 위해 직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곳임. 수입이 없는 경우 입회비와 수강료는 0엔임
 - 히키코모리들에게 일종의 학교이자,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프로그램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오후 3시 50분까지임. 토요일까지 강좌를 만든 이유는 장기 칩거 생활로 체력이 극도로 저하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고 함(파이낸셜뉴스, 2021)
-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카페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나 대인 기피증을 겪는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카페를 지원하고 있음
 - 직원들이 벽 뒤에서 곰 인형 장갑을 끼고 손님을 응대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러한 비대면 형태의 근무는 직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사회와의 첫 접촉을 부드럽게 만들어줌(동아일보, 2021)

그림 3-3 | 15분 카페 & 곰손카페



〈자료〉 더쿠. '일본의 히키코모리 친구들 고용한 카페 & 쿠마노테 카페. 귀여운 곰돌이 손으로 전해지는 특별한 곰손카페

2. 핀란드

- 핀란드는 은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주된 요인으로 높은 학업 성취 및 직업적 압박 그리고 복지국가로서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경제적 안정성,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 등을 이야기함. 핀란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청년들이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어 고립된 청년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1)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

-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원, 권리, 재화,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그 접근을 거부당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관계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음(Levitas et al, 2007)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연결이 온라인으로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대면 교류가 줄어드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도 이러한 은둔 현상을 가속화 했으며, 팬데믹 이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핀란드의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청년의 은둔과 고립이 일본과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고립 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청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거나 지체가 장기화될 경우 다차원적인 결핍을 심화시켜 영구적인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 강력한 개입을 요청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음(Eurofoun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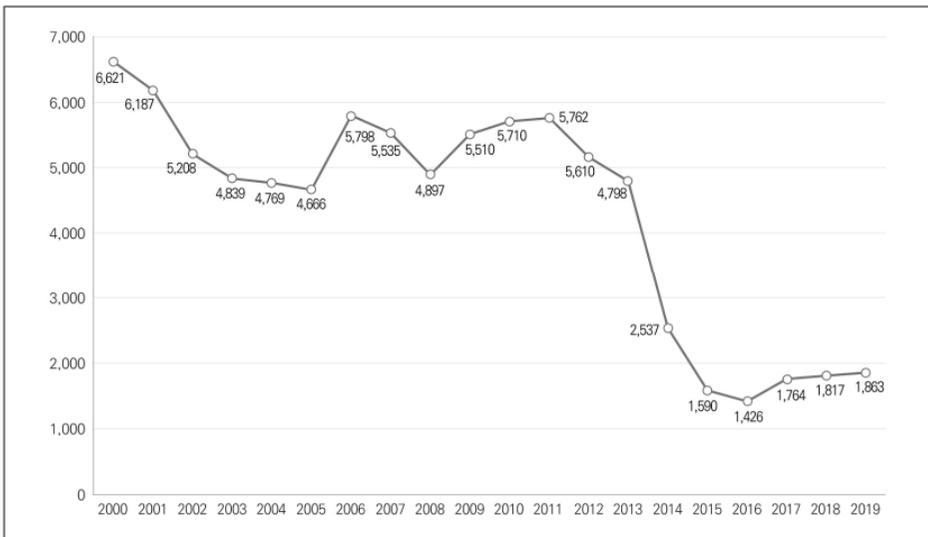
□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청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핀란드

- 핀란드 정부는 사회적 배제 청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규모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사회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청년 그룹의 규모를 집계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이때 니트 청년 규모와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한 청년의 규모가 주요 지표로 활용됨(신영규, 2023)
 -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건강, 주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태임. 따라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정의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청년의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핀란드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미 폭넓은 청년층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 배

제'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포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음
 - 니트 청년 비율은 OECD 또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 국제 비교 및 협력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니트와 학업 중단을 주요 지표로 선택한 것으로 보임

- 핀란드의 니트 청년 규모는 2008년 8.8%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11.1%로 증가하면서 2010년대에는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2015년 12.1%까지 늘어남. 이후에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다시 10%대로 증가하였음(신영규, 2023)
- 중학교 졸업 이후 더 이상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청년이 발생하면 청년법에 따라 해당 학교는 지방정부의 '아웃리치 청년 사업¹⁾' 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학교 교육으로의 이탈 방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예방적 조치를 중점으로 노력함
-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한 청년의 규모를 연도별로 나타낸 표를 보면 2013년 이후 학업 중단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핀란드 정부가 이 시기에 학업 중단 예방과 청년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예: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직업 교육 강화, 심리적 지원 등)을 도입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3 | 중학교 졸업 직후 학업 중단 핀란드 청년 규모



〈자료〉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 Finland)에서 발행한 Hyvinvointi-indikaattorit (2021a)

1)핀란드의 '아웃리치청년사업'은 청년법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보건의 서비스, 고용서비스, 여가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전국 60곳에 청년 문제통합서비스센터 '오흐야모센터'를 설치해 아웃리치청년사업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2) 지원 사례

□ 청년법(Youth Act)

- 핀란드의 청년 지원제도와 정책들은 ‘청년법(Youth Act)’에 따라 설계되고 집행됨. 이 법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 방식, 권한과 책임, 그리고 청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 계획 수립과 실행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청년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신영규, 2023)
- 핀란드의 청년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4년마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종합 프로그램인 ‘국가 청년 사업·청년정책 프로그램(National Youth Work and Policy Programme)’을 수립해야 함. 2020~2023년 동안 시행된 현행 프로그램은 산나 마린(Sanna Marin) 행정부가 2020년 1월 발표한 것으로, 주요 목적은 청년들의 사회적 배제 방지와 사회적 통합 강화임(신영규, 2023)
- 핀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니트족은 2015년 12.1%에서 2018년 10.7%까지 내림세를 보임. 2018년 10월 기준 25세 미만 실업자 수는 2만 8,400명으로 한해 전과 비교해 3천9백명 감소함. 탐페레시²⁾만 해도 15~24세 니트족은 2015년 14.9%에서 2017년 12.6%로 떨어졌고 25세 미만 실업자는 2017년 10월 2천4백5십 명에서 1년 만에 천6백8십3명으로 줄임(내일신문, 2019)

□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제도³⁾

-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 중앙정부는 2013년부터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는 24세 이하 실업자나 학업을 마친 25~29세 청년들이 고용 서비스사무소(TE-palvelut)에 구직자로 등록하면 3개월 이내에 사례관리자가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핀란드 전역에 있는 120여 곳의 고용 서비스사무소는 지방정부 조직, 교육 기관, 민간 청년 작업장, 사회보험청 등과 협력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계획을 제안하고, 이 계획을 구직자와 함께 추진함.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의 40~45%가 고용 서비스사무소의 해결책을 받아들여 학업이나 직업교육을 시작하고 있음

① TE-Office 구직자 등록 :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인 ‘TE-Office’ 구직자로 등록한 청년들에게 개인 맞춤 해결책을 제

2) 탐페레(핀란드어: Tampere, 스웨덴어: Tammerfors 탐메르포르스)는 핀란드 남서부 피르칸마 지역에 있는 도시이다. 인구 225,485명(2016년 기준)이다.

3) 신영규, 「핀란드 청년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79-90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공함.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춘 해결책을 제공하며, 일자리 알선, 교육 및 직업훈련 연계, 취업 탐색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창업 보조금을 지원함. 또한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취업 지도와 진로 계획 프로그램을 제공함. TE-Office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서비스를 제공함

② '원스톱 안내센터', 오희야모(Ohjaamo) :

오희야모는 청년 보장제도와 함께 핀란드의 주요 청년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조종실'이라는 뜻의 원스톱 안내센터 오희야모는 헬싱키 정부의 청년 프로젝트로 시작됨. 헬싱키의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은 관료주의적 분위기와 행정 처리 방식이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오희야모 센터를 만들게 됨.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는 분위기의 센터는 청년들의 개별 욕구에 맞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유럽사회기금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3년간 수행된 프로젝트였으나 종료 후에도 성공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의 예산으로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

표 3-4 | 2019 핀란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예산 편성

항목	예산 규모(유로)	비중
민간 청년단체 중앙조직 지원	18,300,000	23.3%
아웃리치 청년 사업 및 청년 보장	13,650,000	17.4%
청년 워크숍	13,500,000	17.2%
지방정부 청년 사업 지원	7,975,000	10.2%
전국 9개 국립 청년센터 운영	5,700,000	7.3%
전국 6개 청년 사업 전문센터 운영	5,000,000	6.4%
지역 단위 청년 성장 및 생활 조건 개선 지원	4,670,000	6.0%
연구 조사 사업	3,748,000	4.8%
국제협력	1,250,000	1.6%
국가 청년자문위원회 등 정부 조직 운영	1,050,000	1.3%
사미(Sami)언어 보호	850,000	1.1%
창업 및 경제활동 교육	800,000	1.0%
기타	1,900,000	2.4%
총예산	78,393,000	100.0%

〈자료〉 신영규(2021). 「핀란드 청년정책 동향」

□ '국가 자살 예방프로젝트'를 통해 확인된 돌봄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

- 1980년대 핀란드의 자살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음. 특히 심각하게 상 황으로 인지한 부분은 청년층(15~24세)의 자살률(10만 명당 23.8명)과 청년 남성들의 자 살률(10만 명당 37.7명)이 우려스러운 수준을 보였다는 것임(T partonen, 2018)

- 이에 1980년대 초 핀란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자살 예방프로젝트⁴⁾의 추진을 결정하고 1986년 국가 자살 예방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출범함
 - 국가 자살 예방프로젝트의 두 가지 주된 목표는 첫째, 자살률의 증가 추세를 꺾고, 둘째, 10년(1986~1996년) 안에 자살률을 20% 감소시키는 것이었고, 결국 국가 자살 예방프로젝트는 자살률을 낮추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됨(1986년부터 1996년까지 11.3% 감소, 혹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16.3% 감소)(T partonen, 2018)
- 앞서 언급한 아웃리치 청년 사업과 오희야모(Ohjaamo) 센터는 핀란드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심리적 지원과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며 청년이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상담을 시작하면, 고립과 고층에서 오는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에 대해 심리 전문가의 상담이 이어짐.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지원은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심리 치료와도 연계됨
 - 특히, 핀란드는 자살 예방 지침을 통해 고위험군 청년을 위한 특화된 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립된 청년이 필요한 경우 오희야모 센터로 연결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핀란드는 청년들이 심리적 상담, 직업훈련,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음. 이는 개별적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청년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줌(최윤진, 1998)
-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있어 사전 예방과 지속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단기적 문제 해결보다는 청년의 장기적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하여 고립 상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체계는,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을 촉진하고 있음

3. 영국

- 영국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정신건강과 사회복지의 연계된 문제로 인식함
- 이는 첫째, 많은 개인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는 점, 둘째, 현대 사회에서 개인 간 접촉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는 사회적 특성과 관련 있음. 특히, 만성적인 외로움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외로움 문제를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과제 중 하

4) 핀란드 정부는 1986년 세계 최초로 국가가 주도하는 '자살예방프로젝트'를 단행했다. 1992년 핀란드 정부는 자살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계보건기구(WHO)까지도 핀란드 모델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접속일 2025.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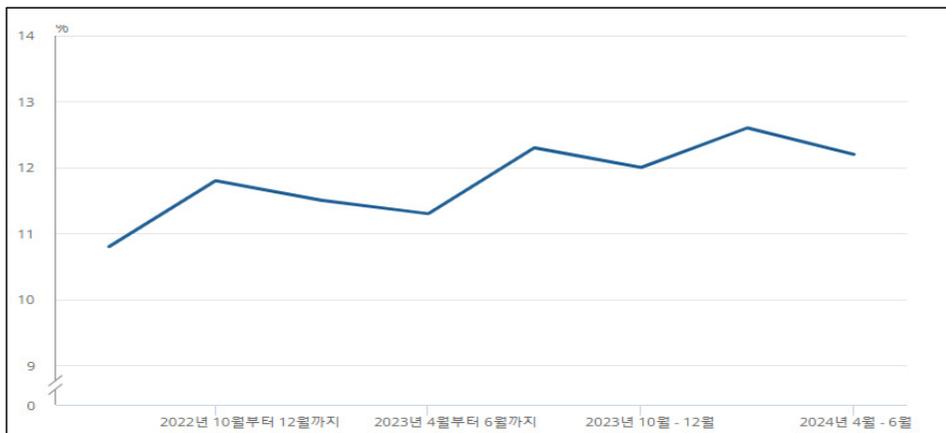
나"로 간주하고 있음(DCMS, 2018)

1)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 영국에서 시작된 NEET

- 사람을 NEET로 분류하는 것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사용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다양한 정도로 퍼져나감
- 영국에서는 청소년을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대로 하며, 이들이 NEET(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로 분류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거나 학기가 시작되기 전 대기 중인 경우, 견습 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일하거나 공부 중인 경우, 혹은 지난 4주 이내 직업 관련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경우는 NEET에 포함되지 않음.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 상태도 아닌 사람은 NEET로 간주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대체로 실업 상태이거나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파악됨(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4)
- 영국에 있는 16세에서 24세 중 약 12.2%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교육, 고용 또는 훈련(NEET)에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4)

그림 3-4 | 16세에서 24세 사이의 NEET 비율



(자료) 영국통계청(ONS)

□ ‘은둔형 외톨이’와 비슷한 니트(NEET)청년

- ‘은둔형 외톨이’와 비슷한 사회적 고립을 겪는 니트(NEET)청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이들을 자발적 고립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의 측면에서는 게으르거나 사회적으로 무책임하여, 이들이 사회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여 NEET 청년층이 정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게으른 세대'로 묘사되기도 함. 이로 인해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관점도 존재함. 특히 일부 언론은 NEET 청년을 빈번히 거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yobs"로 비유하며 비난하는 경향이 있음(Smith, A, 2007)

- 반면, 보다 감정적인 시각에서는 NEET 청년들이 사회적 환경, 경제적 불안정, 교육 및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좌절감을 경험하는 피해자로 인식하여 이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정성 속에서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집단으로 보고, 특히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함. 이 시각은 NEET 청년층의 고립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현대 사회와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보며, 이들을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Smith, A, 2007)
- 일부 연구는 영국의 NEET와 일본의 "히키코모리"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고 있으며, 청년들이 사회적 압박과 불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고립을 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함. 이에 따라 영국에서도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였음 (Guo, Y, 2022)
- 영국 사회에서 NEET 청년층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관점에 따라 빠르게 달라지고 있으며, 이들을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는 접근이 점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니트(NEET)과 히키코모리

-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니트족과 히키코모리 모두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으며,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며, 둘 다 경제적 자립이 부족하여 가족이나 사회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불안증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겪음
- 차이점으로는 우선 활동의 범위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니트(NEET)는 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지칭하며, 이는 단기적일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 히키코모리는 장기간에 걸쳐 집에 틀어박혀 거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사람들로, 이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남
- 원인으로 니트(NEET)는 경제적 불황, 교육 시스템의 문제, 노동시장의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을 꼽는다면 히키코모리는 개인적인 트라우마, 불안, 사회적 압박 등 심리적 및 문화적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봄

표 3-5 | 니트족(NET)과 히키코모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니트족	히키코모리
정의	교육, 고용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젊은이들	사회에서 철수한 사람들
사용 맥락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사회적 고립 상태
문화적 배경	주로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에 기인	심리적 및 문화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
나라	영국에서 시작된 용어	일본에서 발생한 현상

(자료) Koyama, A., et al. (2010). Lifetime prevalence, psychiatric comorbidity,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hikikomori in Japan. Smith, A. (2007). NEETs: Perceptions and aspirations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2) 지원 사례

□ 주요 지원 방식

- 영국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접근 방식이 마련되어 있음. 주요 지원 방식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 및 커뮤니티 기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짐

□ 직업 교육정책

- 영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NEET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뉴딜 정책이 도입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실제 노동시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하지만 구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지원 받을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함(김지경 외, 2013)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NEET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고,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 이를 통해 청년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지은재, 2006)

□ 고용정책

- 영국의 일 경험 강화 정책 중 하나로는 고용장려금 지원 서비스가 있음.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약 5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Youth Contract는 다양한 인턴십 과정, 견습 활동, 자문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 훈련이 결합된 형태로, 연간 예산은 약 10억 파운드(한화 약 1조 8천억 원)임(김은비 외, 2017)
- 일 경험 강화 정책은 16세에서 24세 사이의 NEET 청년들에게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제

공하면서 노동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

- 영국의 NEET 청년정책은 주로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의 조화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NEET 정책과는 차이가 있음(김은비 외, 2017)

○ 영국의 고용정책은 청년 NEET들의 자립을 위해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함

- 취업을 위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우선 지원하며, 기본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통해 실제 직업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Peer-Led Recovery Organizations (PLROs)

○ 약물 사용 장애로 인해 고립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도와 도움을 받으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Koyama et al., 2010; Smith, 2007)

- 동료 지원: 개인 경험이 있는 동료들이 공감, 이해 및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동료 지원을 제공

- 회복지원 서비스: 고용 지원, 주택 지원, 교육, 생활 기술 훈련 및 동료 기반 회복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포용성을 촉진하는 공공 정책을 옹호

- 낙인 감소와 변혁적 접근: 사회 전반의 오해를 불식시켜 약물 사용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고, 더 공감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체계적 변화 및 사회 정의를 옹호함으로써 장기적인 영향을 추구

- 정신건강 향상: 동료 지원 및 상호 지원 그룹 참여는 참여자들의 우울증과 불안증의 증상 감소 등 정신건강 향상을 나타내고 재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 사회적 관계 맺음에 필요한 대처 능력을 개발하고 연습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하는 커뮤니티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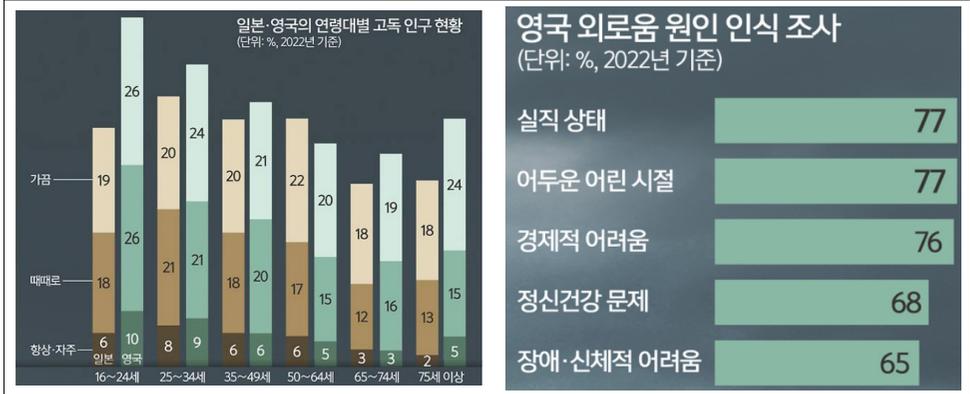
□ '외로움 부' (Ministry of Loneliness)

○ 영국은 2018년 1월에 세계 최초로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설립함

- 이 부처는 '외로움 부'(Ministry of Loneliness)로, 고독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함

○ '외로움 부'는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 겸직하여 고독 퇴치 정책을 주도하며, 2천만 파운드(약 32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회적 처방을 통해 외로움을 해결

그림 3-5 | 일본·영국의 연령대별 고독 인구 현황



〈자료〉 세계 뉴스룸. '외로움 부까지 만든 영국, 고독·고립 인식개선에 총력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 외로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노동당 하원의원 조 콕스의 사망을 계기로 '조 콕스 고독 문제 대책위원회'가 설립됨. 2017년에 발표된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고독 전담 부처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인구의 14%인 약 900만 명이 외로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약 3분의 2는 고독을 털어놓을 곳조차 없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음(국민총행복 전환 포럼, 2024)

○ 영국은 '연결된 사회' 5개년 계획(2019-2023)을 통해 국가적으로 외로움에 대응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연간 보고서를 통해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있음. 보건 사회복지부, 교육부, 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과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국민총행복 전환포럼, 2024)

□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이유

○ 첫째, 외로움은 많은 개인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둘째,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외로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특히, 만성적인 외로움은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외로움을 "현대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며, 공공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DCMS, 2018)

제2절 국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1. 중앙정부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 중앙정부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제도적·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청(소)년 전담 지원체계 마련, 위기 상황 예방을 위한 청년기 고립·은둔 일상 속 안전망 강화, 정보시스템, 표준사례관리
 - 매뉴얼,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관리 제도화
- 보건복지부, 국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 사업을 시도하고 있음
 - 고립·은둔 위기 징후 조기 포착 체계 마련, “2024년 新 취약 청년(가족 돌봄, 고립·은둔) 전담 지원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 취약 청년 전담 지원체계 가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학교 밖] 학생 정보 연계, 인식개선 등 지원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 구직 단념, 직장 부적응 위기 선제 대응: 고용노동부
 - 문화 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표 3-6 | 중앙정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주요 정책과제		소관 부처
1. (발굴) 고립·은둔 징후 조기 포착 체계 마련		
	자가 진단 기능 온라인 공공사이트 개발 '24.下~ 129 클러스터 신고접수 기능 마련 '24.下~ 발굴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사회 내 발굴 협력망 구축 '24.下~ 실태 조사결과 도움 요청자 즉시 지원 '24.~ 자립준비청년 우선 보호 '2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 (전담 체계) '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시범사업 실시		
	(가칭) 미래청년센터 설치 (4개 지역) '24.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원스톱 패키지 지원 '24.4.~ 청년 1인 가구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24.下~ 고립·은둔 청년 특화 지원 공간 지원 '24.下~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3. (예방) 학령기·구직기·직장 초기 등 위험 유발요인 예방		
① 학교	학생 맞춤 지원 실태조사 실시 '24.~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 추진 '23.5.~ Wee프로젝트 지원 강화, 어울림 프로그램 수정개발 및 활성화 '24.~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② 학교 밖	정보연계 범위 고등학생까지 확대(법 개정) '24.~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제작 배포, 인식개선 홍보 강화 '24.~	여성가족부
③ 취업	청년 성장지원 프로젝트 운영: 노동시장 진입 초기 선 청년 지원 '24.~ 청년 도전 지원사업 확대: 구직 단념 청년 지원 '24.~ 직장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취업 초기 직장 적응 지원 '2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④ 문화	문화케어 프로그램 운영: 정서적 취약 청년 지원	문화체육부
4.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민간 사례 관리자 희망e음 사용 '24.下~ 사례관리 표준지침 마련 '24.下~ 종사자 보수교육, 양성 과정 개발, 마음 건강 상담 지원 등 ~'24. 기관 간 정보·경험 공유 및 교류 확대 지원 '25.~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24.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2023).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1) 보건복지부⁵⁾

-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는 고립과 은둔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함
-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 진행
 -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의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고립과 은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함. 본 조사는 청년들의 생활 환경, 사회적 관계, 심리적 상태 및 고립과 은둔의 원인 등을 여러모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음
- 실태조사 결과
 - 인구 규모로 볼 때, 서울과 경기 지역에 고립·은둔 청년이 절반 이상 분포하고 있으나,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전국적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
 -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약 2.6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약 37%)과 30대 초중반(약 32%) 순으로 많음
 - 고립·은둔 청년의 원인을 살펴보면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기에는 취업 문제(24%), 이어 대인관계(23.5%)를 차지함. 반면, 10대의 경우는 대인관계 문제(27%)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갈등(18.4%)과 폭력 및 괴롭힘(15.4%)이 그다음을 조사됨

5) 보건복지부(2023).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함.

- 고립 기간은 1년~3년이 26.3%로 가장 많았고, 3년~5년(16%)과 3개월 미만(15.4%)임
-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자가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고등학교 졸업 18%, 대학원 졸업 5.6% 순으로 나타남

□ 관계부처 간 협력 및 지원 방안 수립

- 조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여 본 지원 방안이 도출됨

□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주요 내용

- ① (발굴) 고립 및 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② (전담 지원체계) 2024년에 고립 및 은둔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시범사업 실시
- ③ (예방) 학령기부터 취업 초기 및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안전망 강화
- ④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고 법적 근거 마련

(1)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 체계 마련

-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온라인 활동에 의존하며 하루의 상당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38.8%)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 또한, 다수의 청년이 온라인을 통해 외부 정보를 주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3.2%), 고립된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발굴 체계 마련이 요구됨
-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을 상시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된 자가 진단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임
 - 이 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고립과 은둔 상태를 진단하고,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톱 도움 창구를 제공할 계획
 - 또한, 정부 포털사이트 및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커뮤니티에 배너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이 쉽게 진단하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청년의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지역사회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 복지상담센터에 청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단일 번호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
-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사례 관리사가 고립·은둔 청년에게 초기상담과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담 관리를 진행함

○ 고립 청년 문제는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자체와 경찰, 소방서, 지역 주민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고립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것임

○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고립 및 은둔 위험도가 높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 준비 청년의 고립·은둔 위험도가 일반 청년 대비 약 3배 높게 나타났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립 준비 청년 전담 기관 내에 고립 예방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자립 준비와 더불어 고립·은둔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할 예정임

(2) (전담 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2024년부터 9월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개소함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그림 3-6 | 청년미래센터



<자료> 신 취약 청년 지원창구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1985년~2005년생 청년 중 자가 진단 결과 고립·은둔 상태로 판단된 경우, 본인 및 가족. 특히,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선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함

○ 총 32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며, 2024년 예산 약 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본 센터에는 전담 사례 관리사가 배치되어 온라인 등을 통해 지원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함

표 3-7 | 고립·은둔 사례 관리 주요 지원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 내용	비고
초기상담	· 마음 건강을 위한 자기 이해 워크숍,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방문 및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심리지원 제공	자기진단
일상 회복	· 일상생활 회복 활동과 사회관계 형성,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대인 접촉 확대 *SNS에서 은둔자 주축으로 진행되는 '일상생활 챌린지' 등 *신체 활동, 예술 활동, 놀이 활동, 세 끼 식사 등 *독서, 요리, 가드닝 모임 등	관계 형성
	· 공동생활 홈을 통해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 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제공	은둔 특화
가족·대인 관계 회복	·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해와 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 모임 운영	부모 참여
	· 당사자 파악과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 및 관리를 지원 *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청년과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응원단 구성	대인 접촉 소통 기술
일 경험	· 청년 성장 프로젝트와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과 연계 * 자조 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일 경험 등) 지원 연계	사회복귀 시도

(자료)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발표 (2023 실태조사 결과 바탕)

- 청년 미래센터의 지원뿐 아니라, 기존 청년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 초기상담 후 청년의 필요에 따라 청년 마음 건강서비스와 연결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을 1인 가구 청년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긴급 상황 대비를 강화
-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과 본인 부담 방식 등을 실험적으로 도입·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도모형을 개발할 계획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함

(3)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 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에 걸쳐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일상에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정부는 학령기 청소년부터 대학 졸업 후 구직 단계, 직장 취업 초기 등 주요 전환기에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 학교폭력이나 학업 부적응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에 (가칭) 통합 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할 예정으로 2023년 현재 96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선도학교를 2024년까지 248개교로 확대할 계획임
 - 통합 지원팀은 교장 또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무부장, 복지부장, 보건교사,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학업, 학교폭력, 다문화 등 특정 문제를 담

당하는 분야별 교사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 또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여 위기 청소년들을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나 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청년 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 2024년부터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성장프로젝트는 자조 모임, 심리상담, 진로 탐색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구직 의욕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일상 활동을 통해 자립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를 위해 224억 원이 투입되며,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8천 명에서 9천 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425억 원으로 증액하여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
- 취업 초기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가칭)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함. 온보딩 프로그램에서는 기업 CEO와 관리자들에게는 MZ세대 특성을 반영한 직무관과 소통 방법을 교육하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조직 내 성장 방법, 소통과 협업 기술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 이를 위해 2024년 예산으로 약 44억 원 투입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케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에 있음
 - 2023년 5개소에서 운영되던 이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9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사례 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4)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법적 근거 마련

- 사례관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임
 - 사례관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자들이 최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됨
-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자의 정의와 정보 보호 및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 이를 통해 향후 전국 확대 시 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 여성가족부·교육부⁶⁾

□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문제

- 과거에는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던 고립과 은둔이 코로나19 시기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계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음
- 고립과 은둔 현상이 장기화하면 개인의 건강 문제와 의욕 저하를 넘어 가족 해체,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등 사회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청년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조기 발견의 어려움

- 청소년기의 고립과 은둔은 선제적 지원이 필수적이거나, 조기 발견이 어려운 현실임
- 이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회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교육 기회 상실,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10대 고립·은둔 이유]는 대인관계(27.1%), 가족관계(18.4%), 폭력이나 괴롭힘 경험(15.4%) 등으로 나타났음(2023 고립·은둔 청년 심층 조사, 보건복지부). 한 번 발생하면 반복되기 쉽고 장기화하는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의 고립과 은둔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기에 고립과 은둔 현상이 시작되는 경우, '사춘기'의 특성으로 혼동되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할 가능성 높음

□ 기존 지원체계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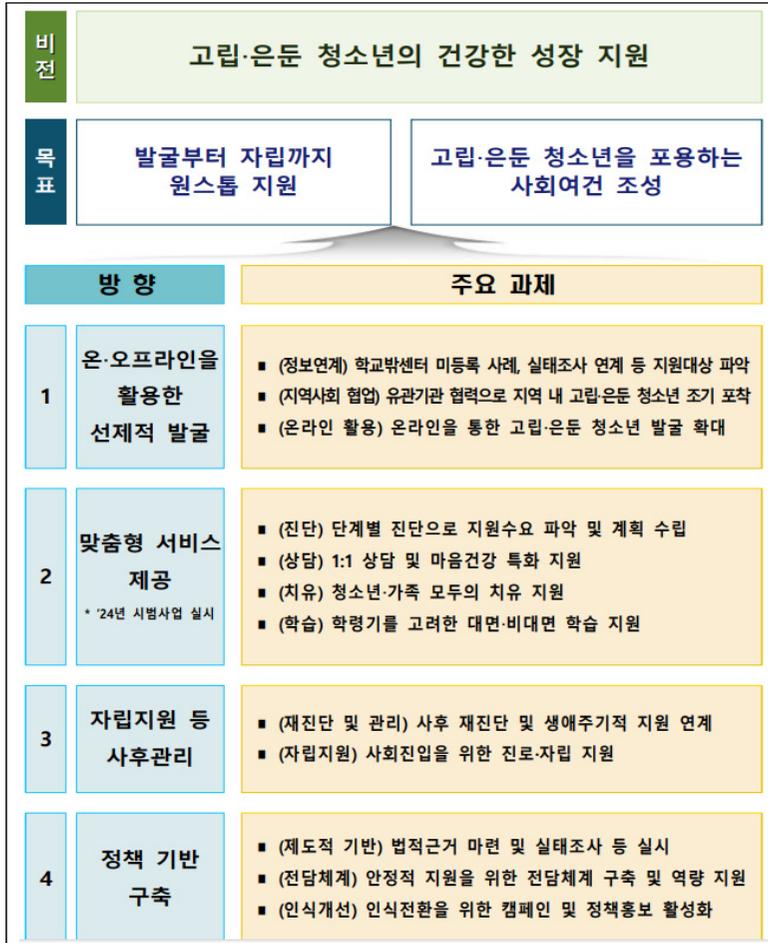
-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책 욕구와 생활 실태 등 구체적 특성을 파악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고립·은둔 지원 정책도 공동생활, 취업 등 성인 중심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부족함
-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발굴부터 종합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필요함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

-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심리 건강 관리 및 상담 지원 역량과 교육부의 학업 및 진로 지원체계를 결합하여, 고립된 청소년들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고립 청소년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연계 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발굴과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고자 함

6) 여성가족부(202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대한민국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함.

그림 3-7 | 추진 방향



(자료) 여성가족부(202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1)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

- (정보연계) 학교 밖 센터 미등록 사례, 실태조사 연계 등을 통해 지원 대상 파악
 -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었으나,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함. 2022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된 청소년은 약 3.3만 명, 그중 약 50%인 1.6만 명이 미등록 상태임
 - 센터의 전담 상담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유선, SNS, 가정방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발굴함. 정보 연계 후 3개월 동안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 대상.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자 등 가족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고립·은둔 여부 파악함

○ (지역사회 협업) 관계기관 협력으로 지역 내 고립 은둔 청소년 조기 포착

- 청소년 안전망: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청소년 상담 1,388등과 협력하여 고립 은둔 청소년 확인 시 즉시 연계함.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활용 방안 안내함
- 지역사회: 편의점, 병원 등 지역사회 시설 및 민간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고립 은둔 청소년 발굴하고 지역 단위 자발적 참여 조직인 '1388 청소년지원단'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지원을 강화함. 병원, 고시원, PC방, 탈북청소년 그룹홈 등 위기 취약 청소년 이용 시설 및 민간 지원 단체와 협업체계 구하도록 함

○ (온라인 활용) 온라인을 통한 고립 은둔 청소년 발굴 확대

- 자기진단 신청 지원: 청소년 및 보호자가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 1388 대국민 포털' 운영함. 포털에는 고립 은둔 자기진단 메뉴가 포함 되어, 대상자가 직접 위기 징후를 진단하고 조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 1388 포털: 위기청소년 맞춤 서비스 및 시설 찾기, 온라인 신청, 365일 24시간 고민 상담 등 제공함
- 찾아가는 발굴: 온라인 포털과 SNS를 통해 청소년 친화적 매체 콘텐츠로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는 사이버아웃리치 운영 강화

(2) 맞춤형서비스 제공

○ (진단) 단계별 진단으로 지원 수요 파악 및 계획 마련

- 2023년에 개발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여 대상을 진단하고, 지원 유형을 구분. 사회적 단절·고립, 회피, 불규칙한 생활 습관 분야로 구분하여 고립·은둔 수준을 진단. 스크리닝 척도 결과를 기반으로 위기 군(지원 대상)과 비 위기 군(미지원 대상)으로 나누고, 위기군은 고립형과 은둔형으로 세분화. 필요한 경우, 심리적 위기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심리·정서 환경 척도'를 추가 시행

○ (상담) 1:1 상담 및 마음 건강 특화 지원

- 전담 사례 관리사를 1:1 매칭하여 기초 상담부터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심층 면담 시행하여 고립 은둔 청소년의 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공함
- 탈 고립 및 탈 은둔을 위한 의지 강화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으로 상담, 활동, 학습 등의 단계별 지원 내용과 만족도에 대해 지속 소통하며 보완함
- 고위기 특화 지원: 고립 은둔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마음 건강 적신호가 발생한 고위기 청소년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특화 지원과 연계

표 3-8 | 고위험군 특화 지원

구분	내용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24년 24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자해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프로그램 ▲ '24년 전담 인력(105명) 신규 배치를 통해 전문지인 강화
종합심리평가 프로그램 ('24년 1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심리평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종합심리 평가 수행

〈자료〉 여성가족부(202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 (치유) 청소년 가족 모두의 치유 지원

- 회복지원: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상호지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함.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54개), 지자체 청소년 자유공간(100여 개) 활용함

표 3-9 | 회복지원

구분	내용
지지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청소년 소모임 운영(밥 모임, 집단 상담 등 자조 모임) ▲ 탈 고립·탈 은둔을 경험한 선배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심신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적 글쓰기, 동·식물 교감 등 힐링 프로그램 ▲ 치유 요가 등 신체 회복 프로그램 ▲ 정서 회복 치유(자기 이해, 우울·불안 다루기 등) 지원 ▲ 일상 회복을 위한 습관 관리(방구석 챌린지 등)

〈자료〉 여성가족부(202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 미디어 과의존 등 치유 지원: 정서 행동 문제나 미디어 과의존을 겪는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치유 프로그램 제공함. 우울, 불안, ADHD, 약물중독 등 정서 행동 문제를 겪는 청소년 대상으로 국립 청소년 디딤 센터의 치유 프로그램 연계 지원함
- 가족 지원: 보호자 등의 감정 소진 방지와 심리적 치유를 위해 부모 상담, 가족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하여 청소년과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시 가족센터 연계하여 부모 교육 지원함

○ (학습) 학령기를 고려한 대면·비대면 학습 지원

- 기초학습 지원: 학령기에 맞춘 개인별 역량 진단을 통해 학습 계획 수립, 콘텐츠 지원, 모의고사 응시 등 단계별 교육을 지원함.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꿈 드림 ON"을 통해 쉽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활용 지원함. 비대면 상담, 온라인 모임 등 다양한 메타버스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줌
- 분야별 교육 지원: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경제·금융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등

(3) 자립 지원 등 사후 관리

○ (재진단 및 관리) 사후 재진단 및 생애 주기적 지원 연계

- 재진단: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고립 은둔 수준을 재진단하고, 지원 이후 변화를 확인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화도 결과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계획을 보완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함. 탈 고립·탈 은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학교 복귀 등 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연계 지원 및 사후 관리
- 특별 지원: 상담 결과를 기초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과 연계함.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과 청년 지원 사업 간 협업을 통해 연속적인 지원 제공하여 19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 상담을 거쳐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으로 연계함

표 3-10 | 특별 지원

구분	내용
지원 개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 지원 *위기청소년: 대상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의결정
지원 내용	생활 지원(월 65만 원 이하), 치료비 지원(연 200만 원 이하), 자립 지원(월 36만 원 이하), 활동 지원(월 30만 원 이하), 법률지원(연 350만 원 이하) 등

〈자료〉 여성가족부(2024).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 (자립 지원) 사회 진입을 위한 진로 자립 지원

- 진로 지원: 사회 진입 시 자신감을 갖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직업 탐색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지원함. 진로 검사와 자립 동기부여 통해 기초 진로 탐색 지원
- 청소년 시설과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진로활동 프로그램 참여 지원: 미래 내일 일 경험(고용부), 생애전환기 청소년 가족 진로 캠프, 진로 토크 콘서트 등
- 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와 고용부의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통해 구직 의욕 고취 및 맞춤형 취업 연계 지원함. 청년도전지원사업(2024년 9천 명) 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자신감 회복 및 구직 의욕 고취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 청소년 인구 감소: 학령기 청소년(559만 명, 2022년 기준) 중 약 14만 6,000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산되고 매년 약 5만 명이 학교를 떠나며, 이는 교육부의 학업 중단 학생

현황 통계를 통해 확인됨

- 청소년 발굴 및 정보 연계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하여 정보 연계 대상을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함
- 교육부 4세대 NEIS 시스템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망 직접 연결함으로써 전국 교육청과 협력하여 연계 체계 강화하고자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 확대 및 진로 지원을 위해 꿈드림센터를 통한 학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
- 학생 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 확대하고 진로 미결정 청소년을 위한 진로 동기 강화 및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국 확대할 계획임

(4) 정책 기반 구축

○ (제도적 기반)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 등 실시

- 법적 근거: 고립 은둔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 추진함. 현재 '은둔형 청소년' 관련 '특별지원' 외에 고립 은둔 청소년을 포괄하는 정의 및 지원 근거는 부재하므로 청소년복지 지원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 마련 추진함
- 실태조사: 고립 은둔 청소년의 현황 및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시행 필요함
- 정보 연계 확대: 학업 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공적 지원체제로 즉시 연계되어 고립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자동 정보 연계 대상 확대하도록 함. 현재, 의무교육 단계(초등 및 중등)에만 한정된 학업 중단 청소년 자동 정보 연계 대상을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확대하도록 함

○ (전담 체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전담 체계 구축 및 역량 지원

- 전담 체계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담 체계 운영(2024년 12개 지역).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전담 체계 확대 추진 검토함
- 전문성 제고: 지원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시행함.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고 특화 지원 모형 연구 및 개발함
- 소진 방지 지원: 감정 소진이 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종사자를 위한 소진 방지 프로그램 운영함.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마음 건강 상담 및 종사자 집단 힐링 프로그램 지원함

○ (인식개선)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및 정책홍보 활성화

- 사회적 인식 전환: 고립 은둔을 청소년의 어려움으로 이해하고 이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숏폼 영상 제작 및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 전환 추진함. 민간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전개 추진함
- 매체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 정책홍보 확대·청소년과 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모임 플랫폼에서 지원 정책홍보 및 참여 독려 이벤트 실시하여 유튜브, SNS, 블로그 등 주요 홍보 채널과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홍보 활성화함(영상, 카드뉴스 등)
- 지역사회 협업: 지역 내 관련기관 각급 학교, 교육청, 주민센터, 청소년 시설, 가족센터 등에 정책 안내서 제작 및 배포. 편의점 POS 등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물(포스터, 영상 등) 게재함

2. 지방자치단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1) 경기도

□ 대상별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의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은둔형 청소년과 성인(은둔형 외톨이)을 구분하여 대상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생애주기별 문제에 맞춘 정책 설계는 사회적 약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 10. 11.] [경기도조례 제7796호, 2023. 10. 11., 제정]
 -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함
-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시행 2024. 3. 20.] [경기도조례 제7954호, 2024. 3. 20., 제정]
 -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1)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회복을 도움

-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만19~39세, 1984. 1. 1.~2005. 12. 31. 출생/ 공고년 기준)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고민과 같이 극복하며 일상회복을 돕는 사업을 진행함
-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 초기상담: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욕구 파악, 심리검사 등 진행
 - 전문 상담: 초기상담 대상자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 진행
 - 은둔 청년 프로그램: (일상회복) 일상 활동 챌린지, 운동 챌린지 등 (자존감 향상) 반려 식물 키우기, 문화예술 체험 활동
 - 고립 청년 프로그램: (자아 탐색) 힐링 명상, 마음 돌봄 수업 (자조 모임) 요일별 점심밥 모임, 산책 모임
 - 고립 고위험군 청년: (사회 적응력 향상) 사회기술 훈련, 멘토-멘티 등 (진로 역량 강화) 맞춤형 진로 컨설팅 등

(2) 고립 은둔 청년 인식개선 캠페인 : 달려라 G9!

-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이 주관하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 캠페인으로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제공함
- 활동 구조: 9주 동안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된 실천 수칙(관심, 지지, 함께하기)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포함됨. 예를 들어, OX 퀴즈, 주변 사람에게 안부 묻기, 나만의 극복 노하우 공유 등
- 참여 방식: 경기청년포털의 관련 페이지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캠페인 참여하고 활동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선물을 제공함

(3)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보: 똑똑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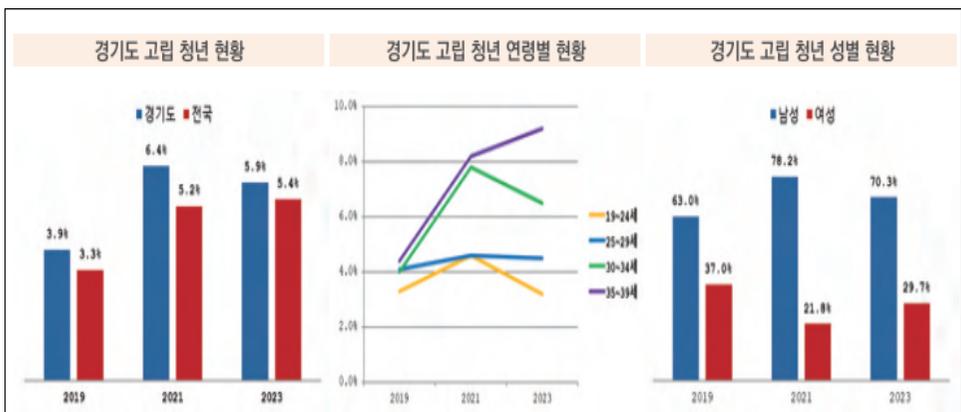
- 똑똑해영!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운영하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보 소식지로,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름은 "똑똑한 경기청년, 고립·은둔 청년에게 똑!똑! 노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발행주기: 매월 2회,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된 최신 소식과 정보를 제공함

- 구성 요소: 고립·은둔 청년 관련 뉴스 클리핑,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지원 정보를 소개, 지역 및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 안내, 사회복귀에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 공유에 관한 이야기와 활용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등을 포함함
- 독자들이 정보를 얻고 직접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와 자료를 제공함
- 대표적으로, 심리상담 바우처, 청년 주거지원, 고립도 자가 진단 도구(K-SAD 지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4)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⁷⁾

- 2024년 11월 24일,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에서 경기도는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청년 인구 중 약 5.9%는 고립 상태에 있으며, 3.3%는 은둔 상태인 것으로 추산되었음
- 아래 데이터는 약 21만 6천 명의 고립 청년과 12만 1천 명의 은둔 청년을 나타냄

그림 3-8 | 경기도 고립 청년 현황



〈자료〉 경기복지재단. 2024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 자료집

- 조사 결과, 고립과 은둔 상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응답이 주를 이룸
 - 이는 청년들이 이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밝히기를 꺼리거나, 여러 원인이 얽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됨
-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재고립 및 재 은둔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

7) 2024년 11월 24일 발표된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

- 이에 더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함

○ 특히,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멘토로 활용해 동기부여와 관계 형성의 효과를 높이고, 경기도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과 민·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됨

○ 무엇보다 고립과 은둔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인식개선이 중요함

2)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⁸⁾

□ 전국 최초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 광주광역시는 조례 제정, 실태조사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은둔형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큰 의미가 있음

- 광주의 사례는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지원체계 구축에 영감을 주며,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를 '문제가 있는 개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 사업도 진행함

○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강조함

- 은둔 당사자는 일정 기간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분 사회에 나오거나 관계를 맺었더라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활동이 이어지지 않으면 다시 고립되거나 은둔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광주센터는 당사자들이 센터에 오래 머무르며 생활 리듬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

8) 광주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자료실(2024-05-28)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 광주센터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원, 원, 원해요!'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을 통해 고립 청년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고립과 은둔을 겪는 당사자를 가정, 사회, 학교 등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단기간의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본 센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자를 만나고, 은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함

그림 3-9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1)에 따른 전략과 목표



〈자료〉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홈페이지

(1) '원, 원, 원해요!'

- 지속적인 은둔생활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 매일 포춘쿠키나 질문지를 통해 하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자기 탐구를 하고, 그 답변을 센터와 공유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함. 더 나아가, 개인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습관이나 개선하고 싶은 생활 습관을 선택하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함
 - 6주 동안 작성한 답변을 모아 센터는 '자기 탐구 보고서'를 만들어 돌려주며, 이를 통해 당사자는 자신의 답변을 다시 읽으며 새로운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됨
 - 참여자들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크게 배려해 줘 정말 고맙다." "최근의 일들을 기억해서 내일의 질문에 써먹을 수 있는 기대감이 아침의 저기압을 극복하게 해준다"라고 후기를 남기기도 함

(2) '아무튼, 출근!'

- 사회생활 기술 훈련으로 무너진 생활 리듬을 되돌리기

- 예를 들어, 참여자들이 아침 출근 습관을 들이고 다른 참여자와의 소통 기술을 연습하도록 지원하여,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아침에 일어나 '아무튼' 출근 후 하루 계획을 세우고 동료들과 회의하며 활동을 함께하며, 다가올 사회생활을 준비함. '아무튼 출근' 시에는 서로 지켜야 하는 매너가 있음

- ◇ 오며 가며 이사 건네기 ◇ 서로 배려하는 존댓말 ◇ 기다리는 동료 배려하기
- ◇ 솔직하게 말하기 등

그림 3-10 | 당사자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

'아무튼 출근' 9월 스케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OT	2
3	4 주간회의	5 영화관람	6 밀키트	7 DIY	8 실내활동	9
10	11 주간회의	12 밀키트	13 영화관람	14 DIY	15 실내활동	16
17	18 주간회의	19 밀키트	20 DIY	21 DIY	22 실내활동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간회의	밀키트	마무리			

(자료) 광주광역시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2023 결과 보고집

- 광주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음

3) 서울특별시

□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⁹⁾

-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기존의 고독사 예방을 넘어서, 외로움 예방과 재고립 및 재 은둔 방지를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서울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

9)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지역사회복지 소식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복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소식 (2024.10.24.)

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음

- 2024년 7월 신설된 돌봄 고독 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역할을 맡게 됨
- 서울시는 부서 간 협업과 행정역량을 총동원하는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이는 도시행정 단위에서 가능한 접근으로, 중앙정부의 부처별 권한 체계와 차별화된 방식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시민들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실·본부·국이 협력함. 정책은 시민들의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될 것임
- 기존에 정신건강 위험군에 국한되었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모든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조기 진단과 맞춤형 처방을 통해 시민들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
- 맞춤형 고립·은둔 해소 프로그램 제공으로 세대별·상황별 고립과 은둔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활동과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함. 외부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돌보며, 외로움 예방뿐 아니라 재고립·재 은둔 방지도 실현함
- 상시 운영되는 365일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외로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제안도 제공함

그림 3-11 | 생애주기별 고립·은둔



〈자료〉 아시아경제(2021.10.21.) 서울시, 4천5백억 투입해 은둔 가구 종합지원 오세훈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들 것”

표 3-11 | 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p>전략 1. 함께 있다, 함께 활력 넘치는 서울</p> <p>: '함께 있다'는 시민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력 있는 일상을 제공하며, 맞춤형 신체 및 심리 관리를 통해 외로움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p>
<p>〈① '똑똑 24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똑똑 24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화, 온라인(카카오톡)은 물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도 마련된다. 핵심 플랫폼인 '외로움 안녕 120'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로, 내년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120다산콜에 전화를 걸어 특정 번호(추후 결정)를 누르면 외로움 전담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된다. 전담 상담원은 1차 기초 상담을 시행하고, 필요시 다양한 협업 기관으로 연결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고립 은둔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고립 예방센터와 연계하여 현장 방문 및 긴급 개입, 심층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또한, 고립에서 벗어난 시민들을 상담사로 배치해 외로움 관련 추가 상담을 제공하거나 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센터는 취약 고립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설치한 광역 단위 전문 기구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외로움 상담 및 연계 업무를 맡아 (가칭) '고립 예방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외로움 안녕 120'은 외로움을 느끼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 이웃 등 주변인도 이용 가능하며, 전화 통화를 선호하지 않는 시민을 위해 카카오톡 시 상담도 별도로 운영하여 서울시의 외로움·고립은둔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해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도 내년에 4개소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제공되는 라면은 기부로 이루어지며, 고립에서 벗어난 시민이 상담도 해준다. <p>〈② '몸·마음 챙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로움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의 몸과 마음 건강을 돌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사업에는 '전 시민 마음 투자사업', '중장년 건강 동행 밥상', '어르신 건강 장수센터'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기존 정신건강 위험군 중심의 마음 상담 서비스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개편하여 더 많은 시민의 외로움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민간 심리상담소 등을 활용한 '전 시민 마음 투자사업'을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전 시민 마음 투자사업'은 주 1회 총 8회에 걸쳐 1:1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2만 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민 누구나 공공 및 민간 심리상담 기관을 쉽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울시 심리지원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며, 자치구 '마음상담소'도 2026년까지 27개소로 확대하여 지역 기반의 마음 건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건강 동행 밥상'을 확대 운영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소셜 다이닝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신체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권역별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건강 장수센터'를 203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건강한 어르신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촘촘한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p>〈③ '365 서울 챌린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속 활력을 높여 시민들의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해 '365 서울 챌린지'를 추진한다. 이 챌린지는 자연 힐링 나들이, 스포츠 활동, 책 읽는 야외 도서관, 잠수교 두벽두벽 축제 등 서울 대표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전 실·분부·국의 사업과 연계하며, 여가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및 챌린지 플랫폼과 협력하여 365 서울 챌린지를 서울 곳곳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챌린지에 꾸준히 참여하고 성공하면 활동 점수가 부여되며,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챌린지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와 소통하며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센티브로는 서울 달 탐승권, 한강 캠프장 이용권, 서울식물원 입장권 등 인기 있는 서울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략 2. 연결 있다, 촘촘한 연결 든든한 서울

: '연결 있다'는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④고립 은둔 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진단〉

- 먼저 강화된 고립 은둔 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한다. 가스화 전기 등 위기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고립 은둔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고립 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배달방 등 생활 밀착 업종을 고립 가구 지원 신청 접점으로 활용한다.
- 또한 주로 음식을 배달시키는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달앱 플랫폼 내에서 고립위험도를 체크할 수 있는 팝업창을 만들고, '똑똑 24' 등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홍보한다. 배달앱사와 협력하여 배달 대신 식당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외부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 지원 신청 의지가 없고 도움을 거부하는 은둔 가구를 위해 가족, 이웃 등 주변인이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앱,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마련한다.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아웃리치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도 활성화한다.

〈⑤ 서울연결처방〉

-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된 고립 은둔 가구에 대해 초기상담을 시행하고, 특성을 진단한 후 맞춤형 '서울연결 처방'을 연계한다. 고립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고립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재고립 및 재 은둔을 방지해 장기적으로 사회와 연결된 삶을 지속하도록 한다.
- '서울연결 처방'은 고립 은둔 시민들의 특성과 유형에 맞춤형 치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외로움 예방에 초점을 둔 '영국의 사회적 처방'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서울형 사회적 처방'이다.
- '정원 처방'은 마음 치유 처방 중 하나로, 고립 청년이나 난임부부 등을 대상으로 정원과 산림을 활용한 마음산책 및 원예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중장년층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한 마음 치유 처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가장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은둔·지원 거부 시민들에게는 '15분 외출 처방'을 통해 집 밖으로 나와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고립을 경험하고 극복한 시민이 상담을 직접 진행하거나 비대면 화상상담을 통해 저항감을 줄이며 한 발씩 다가가는 방식이다. 또한, 최초 상담 및 접촉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 '자립 처방'은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난 시민이 재고립 및 재 은둔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공동체를 구축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기부 및 후원을 받는 지역 업체를 발굴하고 다양한 돌봄 쿠폰을 발행하여 지원하는 '아름다운 이웃 2.0'과 고립 회복 시민을 고립 가구 치유활동가로 양성하는 '모두의 친구'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처방'은 전 생애에 걸쳐 확대된 고립 은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대별 맞춤형 처방이다.
-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서울청년기자기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복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중장년 정보몽땅채널'을 내년 상반기 중 오픈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취약 어르신외부 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보행기 '실버카 대여 서비스'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전략 3. 소통 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서울

: '소통 있다'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며, 시민 간의 소통을 통해 외로움과 고립, 은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⑥ '하드웨어(hardware)를 하트웨어(heartware)'로 열린 도시공간 조성〉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이벤트를 연결하는 '하트웨어' 개념을 도입한다. 공간 매력 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간 연결성'을 평가함으로써 도시개발 및 정비 시 연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시개발 및 정비 시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이를 접점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공공기어, 폐교, 빈집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⑦ 시민과 공감, 세계와 연대〉

- 외로움과 고립 은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외로움 없는 주간'을 신설·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외로움 토크 콘서트(Let's talk loneliness) 등 서울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 기획하며, 고립 은둔 경험이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시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캠페인도 전개한다.
- 또한 외로움과 고립 은둔 문제 해결을 위해 런던, 도쿄 등 주요 해외 도시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외로움은 모든 현대사회에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므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 누구도 고립 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방부터 치유, 사회 복귀, 재고립 방지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원스톱 지원체계

- 2025년까지 고립·은둔 청년(은둔형 외톨이)의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를 돕는 원스톱 지원과 관리 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약 12만 9천 명이 최소 6개월 이상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서울 청년 인구의 4.5%에 해당함(서울시, 2022)
-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 및 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계획함
- 우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세밀한 발굴 체계를 구축한 뒤, 고립·은둔 청년 본인이 직접 청년정책 신청 포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복지 전달체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온라인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족과 지인이 상시로 상담·신청·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상시적 상담·신청이 가능한 상담센터의 운영도 준비 중임
- 고립 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척도'를 활용하여 청년 별 고립 수준에 따라 상담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구직 단념 청년에게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도록 함
- 서울시는 2023년 고립 청년 298명을 지원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더욱 포괄적인 맞춤형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림 3-12 | 고립·은둔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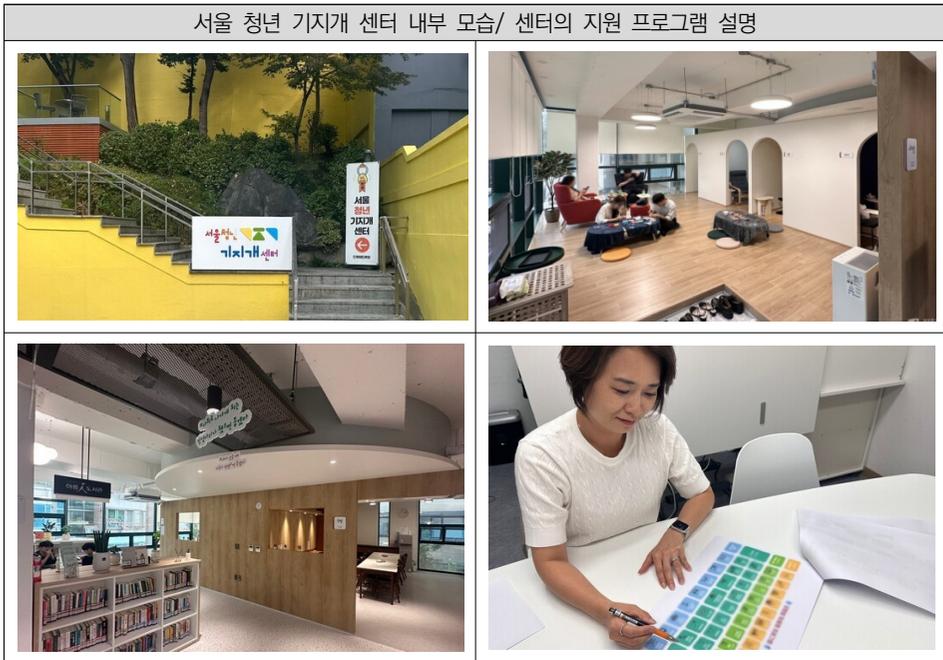
〈자료〉 뉴스로(2024.04.25.) “오세훈 서울시장, 고립·은둔 청년 사회참여 유도”

□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기지개 센터’를 전국 첫 개관

-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 기관인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이하 ‘기지개 센터’)를 개관함(백종훈, 2024). 기지개 센터는 청년들이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
- ‘기지개 센터’라는 명칭은 고립·은둔 생활로 움츠러든 청년들이 기지개를 켜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음
- ‘기지개 센터’의 주요 기능
 - 청년 상태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제공
 - 청년의 사회적 고립 척도를 진단하여 활동형 고립, 고립형, 은둔형으로 분류
 - 약 50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회복, 관계망 형성, 직무 역량 강화 등을 지원
 -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 고립·은둔 청년이 집 가까운 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
 - 중장기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
 - 복지 사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고립·은둔 기간, 고립 척도 변화 등을 추적하며 데이터베이스화
 - 민관 협력 자원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 청년들의 자기 성장 계획 달성을 돕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동기를 부여

- 센터의 시설 구성은 약 421㎡ 규모의 ‘집 속의 집’이라는 콘셉트로 설계되어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됨(큰 방- 프로그램 진행 공간, 작은 방- 자조 모임 및 취미활동 공간, 내 방- 힐링 및 충전 공간, 주방- 요리 및 커뮤니티 공간, 책방- 독서 공간)
 - 사회적 고립 탈피 및 회복 프로그램
 - 야구단 활동, 달리기, 요가, 예술 놀이, 집단 상담, 글쓰기, 전시회 관람 등
 - 개인 맞춤형 회복 로드맵 제공
 - 담당자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개별 목표 설정 및 매월 성과 점검
 - 공동생활 훈련 및 신청
 - 환경변화를 통해 고립 상태를 벗어나도록 지원하며, 일상 회복 및 자립을 목표로 함
- 기지개 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종합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별 맞춤형 접근과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을 통해 고립과 은둔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그림 3-13 |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



〈자료〉 1코노미(2021.10.28.). 이주희 서울 청년 기지개 센터장 “고립 은둔 청년 보듬을 공간이 되길”

- 서울시는 2024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지역사회를 통해 발굴된 청년은 총 1,713명으로, 이 중 사회적 고립 척도 검사와 초기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인원은 852명으로 2023년보다 56% 증가한 수치라고 밝힘(안수교, 2024)

- 사업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전반적 고립감은 평균 66점에서 52.6점으로 감소했고, 동시에 자기효능감은 14.2점에서 17점으로 상승했으며, 사회적지지 역시 20.9점에서 22.9점으로 개선됐음. 특히 우울감이 19.5점에서 15.5점으로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보임

○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가 올해 9월 출범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역할이라고 평가함

- 특히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지원을 병행하고 부모와 주변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교육, 자조 모임을 진행해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으며, 고립을 극복한 청년 가족을 멘토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공감대 형성과 지지 분위기 조성함

○ 서울시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이며, 특히 외출을 주저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 기지개 센터를 개설하고,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움

4) 제주특별자치도

□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실태조사¹⁰⁾

○ 제주 청년(19~39세) 인구 약 16만 8천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14만 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4만 9천 명으로 파악되며,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에 있는 청년은 약 1만 3000~1만 9천 명으로 추정됨

○ 제주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청년이란 일정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제한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어려운 청년을 의미함

○ 제주도는 만 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고립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 ‘제주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제주지역 ‘청년’(19~39세) 인구 및 주요 특성별 규모는 전국 및 주요 광역지자체 상황과 비교하여 노동시장 이행기 고용의 질은 좋지 않은 취약한 상황임

○ ‘고립’과 ‘은둔’ 생활을 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 전체 청년 인구의 4.7%에 달하는 7천7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옴

10) 제주특별자치도가 일하는 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내용을 참고로 재구성함.

- 정부 통계 분석 결과 제주 청년(16만 8천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14만 1천 명 중(비경제활동인구 4만 9천 명, 실업자 2만 7천 명) 중 청년 니트 규모가 1만 9천 명 정도로(11.5% ↔ 23년 제주 연구 조사 1만 3천 명, 8.3%) 정도로 확인됨

표 3-12 |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실태조사

<p>1) 청년 인구 규모 : 16만 8천 명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통계 자료</p> <p>2) 청년 경제활동인구 : 14만 1천 명 (비경제활동인구 4만 9천 명, 실업자 2만 7천 명) ☞ 경제활동 참가, 고용 및 실업 : 참가율 70.1% (고용률 67.7%, 실업률 3.5%)</p> <p>3) 청년 니트 (그냥 쉬 등) : 1만 9천 명(11.5%) * 2022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 조사 분석 자료 : 구직 준비 니트 40.9%, 경력자 비구직니트 27.5%, 단기실업자 18.1%, 기 경력자 비구직니트 11% ☞ 23년 제주도 연구 '니트 규모' 추정 약 13,581명 (8.3%)</p>	<p>4) 청년 임금·비임금 노동자 : 12만 7천 명 (정규직 9만 6천 명, 비정규직 3만 1천 명/비정규직 32.5%) ☞ 월평균 임금 237만 원 (정규 274만 원, 비정규 162만 원)</p> <p>5) 청년 1인 자영·프리랜서 : 7천 명 (프리랜서 6.4%)</p> <p>6) 청년 사회적 고립·은둔 (23년 조사 결과) : 7,744명 (4.7%) : 고립 6,983명 + 은둔 761명 ☞ 은둔 행위 10,870명 (은둔 3개월 기준 5,799명, 은둔 6개월 기준 4,061명)</p>
--	--

(자료) 김중진 외(202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¹¹⁾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 계획은 고립 청년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책 개발을 통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함
 - 기본계획의 목표는 고립 청년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재고립 방지, 지역사회와의 연결 강화 및 사회적 소속감 형성
-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고립 청년의 생활 환경, 심리적 상태 등을 분석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함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11) 제주특별자치도가 일하는 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내용을 참고로 재구성함.

- ①자립 지원: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 경제적 자립 도모
- ②심리상담 및 치유: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회복 프로그램 제공
- ③활동 지원: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

○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다른 지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정부 및 민간 협력체계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기대 효과

- 고립 청년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통합 강화하고 청년층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제주도의 경제 및 사회적 활력 증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은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모범적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제주 공동체 연결: '제주 리트릿' 프로젝트

○ 지역적 특수성: '귤당 문화'¹²⁾의 영향

- 제주도는 '귤당 문화'로 불리는 특유의 지역공동체 기반 문화를 가지고 있음. 이는 가족이나 친척 중심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긍정적으로는 공동체 결속력을 강화하지만, 부정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은둔·고립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표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김지은, 2024)

○ 사회적 연결 강화의 중요성

- 청년들이 주변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하고, 청년들의 고립 상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진행함

○ 청년 지원 '제주 리트릿 프로젝트'

- 고용노동부의 청년 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 패스파인더'와 '씨즈'가 협업하여 운영함
- 수도권 은둔·고립 청년들이 일정 기간 제주에서 머물며, 비슷한 상황의 청년 및 지역공동체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자립을 목표로 진행됨
- 2023년 7월 프로그램 참가자(1기) 6명 중 2명은 제주에 정착해 자립을 도전함

12) '귤당문화'는 제주도 고유의 지역사회 전통으로, 가족이나 친척 간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 중심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귤당은 제주어로 '친족'이나 '혈연관계'를 뜻하며, 이러한 유대는 단순히 가족 관계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기반으로 작용함.

- 이는 집 밖 출입조차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하며, 사회적 관계와 활동 복귀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제주 패스파인더의 역할

- 씨즈는 은둔·고립 청년 발굴과 심리적 케어를 담당, 패스파인더는 청년 농업가 및 창업가 등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사회적 연결고리를 제공함
-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음

그림 3-14 | 제주 리트리트 프로젝트



〈자료〉 한라일보(2024.09.02.). 외로움' 사회적 처방 내리는 영국... 제주 공동체 실험 늘리자[기획

○ 공동체 기반 활용

- 제주 특별시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며, 제주도 역시 마을 공동체, 청년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시민사회의 힘을 활용하고자 함. 이러한 공동체적 접근은 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임

5) 안산시

□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안산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24. 4. 3.]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848호, 2024. 4. 3., 제정]

□ 사각지대 놓인 고립 은둔 청년 발굴

- 안산시는 사회 진출이 원활치 못한 고립 은둔·자립 준비 청년 등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민·관 지역 네트워크(복지, 고용, 상담) 구축에 뜻을 모으는 협약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 청년들의 자립역량 강화, 고립 은둔 청년 일상 회복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함

(1)정신건강복지센터¹³⁾

□ 고립·은둔 청년 특화 사업 '청년 달팽이 휴게소'

- 안산시는 '청년 달팽이 휴게소'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년에게 특화된 심리검사와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가정 방문 상담과 의료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이는 개별 청년의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평가됨

그림 3-15 | 청년 달팽이 휴게소 신청(고립·은둔 척도 검사)

The image displays the '청년 달팽이 휴게소' (Youth Snail Restroom) application process. On the left is a flyer with the title '청년 달팽이 휴게소' and the subtitle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심리지원'. It features a snail illustration and a house icon. Below the flyer is a QR code for application. On the right is a screenshot of the web application form. The form title is '청년 달팽이 휴게소 신청' (Youth Snail Restroom Application). It includes a description: 'Hug Your MindU |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Hug Your MindU | We hug your heart). Below this is a questionnaire with the question '1.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1. I feel lonely.*) and five radio button options: '거의 그렇지 않다' (Almost not), '다소 그렇지 않다' (Somewhat not), '다소 그렇다' (Somewhat yes), '매우 그렇다' (Very yes), and '필수 질문입니다.' (Mandatory question). The form also includes a note: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check the notice and submit the application form. Thank you).

<자료>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 달팽이 휴게소 신청 QR코드 접속

-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청년 대상 명상 프로그램이나 집단 회복 활동 또는 진로 설계와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심리상담보다는 취업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
-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심리적 요인 문제의 접근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높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13)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 정신건강정보의 내용을 재구성함.

- 높은 접근성과 참여 유도를 위해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글 폼과 문자 통지를 통한 검사 및 상담 예약 방식은 디지털 친화적 청년층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음
 - 고립·은둔의 심리적 어려움을 ‘사회적 고립 척도’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상태에 맞는 심화한 단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 ‘달팽이 휴게소’는 고립 청년이 단순히 상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가능하며,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함. 청년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자신의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쉼터 개념의 물리적 공간을 도입함
 - 목적: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를 제공
 - 대상: 안산시 거주 20~30대 청년
 - 내용: 구글 폼을 통해 무료로 검사(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척도)하고, 결과는 문자로 제공
 - 개별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또는 필요시 가정 방문 상담
 - 연계 서비스: 심리 치료 병원 안내, 치료비 지원 등

3. 민간 단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례¹⁴⁾

- 민간 단체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이들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이러한 단체는 장기간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 왔음
- 민간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상담, 심리적 지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훈련 등은 은둔형 외톨이가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의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이러한 축적된 경험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됨. 민간 단체의 성공적인 사례와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정부가 벤치마킹하여 더 큰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

14) K2인터내셔널코리아, (사)씨즈, KHPA (한국은둔형 외톨이부모 협회), KSHS (한국은둔형 외톨이지원 연대),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안무서운 회사, 푸른고래리커버리, 고·은·인 지원센터(지속가능경영재단), G'L 청소년연구재단 (G'L 학교밖청소년 연구소)의 각 홈페이지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https://k2-kr.com/>, <https://www.theseeds.asia/>, <https://cafe.naver.com/koreahikikomori>, <https://www.pie-edu.com/>, <https://notscary.co.kr/aboutus>, <https://www.google.com/url?sa=E&source=gmail&q=https://the-recoverycenter.org/>, <https://www.google.com/url?sa=E&source=gmail&q=https://www.glosy.re.kr/>

력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민간 단체의 축적된 경험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임

1) K2 인터내셔널코리아

□ 일본 K2 인터내셔널의 성공적인 모델

○ 일본에서 등교 거부, 히키코모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함

□ 한국 사회의 문제 인식

○ 한국 사회에서도 청년들의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공동생활, 직업훈련,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2년 한국 지부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청년들의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K2 인터내셔널코리아는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사업 분야

- 공동체 중심의 생활 지원: 세어하우스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성 회복지원

- 일 경험 및 직업훈련: 공동체 일터를 운영하여 실제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네트워킹 및 홍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주요 사업을 통해 K2 인터내셔널코리아는 청년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

① 맞춤형 상담: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을 지원

② 사회 적응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 향상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③ 공동체 생활: 세어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지지

④ 직무 경험: 공동체 일터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 능력을 향상

⑤ 현장 연수: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며 실제 직무 환경을 경험하고 취업 역량 강화

⑥ 취업 지원: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⑦ 지속적인 성장지원: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K2 인터내셔널코리아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 적응을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음. 그리고 2021년에는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함(유민상 외, 2021)
- K2 이넬네셔널코리아 폐업 사례
 - K2 인터내셔널코리아는 2021년 말로 폐업하여 활동을 중단함. 창립 초기엔 일본 본사에서 지원받았지만, 적자가 지속되었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결국 문을 닫음(뉴스웍스, 2023)
 - K2 인터내셔널코리아의 폐업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의 실패를 넘어 고립 청년 지원 사업에서의 민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2) 사단법인 씨즈

- 사단법인 씨즈(SEED)는 2010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해 왔음. 설립 초기에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모델을 알리는 데 집중함
- 청년 사회적 기업가 지원
 - 씨즈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이를 통해 약 300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및 청년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약 1,000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내는 성과를 이룸
- 은둔·고립 청년 지원
 - 최근에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온라인 플랫폼 '두더지 땅굴'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이를 통해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기회를 제공함
 - 지역별·주제별 정보 제공: 고립·은둔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지역 및 주제에 따라 탐색
 - 릴레이 인터뷰: 고립·은둔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담아낸 인터뷰를 통해 공감과 이해를 높임
 - 온라인 사람책 도서관: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

- 월간두두: 고립·은둔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인터넷 잡지로, 다양한 주제와 경험을 공유함
- 커뮤니티 게시판: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민을 나누고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커뮤니티를 제공
- 자조 모임터 '두더집': 고립·은둔 청년들이 직접 만나 교류하고 일상생활 기술을 회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며, 집밥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세대 연대 프로그램

- 씨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세대 간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중장년 사업본부를 신설하였음. 이를 통해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청년 문제를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세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씨즈의 접근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함

3) KHPA (한국 은둔형 외톨이 부모 협회)

- 등교 거부, 해직, 대인기피, 불안증, 무기력, 우울 등으로 방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자녀들의 부모들과 가족들이 만든 당사자성 비영리민간단체
- 부모 및 가족 지원: 자조 모임을 통해 부모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심리적 지지를 제공/ 은둔 자녀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들의 정신건강도 함께 돌봄
- 사회복귀 지원: 은둔 청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과 프로그램 제안
- 서울시와 협력해 공공 공간을 활용한 심리상담 및 관계 형성 훈련 제안
- 정책 제안 및 홍보: 광주광역시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안하고 정책적 변화 촉구
- 사회적 인식 제고: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가족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적 관심 유도

4) KSHS (한국 은둔형 외톨이지원 연대)

-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단위의 비영리 연대 조직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론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은둔형 외톨이를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고립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시스템 구축

- 체계적 지원 구조 마련: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주요 활동: (당사자 지원)심리상담, 공동체 활동 등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지원/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을 돕는 셰어하우스와 커뮤니티 공간 제공. (가족 지원)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조 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 내 갈등 해소와 정신건강 지원을 병행
- 활동가 양성: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하여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5) (사)PIE나다운청년들

- (사)파이나다운청년들은 2016년부터 학교 밖·사회 밖 청년들의 사회성 함양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임

□ 파이콤포터 & 파이마음터

- 파이콤포터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학교 밖, 사회 밖 청년들, 은둔과 고립 상태의 청년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프로그램은 계절별로 다양한 배움과 활동을 제공하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복귀를 도움
- 파이마음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은둔 고립 당사자의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건강 회복과 자녀 지원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며,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부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단위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고립·은둔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은둔 청년: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사회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 ② 외출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활동만 하는 고립/은둔 청년: 외출은 가능하지만, 대인관계 형성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 은둔 청년 맞춤

- 방문 상담: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은둔 청년에게 전문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 심리적 안정을 돕고, 사회복귀를 위한 첫걸음 지원
 - 파이 꾸러미: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SNS에 인증하는 은둔 청년에게 격려의 의미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성취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
 - 은둔 청년 모여라!: 온라인 공간에서 또래들과 소통하며 고립감을 해소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감대 형성 도움
- 고립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 꿈터: 개인 상담, 다양한 체험 활동,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향상 지원
 - 쉼터: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적응력 키움
 - 은둔 선배 양성: 은둔 경험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한 선배들이 또래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역할 모델 제시
- 은둔형 외톨이 상담자 양성 과정
- 은둔형 외톨이 상담자 양성 과정은 은둔 경험을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 기초 단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 상담의 기본 이론 및 실제 상담 기법 습득
 - 전문 단계: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 및 실습, 다양한 상담 기법 숙달
 - 심화 단계: 전문 상담자로서의 역량 강화, 실무 경험 축적 및 네트워킹

6) 안무서운 회사

- 안무서운 회사는 은둔형 외톨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으로 '세상이 무서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안무서운 회사는 은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안무서운 회사의 특징
- 안무서운 회사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은둔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1 상담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진행함
 - '안무서운 하우스'라는 공동생활 공간을 운영하여 은둔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사회 적응

을 위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

□ 안무서운 회사의 주요 활동

- 안무서운 하우스: 은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사회성을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
- 1대1 맞춤형 상담: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미래 설계를 돕는다.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요리, 운동,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높임
- 커뮤니티 운영: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은둔 청년들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지원
- 인식개선 캠페인: 은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진행

7)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 사단법인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임. ‘고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공생으로’라는 비전 아래,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는 서울시의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음

□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가 하는 일

-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함께 살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사회성을 회복하고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고립은둔청년(은둔형 외톨이)과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 위기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공생과 나눔을 알리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동생활 훈련
 - ①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 일상생활 스케줄 관리, 건강 관리, 개인위생 관리 등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준비
 - ②대인관계 기술 향상: 공동생활을 통한 갈등 조정 훈련, 의사소통 기술 향상, 협동심 함양 등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제공
 - ③개별 맞춤형 지원: 입주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위한 역량 강화
 - ④공동 활동: 공동 요리, 청소, 여가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 향상
 - 활동프로그램

- ①리커버리 야구단: 야구를 통해 신체 단련은 물론 팀워크, 성취감을 경험하며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 ②리커버리 예술단: 미술, 음악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 ③쿠��런치: 함께 요리를 만들고 식사를 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
- ④기지개 모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모임

8) 고·은·인 지원센터(지속가능경영재단)

-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함
- ‘고립, 은둔생활인’을 지원하는 「고□은·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주변의 고립과 은둔 생활인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돌아보는 사업을 시작함

□ 주요 활동 사항

- 고·은·인과 가족 지원 사업: 회복·사회이행·자립 종합지원, 고립·은둔 진행 단계, 개인 특성, 가구 특성에 맞춤형서비스, 진행 단계별 활력·쉼터 등 기본서비스, 심리상담·유대·조력 등 상시 서비스, 건강·교육·진로·주거 등 특화 서비스 제공, 고·은·인과 가족의 자조 모임
- 교육을 통한 활동가 육성 사업: 공공·민간의 지원·유관 기관의 종사자 교육, 공공·민간의 심리상담사 등 교육, 고·은·인과 가족 피어서포터즈 교육, 고·은·인 및 가족 지원 멘토 교육
- 조사·연구 및 출판 사업: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수행, 고·은·인 관련 도서 출간
- 사회적 소통과 협업 증진 사업: 지원기관 자문, 컨설팅 및 네트워크, 민·관 지원기관과 서비스 제공 등 협업
- 혁신적인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체계적·효과적·효율적인 온/오프라인, 대면/비대면, 개인/공동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확산

9) G'L청소년연구재단 (G'L학교밖청소년 연구소)

- G'L청소년연구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이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G'L 청소년연구재단의 주요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연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
- 대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정책 제안 및 자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 정책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
- 국내외 네트워킹: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

제3절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지원 사업

1. 고양시 고립·은둔 지원체계

-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앞서 2023년 2월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을 제정하였음
- 조례는 지원 대상 정의, 지원체계 구축, 복지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예방 및 재발 방지,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은둔형 외톨이 발굴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함

표 3-13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 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는 시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시행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관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자료〉 고양특례시의회 디지털자료관

2. 고양시 고립·은둔 관련 지원 사업 현황

- 고양특례시는 시민의 은둔·고립·고독사 등의 문제가 개인의 삶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해 은둔·고립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를 타겟팅한 사업은 본격화되지 않음
- 고양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은둔 관련 지원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14 | 고양시 고립·은둔 관련 지원 사업

기관명	프로그램명	참여기준	내용	실시기간
고양시 자살예방센터	자살 예방 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에 대해 본인이 동의(희망)하는 사람 • 가족, 지인 등이 상담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동의해야 함 • 자살 위기 상황인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자살 위기 평가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위기 상담 지원 서비스 : 자살 위기 평가, 구조화된 8회기 상담(인지 행동치료 기반, 정서·행동 조절 기반, 마음 챙김 기반 상담), 상담 종결 시 자살 위험성 재평가하여, 위험성이 높다면 지속 상담, 자살 위험성 감소 시 종결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 자살 유족 애도 상담프로그램(스트레스 관리, 마음 건강프로그램, 사회성기술 프로그램 등) 및 자조 모임 • 방문, 내소, 전화 상담 • 상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특 상담 및 소통, 정신건강 척도지 체크 및 생각 기록지 활동 가능.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상담(zoom) 진행 	월요일 ~ 금요일 (9:00 ~18:00)
고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	• 위기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실시한 상담을 기반으로 해당 청소년의 문제 유형과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함 • 위기 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협력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청소년과의 관계 형성을 이루어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 일관적으로 자원(개인 상담, 심리검사 등)을 제공함. 	연중 02월~ 12월
	청소년 안전망사업	•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회지원 서비스가 요구됨. 이에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위기청소년 중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연중 01월~ 12월
고양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춘나래서포터즈	• 만 19~34세 이하, 첫 발병 5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개선 활동: 청년정신건강 캠페인/ 청춘나래 써포터즈 양성 및 활동 지원/ 교육 자료 제작, 온/오프라인 정신 건강교육 운영 	연중 01월~ 12월

	청년마인드 톡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발굴: 마음건강평가 실시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청년마인드 토크' 실시 / 청년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시크릿 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기반 만성화 예방: 소통 프로그램 제공 (우울, 불안, 분노, 조기 정신증, 긍정심리, 행동 활성화, 하루 프로그램(마음 챙김), 문화/ 예술 프로그램)/ 어플 활용한 상담 진행, 마음 습관 프로그램 'HALF' 활용/ 다학제 상담 서비스 연계 '시크릿 상담소' 진행/ 통합사례 회의 진행/ 당사자 중심 자조 모임, 가족 모임 및 교육 시행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 회복지관	마을돌봄, 마음돌봄 행복살피미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덕양구 행신 1~4, 능곡, 행주동 거주 1인 가구 •1순위-비자발적 고립 가구, 고립 가구 자가체크리스트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주민/ 2순위-자발적 고립 가구, 고립 가구 자가체크리스트 중,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주민/ 3순위-이 외 사회복지사(사례관리자) 및 주변의 추천을 통해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 및 홍보- 홍보, 명또기(명동+뚝뚝), 주민설명회, 지역 네트워크 발견 체계 구축,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발굴 네트워크) 주민 발견단 행복살피미 역량 강화 워크숍, 정기활동, 힐링 모임, 활동공유회 •(지원네트워크) 행복 울타리- 마을 자원 협력체계 구축, 찾아가는 협약, 네트워크 간담회, 연합실무자 모임 •(맞춤형 지원) 생활복지지원 일상 행복-위기가구 사례관리, 긴급 지원, 식사 지원, 주거환경지원, 모임 지원 	연중 01월~ 12월
	다 함께 Single 방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 사회적 고립 수준 •2순위 : 주변 공식, 비공식 지지체계의 개입 정도 •3순위 : 소득수준(저소득 - 차상위 - 기초생활 수급 순) •4순위 : 거주지(행신동 - 덕양구 거주 주민 순) •공통 :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년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 : 요리 주제 선정, 레시피 공유를 통한 요리 활동 진행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 텃밭을 매개로 관계망 향상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나눔활동 : 텃밭 작물을 활용한 나눔활동, 기부활동, 플로깅활동 	연중 01월~ 12월
고양시문촌7종합 사회복지관	플러그 인 노크(Knock) ! & 두드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참여자: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고립가구, 대화·주엽2·덕이·일산3·송포·가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발굴 체계 구축: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민관네트워크 회의, 민관 사례 회의 	연중 01월~ 12월

		<p>동 다세대주택가, 1인 거주시설(고시원, 원룸), 농가주택 중심 발굴</p> <p>①행복메이트단과 복지관의 아웃리치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 ②홍보지를 통해 의뢰 및 발굴된 대상자 ③연체·체납 등의 사유로 행정복지센터에 복지 사각지대 주민으로 의뢰된 대상자 ④유관기관, 주민리더 및 거점공간, 일반주민에게 의뢰받은 대상자 ⑤그 외 경로로 의뢰 및 발굴된 대상자</p> <p>•주민관계망모임 참여자: ①1년 차 발굴-접촉 고립 대상자 중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으로 지역사회 교류 희망자 5명 ②활동을 희망하는 1년 차 행복메이트단 중 활동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5명 선발</p>	<p>•주민 중심 행복메이트단 조직 및 운영: 행복메이트단(행복+MATE+활동 조직 및 운영, 마을활동가로서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분석 및 고립가구 발굴 전략 마련, 지역 내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 수행→ 사업설명회, 역량 강화 워크숍, 행복메이트단과 함께하는 아웃리치(캠페인) 활동, 지역 밀착형 상점 발굴</p> <p>•내부 체계 강화 및 아웃리치: 직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립가구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아웃리치 활동 → 전문교육, 담당 인력 스터디, 정기자문, 내부아웃리치(지역탐방 및 주민만나기)</p> <p><u>고립가구 지원체계 구축:</u></p> <p>•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접촉: 고양 4권역 6개동 고립위험도 높은 가구 방문상담, 거부가구 지원, 상담기록 작성</p> <p>•사례 회의: 사례선정회의, 서비스 연계 논의</p> <p>•고립가구 지원: 고립가구로 지원 결정된 사례에 대한 전문서비스 연계, 기관연계, 정보 제공, 사례관리 진행</p> <p><u>주민관계망모임:</u></p> <p>•마을 지킴이 대상 고립가구·지원거부자와의 소통방법에 대한 전문교육</p> <p>•마을지킴이의 대면·SNS·전화 정기 안부 확인</p> <p>•마을지킴이단 정기회의: 지원 가구에 대한 case 연계, 활동 계획 수립, 모니터링결과 공유</p> <p>•마을지킴이단과 함께하는 주민관계망모임: 산책 또는 티타임, 식사, 대화 등</p> <p>•1차년도 지원대상자의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역할 준비·시도, 지역사회 나눔활동</p>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이웃마실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사례관리 진행, 경제적 지원, 식생활(반찬/김치) 지원, 가정 내 위생청결(청소 및 방제) 서비스 지원, 추석명절 음식 지원 등	연중 01월~ 12월
	다함께 찬(贊)!찬(贊) !찬(贊)!	•중장년 남성1인가구 중 이웃관계망 형성 욕구가 있는 주민	•중장년 남성1인가구 중 이웃관계망 형성 욕구가 있는 주민	연중 01월~ 12월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이음	•고양시 중장년(40세~64세)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및 안전망 구축: 희망 발굴단, 희망등대와 이웃 보듬이를 통한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2022년 08월~ 2025년

		*중위소득 48%~120%의 소득수준을 가진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 및 건강 지원: 정기적인 자조 모임, 밥 친구공동체, 공유 주방 등 다양한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서비스: 법률, 노무, 부동산 자문, 건강 및 영양 상담, 심리상담 등 •관계 향상 교육: 예절 교육, 대화 기술 교육을 통해 사회성 증진 	07월 (총36개월)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마을꾼 (마을의 일꾼)	•LH1단지 거주 50세~70세 남성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가꾸미: 참여자가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방치되어 있는 화단을 가꾸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인식개선 및 마을 활동역할 •마을지킴이: 어린이, 교통안전 등의 전문 교육을 받고 아동 등하굣길 스쿨존,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지도를 통한 마을 지킴이로서의 활동 참여 	2024년 02월~12월
	화목한 꽃할매	•LH1단지 내 거주 만 65세 이상 여성 홀몸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홀몸어르신의 생활안전망 구축 및 정서적 안정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단지 내 이웃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친환경 활동 모임, 반찬만들기 모임 등 	월 2회 연중 모임 진행
	만송	•LH1단지 거주 지역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이웃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단지 및 지역 내 사회참여 활동 (줍깅/캠페인진행/주민만남 참여 등) 	월 2회 연중 모임 진행
고양시현돌종합사회복지관	비밀언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대상 : 중장년층 (40~60대)(공간, 정보, 관계고립 모두 포함) •일반대상: 지역 내 발굴 및 상담이 진행된 중장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 -> 상담(현재상황파악, 욕구확인) -> 지원결정 •개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일상생활회복을 위한 지원 •상담 및 안부확인, 긴급생계비, 반찬지원, 개별운동치료,종합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관계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모임활동 지원(요리/건강) 	2023년 07월 ~ 현재
<p>[사회적고립가구 '찾기' 활동]: '사회적고립 및 외로움 지역실태조사' (백석동 중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방문 및 찾아가는 정담회 진행</p> <p>[사회적고립가구를 위한 돌봄서클 '위드유 활동단]: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이웃살피미 활동/ 개별적 지원: 안부확인, 일상생활지원 등/ 집단활동 지원: 소모임활동 협력 등</p> <p>[사회적고립가구 '지원' 활동]: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연계활동진행/ 사회적고립가구 관계망 및 일상회복 '소모임' 지원활동</p> <p>[민관 협력 사회적고립가구 지원네트워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소개 및 제안활동/ 의료 네트워크체계구축 (일산병원-LH-고양시현돌종합사회복지관, 1인 중장년 건강검진 지원 사업 진행)</p>				

(자료) 고양시 복지기관(고양시살예방센터,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현돌종합사회복지관) 내부자료

- 2023년도 민·관 네트워크 체계를 견고히 다지며 MOU 체결을 기반으로 복지관과 일산 4권역(가좌동, 덕이동, 대화동, 송포동, 일산3동, 주엽2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통해 고립가구 의뢰 및 공동 발굴 방법 구체화, 지역사회 사업홍보를 위한 안내문, 사업 배너 배치 협조 사업을 진행함
- 2024년도 중점동인 가좌·송포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주무관과 복지 사각지대, 긴급생계비 신청 가구를 동행 상담 진행하여 고립 가구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대처하였고, 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고 민간 자원을 개발·연계하여 제도권 밖의 고립 위험 가구 역시 지역사회 안전망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

그림 3-16 | 민·관 네트워크 회의



(자료)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플러그 인 노크 & 두드림 2차 보고서

- 고립가구의 의뢰 경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발굴이 74%로 가장 많았고, 지역 주민(행복메이트단, 거점기관, 지역 주민)에 의한 의뢰가 14%, 내부아웃리치 홍보지를 통한 본인 의뢰 8%, 복지관 내부 의뢰 4%로 나타나고 있음

-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고양시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은둔·고립을 선택한 클라이언트는 기존 클라이언트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시 재고립을 선택하려는 회귀 현상이 관찰됨에 따라 재고립을 예방하는 계획과 서비스가 필수임
- 발굴된 은둔·고립 주민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역 관계망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제적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함
- 주민공동체 전문교육은 지역 주민들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질적으로 고립 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음. 이는 고립된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여 고독사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

그림 3-17 | 주민공동체 전문교육 실시



〈자료〉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플러그 인 노크 & 두드림 2차 보고서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의 다양한 지원 정책

- 일본 정부는 히키코모리를 "6개월 이상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상태"로 정의하며, 연령대를 15세에서 64세까지 확대해 포괄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히키코모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와 자료수집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며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약 7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해 당사자와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어 히키코모리 당사자의 사회복지귀를 밀착형으로 지원함. 특히, 전문상담사와 소셜 워커를 통해 히키코모리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 치료, 사회적 재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 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
-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가족은 문제 해결의 핵심 파트너로서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임
- 히키코모리 문제는 고령화와 연계되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데, 특히 부모가 80대, 자녀가 50대가 되는 '8050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대 간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생애주기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시사함
- 일본은 히키코모리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해 공익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안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가 됨

□ 핀란드 사회적 배제 청년을 위한 체계적 접근

- 핀란드는 지방정부 주도로 아웃리치 청년 사업과 청년 워크숍을 통해 은둔 상태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이들 프로그램은 고립된 청년들을 찾아내 상담, 직업훈련, 대인관계 회복 등을 지원하며, 약 270개 이상의 워크숍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청년들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청년 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청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졌음.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문화부와 협력하며, 정책의 통일성과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25세 미만 청년이나 학교 졸업 후 3개월 내 사회적 활동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기

에 개입하여,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함. 이런 핀란드의 사례는 청년의 고립 문제가 장기화하기 전에 신속히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핀란드는 중학교 졸업 이후 교육이나 사회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예방함. 이는 청소년 시기에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는 효과적 모델로, 청소년 시기에 은둔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와 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
-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청년들을 지원하는 모델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 사례로써 다른 국가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음
- 핀란드는 보건복지부 주도 아래 다양한 행정 부문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자살 예방과 청년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심리상담, 직업훈련, 교육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고 이러한 협력 구조는 복잡한 문제를 가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델이 됨
- 1980년대 핀란드 청년 자살률 급증의 사회적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조기 개입을 필요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한 결과 자살률 감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도 오희야모(Ohjaamo) 센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심리적 고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이 심화하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핀란드의 자살 예방프로젝트와 오희야모 센터는 단순히 생존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함

□ 영국의 국가 차원의 포괄적 접근

- ‘외로움 부’(Minister of Loneliness)를 세계 최초로 고독 문제 전담 부처를 설립해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접근, 지역 커뮤니티와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립된 개인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외로움 부’(Minister of Loneliness) 사업은 부처 간의 경계를 허물고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함. 또한,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영리 기업까지 협력의 파트너로 포함하는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 이는 한국의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은둔 문제에도 주목하고, 연령대별로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고립된 중장년층이 고독사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 영국은 NEET 상태를 명확히 정의하여, 교육, 고용,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NEET 여부를 판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 기준은 NEET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함

- NEET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여 교육, 복지, 고용 등 여러 부문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 증가

- 한국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최근에서야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대응 현황과 미래 과제를 고민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취미활동, 일자리 경험 등을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함
- 서울시 조사 결과, 은둔생활이 주로 청년 시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개입이 은둔 문제를 해결하고 심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학교, 대학,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둔생활의 초기 신호를 감지해 개입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지원센터로, 상담과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범위와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지역사회 기반 상담소와 협력하여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국내외 분석 결과 종합과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포괄적 접근과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
 - 일본, 핀란드, 영국 모두 다양한 부처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한국도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같은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지원이 필요함
 - 한국은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연령층과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부족하므로 일본처럼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함
 - 현재 한국의 정책은 개별 부처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 협력해 복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함. 일본의 반주형 지원이나 영국의 사회적 처방과 같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모델이 필요함
 - 일본은 비영리 단체(NPO)와의 협력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며, 정부는 리더쉽과 책임을 바탕으로 NP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일본과 영국 등의 사례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이 정책 성공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음.

민간 전문가와 단체를 활용해 상담, 심리 치료,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함

○ 조기 개입 및 예방 강화

-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처럼, 은둔형 외톨이로 발전하기 전에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상담 및 지원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함
- 또한 정책 대부분이 청년층(19~39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로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8050 문제'와 같은 중장년층 문제를 예방하려면 연령대를 포괄하는 정책이 요구됨
-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은둔형 외톨이 상태로 발전하기 전에 정신건강 문제와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심리 상담 및 사회 연결 프로그램을 강화가 필요함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효과성 확인

- 서울시의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고립감이 약 20% 감소하고 우울감이 완화되었다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한 사례를 통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과 맞춤형 개입이 고립 청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줌. 2024년 정책 참여 인원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는 것은 정책이 점차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냄
- 서울시의 정책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의 좋은 모범 사례로, 다차원적 지원,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접근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 이는 지역사회 발굴 시스템과 적극적 홍보의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인식 개선

- 은둔형 외톨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로 여기는 편견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도록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자체 현장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음. 일본의 사례처럼 사회적 캠페인과 미디어를 활용해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시키고, 편견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은 초기 단계에 있으나, 일본, 핀란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령층을 확장하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임

제4장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분석

제1절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설문조사

제2절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심층 면접조사

제3절 조사 결과 종합

제1절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은둔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함

2)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1) 조사 내용

-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은둔 당사자의 일상생활, 건강 상태, 은둔 배경, 은둔 상황 인식, 상담 및 지원, 희망 정책, 은둔 가족의 어려움에 관한 문항으로 구분함

표 4-1 | 조사 내용

은둔 당사자		은둔 당사자 가족	
구분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일상 생활	·가족과 대화 ·사람들과의 소통 ·일상생활 방식 ·집에서의 활동 ·활발한 활동 시기 ·일상생활 속 행동 ·음주 및 식사 방식, 수면시간	은둔 당사자에 관한 문항	·일반적 인적 사항 ·은둔 당사자와 가족과의 대화 ·은둔 당사자의 사람들과의 소통 ·은둔 당사자의 일상생활 방식 ·은둔 당사자의 집에서의 활동 ·활발한 활동 시기 ·일상생활 속 행동 ·음주 및 식사 방식, 수면시간 ·은둔 당사자의 건강 상태
건강 상태	·건강 상태 ·운동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질환 여부 및 상태 ·정신적 질환 여부 및 상태 ·일상생활 문제 요소별 빈도 ·자살 충동 및 경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 당사자의 운동 여부 ·은둔 당사자의 신체적 질환 여부 및 상태 ·은둔 당사자의 정신적 질환 여부 및 상태 ·은둔 당사자의 일상생활 문제 요소별 빈도 ·은둔 당사자의 재 은둔 이유 ·은둔 당사자의 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은둔 당사자의 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은둔 당사자의 극복을 위한 상담 참여 여부 ·희망 지원 방법
은둔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겪은 어려움 여부 ·재은둔 이유 ·은둔생활 시작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 당사자의 극복을 위한 상담 참여 여부 ·희망 지원 방법
은둔 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의 문제 대상 ·은둔생활이 주는 영향(자신, 가족, 사회) ·은둔 극복 가능성 정도 ·은둔 극복을 위한 노력 ·도움이 된 경험 ·은둔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여부 	가족 및 보호자에 관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 당사자로 인한 어려움 정도 ·신체적 질환 여부 및 상태 ·정신적 질환 여부 및 상태 ·일상생활 문제 요소별 빈도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은둔의 문제 대상 ·은둔생활이 주는 영향(자신, 가족, 사회) ·은둔 극복 가능성 정도 ·은둔 극복을 위한 노력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 및 경험 여부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인지도 및 경험 여부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 여부 및 변화 ·희망 지원 방법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 및 경험 여부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인지도 및 경험 여부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 여부 및 변화 ·육구에 대한 수준 ·희망 지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 및 경험 여부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인지도 및 경험 여부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 여부 및 변화 ·희망 지원 방법

(2) 조사 방법 및 내용

표 4-2 |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 기간	2024년 10월 7일~10월 31일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페이지를 활용한 응답자가 스스로 기재하는 자계식 조사
조사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고양시민/ 가족
조사 목표 인원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200명, 가족 100명
접속 인원	605명
설문 완료 인원	276명
최종 분석 대상 인원	은둔 당사자 198명, 가족 30명 총 228명

2024
10.7^월
|
10.31^일



고양특례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고양시에서는 사회적 관계없이 은둔생활을 하는
시민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은둔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실태조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사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13세이상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고양시민/가족

조사목적

은둔시민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조사내용

은둔시민 및 가족대상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

문의

고양연구원 031-8073-8389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조사에 참여하여 설문조사를
완료한 은둔시민 200명,
가족 1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5000)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을 자신의 방, 집안 등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 임신, 출산/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장애로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학업이나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

3) 최종응답자 현황

- 최종 응답 은둔 당사자는 198명으로 남성 53명, 여성 145명으로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청년 193명, 중장년 4명, 노인 1명으로 대부분 응답자가 청년이었음
- 최종으로 응답한 은둔 가족은 30명으로 남성 8명, 여성 22명으로 여성 비율이 높음
- 은둔 당사자 가족 중 부모가 응답한 비율이 50%, 형제 43.3%, 배우자 1%임

표 4-3 |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자 수(명)	구성비(%)
은둔 당사자	전체		198	100.0
	성별	남성	53	26.8
		여성	145	73.2
	연령	청년(18~39세)	193	97.5
		중장년(40~64세)	4	2.0
		노년(65세 이상)	1	0.5
가족	전체		30	100.0
	가족 성별	남성	8	26.7
		여성	22	73.3
	당사자와의 관계	부	6	20.0
		모	9	30.0
		형제	13	43.3
		배우자	1	3.3
		기타	1	3.3

2. 조사 결과

1) 은둔 당사자¹⁵⁾

(1) 일반 특성

- 분석 대상인 은둔 당사자는 남성이 28.5% 여성이 71.5%임
- 연령대로는 청년이 95.6%로 가장 많고 중장년이 5명으로 2.2%, 청소년이 4명으로 1.8%, 노년이 1명으로 0.4%임
- 거주 지역은 덕양구 거주가 57.5%, 일산서구 27.2%, 일산동구 15.4%임
- 가구원 수는 1인가구가 전체의 11.4%이며 4인 가구가 44.3%로 가장 많음
- 가구 경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중'이 51.8%로 가장 많았고, '중하'와 '하'를 합친 비율은 36.4%로 '중상'과 '상'을 합한 비율 11.8%보다 높음
- 학력은 고졸미만 3.1%, 고졸 26.3%, 대학교 중퇴 16.2%, 대학교 졸업 50.4%, 대학교 졸업 이상 3.9%임

표 4-4 | 은둔 당사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구성비(%)
전체		228	100.0
성별	남성	(65)	28.5
	여성	(163)	71.5
연령대	청소년(13~17세)	(4)	1.8
	청년(18~39세)	(218)	95.6
	중장년(40~64세)	(5)	2.2
	노년(65세 이상)	(1)	.4
거주지역별	덕양구	(131)	57.5
	일산서구	(62)	27.2
	일산동구	(35)	15.4
가구원 수	1인 가구	(26)	11.4
	2인 가구	(9)	3.9
	3인 가구	(85)	37.3
	4인 가구	(101)	44.3
	5인 이상	(7)	3.1
가구 경제에 대한 주관적 수준	하	(21)	9.2
	중하	(62)	27.2
	중	(118)	51.8
	중상	(24)	10.5
	상	(3)	1.3
학력	고졸미만	(7)	3.1
	고졸	(60)	26.3
	대학교 중퇴	(37)	16.2
	대학교 졸업	(115)	50.4
	대학원 이상	(9)	3.9

15) 은둔당사자 응답 내용과 은둔 가족이 대신하여 은둔 당사자에 대해 응답한 내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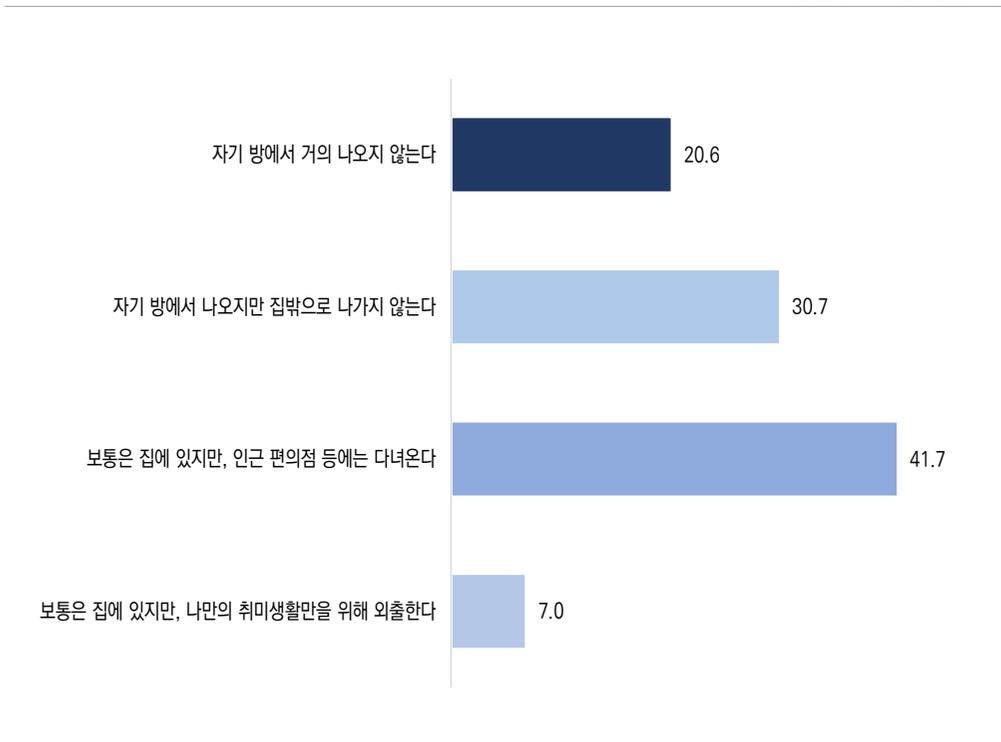
(2) 은둔 현황 및 배경

□ 은둔생활 수준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생활 수준이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가 20.6%임.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다녀온다'라는 수준이 41.7%로 가장 높았음

그림 4-2 | 은둔생활 수준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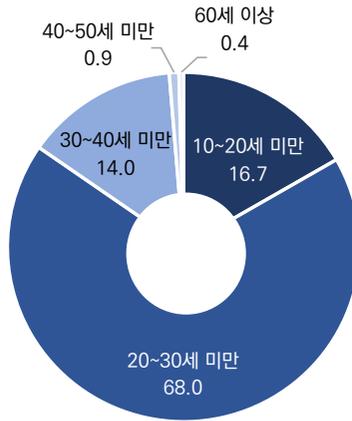


□ 은둔생활 처음 시기(나이)

- 은둔생활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만20~30세 미만'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만10~20세 미만(16.7%)', '만30~40세 미만(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 은둔생활 처음 시기(나이)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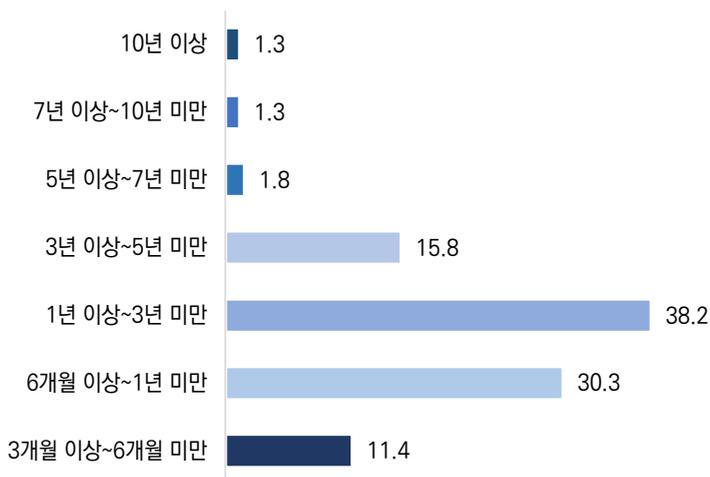


□ 은둔생활 총기간

○ 은둔생활 총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30.3%, '3년 이상~5년 미만'이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4 | 은둔생활 총기간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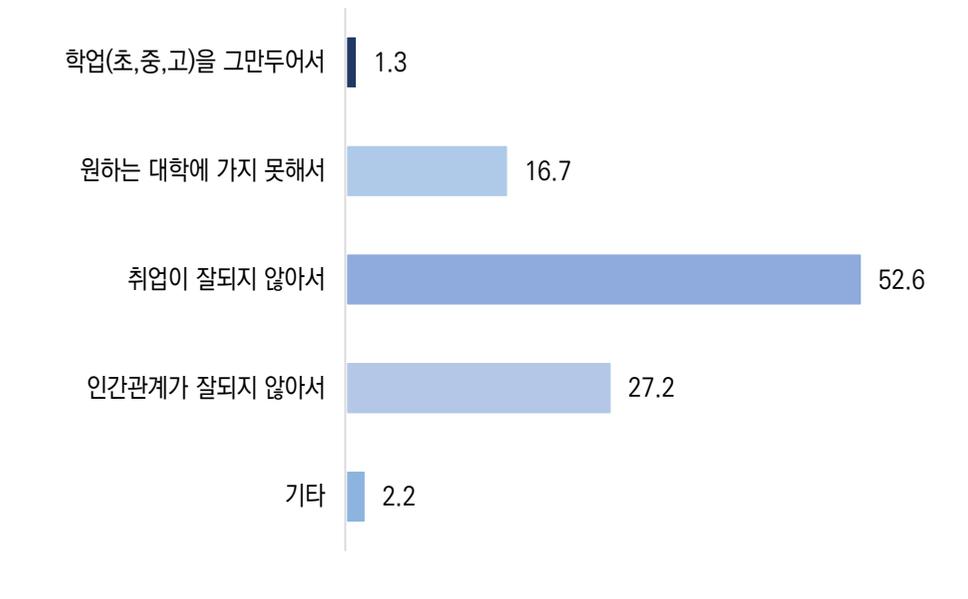


□ 은둔의 주된 이유

- 은둔생활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로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5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가 27.2%,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가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5 | 현재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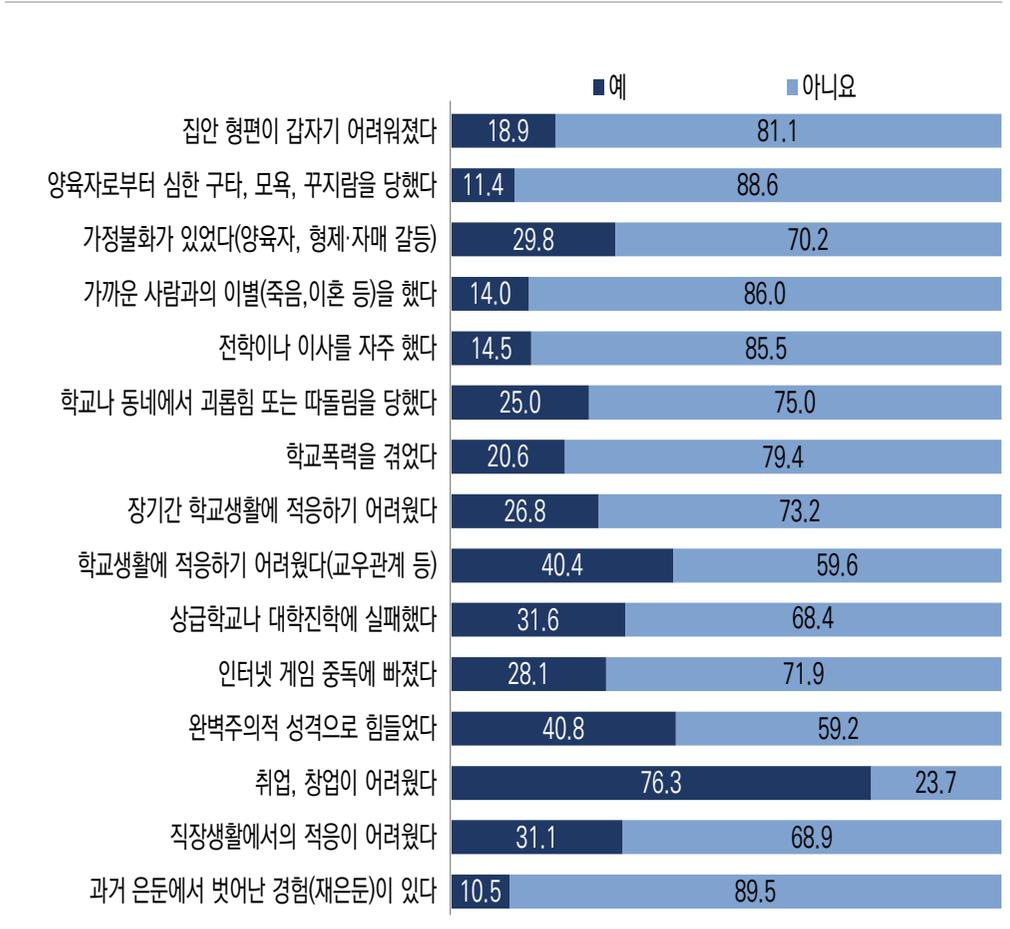


□ 은둔 관련 경험

- 과거 겪었던 일 중 '취업, 창업이 어려웠다'라는 응답자가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힘들었다(40.8%)',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교우관계 등)(40.4%)', '직장생활에서의 적응이 어려웠다(31.1%)', '가정불화가 있었다(양육자, 형제·자매 갈등)(2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은둔 배경이 되는 원인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율이 88.4%이고 평균 4개의 중복원인을 가지고 있음

그림 4-6 | 은둔 관련 경험

(응답자 228명, 단위:%)



□ 재 은둔의 이유

- 주관식 문항으로 총 23명이 대답하였음.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취업 실패’ 등 취업의 어려움에 관한 보고가 3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일이 힘들다’ 등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30.4%로 보고됨
- 그 외에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공포증, 우울증 등의 보고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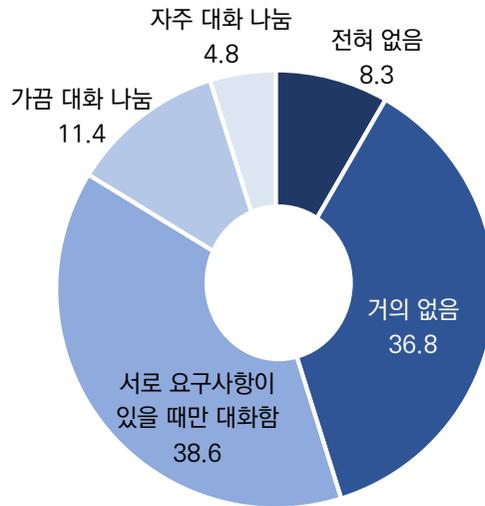
(3) 일상생활

□ 가족과 대화 빈도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과 대화 빈도는 '서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대화함(3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없음(36.8%)'과 유사한 수치임

그림 4-7 | 가족과 대화 빈도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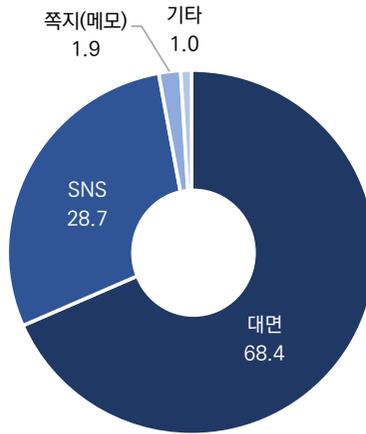


□ 가족과 대화 방법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과 대화 방법으로 '대면'이 68.4%로 가장 주된 방식임. 다음으로 'SNS'가 28.7%로 높았음

그림 4-8 | 가족과 대화 방법

(응답자 209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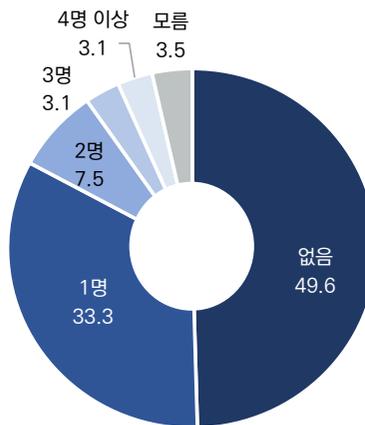


□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

○ 은둔형 외톨이의 주위 사람 중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없음'이 4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명이 33.3%로 높았음

그림 4-9 |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수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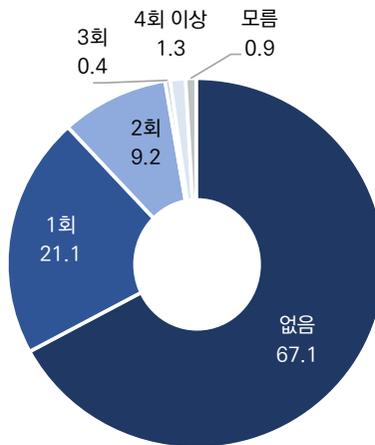


□ 2주 동안 가족을 제외한 누군가와 만나 대화 경험 횟수

- 2주 동안 가족을 제외한 누군가와 만나 대화를 경험한 횟수로는 '없음'이 67.1%로 나타남. 다음으로 '1회'가 21.1%, '2회'가 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0 | 2주 동안 가족을 제외한 누군가와 만나 대화 경험 횟수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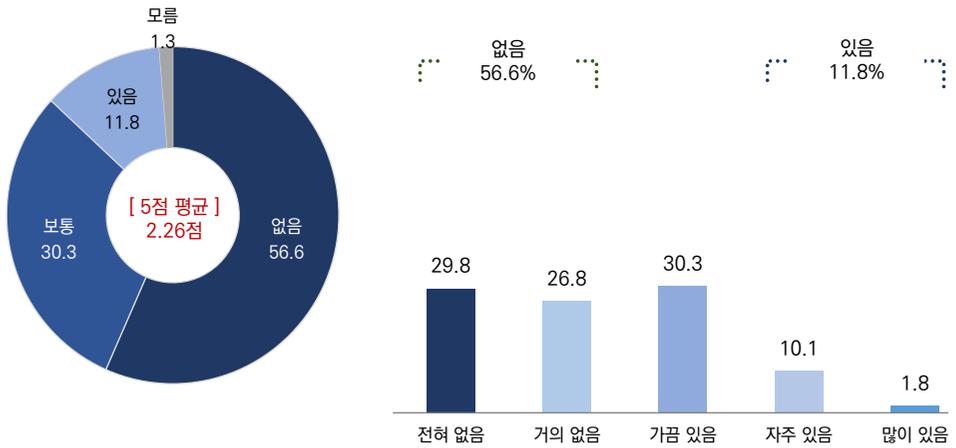


□ 비대면 소통 빈도

- 은둔형 외톨이의 비대면 소통 정도는 '있음'이 41.2%(많이 있음: 1.8% + 자주 있음: 10.1%+가끔 있음: 30.3%)로 나타남

그림 4-11 | 비대면 소통 빈도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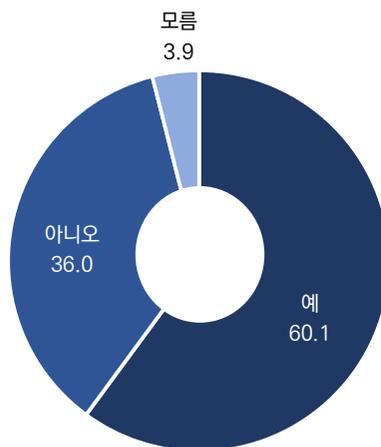


□ 온라인커뮤니티, SNS, 메신저 등 온라인(비대면) 활동

○ 은둔형 외톨이의 60.1%는 온라인커뮤니티, SNS, 메신저 등 온라인(비대면)에서 활동함

그림 4-12 | 온라인커뮤니티, SNS, 메신저 등 온라인(비대면)에서의 대화 유무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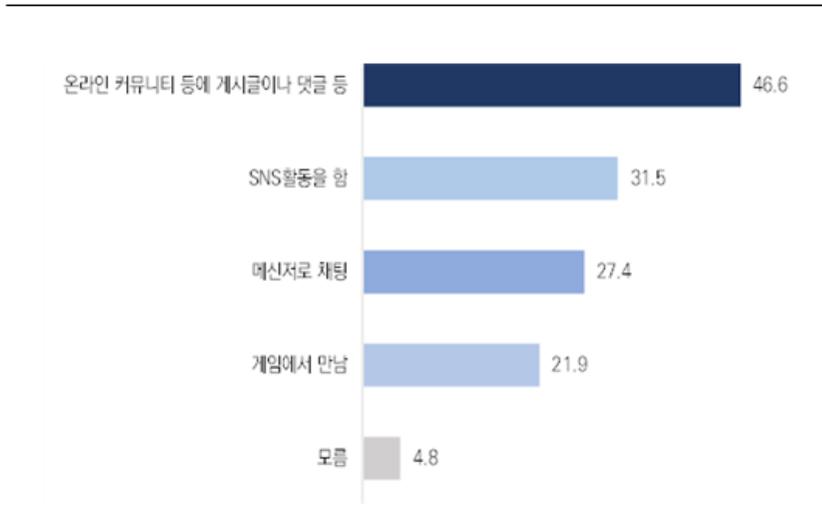


□ 온라인(비대면)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

- 온라인커뮤니티, SNS, 메신저 등 온라인(비대면)에서 대화하는 은둔형 외톨이 중 46.6%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게시글이나 댓글 등'의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SNS 활동을 함(31.5%)', '메신저로 채팅(27.4%)', '게임에서 만남(21.9%)' 의 순임

그림 4-13 | 온라인(비대면)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

(응답자 146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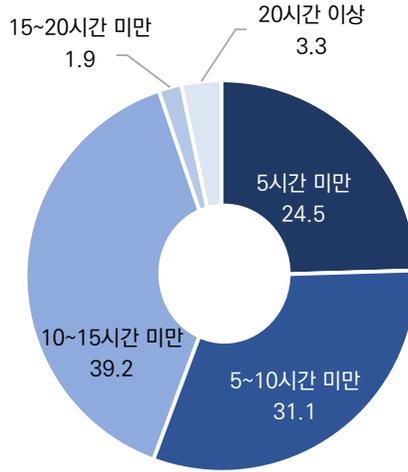


□ 하루(24시간) 동안 온라인 활동 비중(시간)

- 은둔형 외톨이의 하루 동안 온라인 활동 비중은 '10~15시간 미만'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시간(31.1%)', '5시간 미만(2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4 | 하루(24시간) 동안 온라인 활동 비중(시간)

(응답자 212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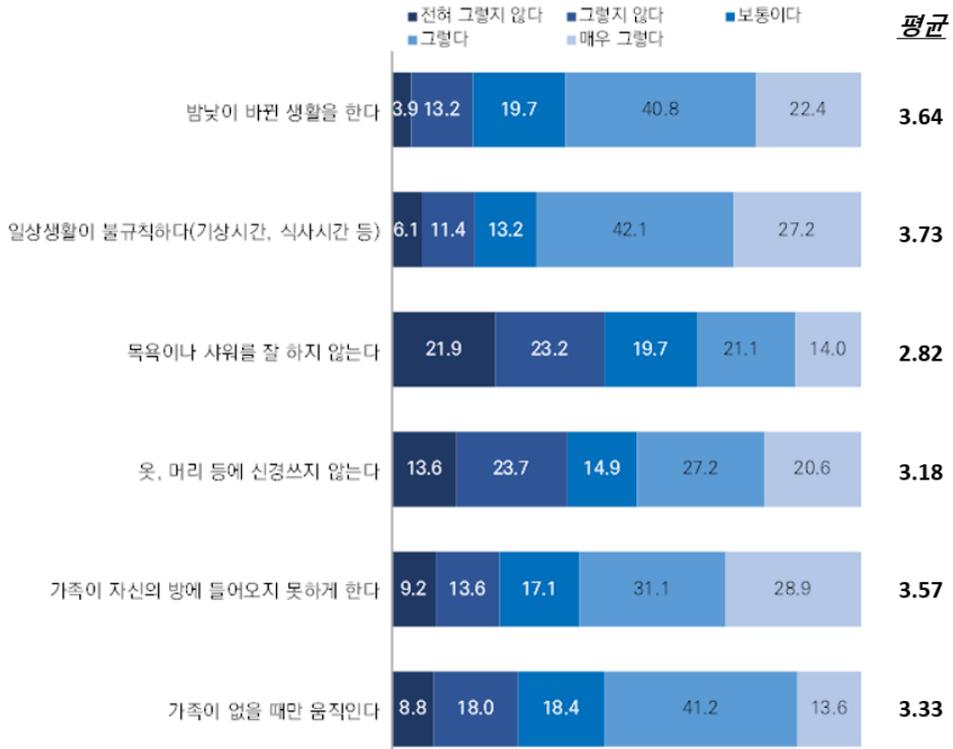


□ 일상생활

-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생활 중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기상 시간, 식사 시간 등)'가 평균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3.64점)', '가족이 없을 때만 움직인다(3.3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목욕이나 샤워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2.8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15 | 일상생활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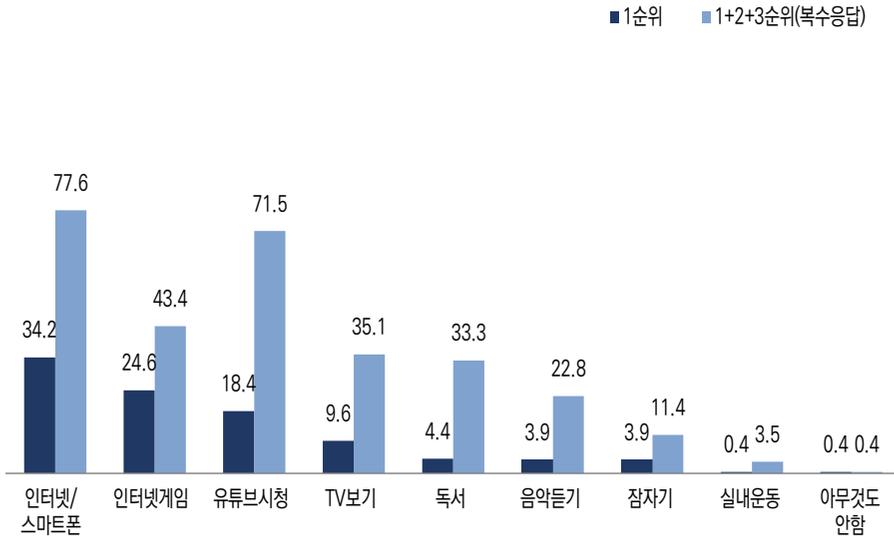


□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복수 응답)

- 은둔형 외톨이의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1순위 기준 '인터넷/스마트폰'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게임(24.6%)', '유튜브 시청(18.4%)', 'TV 보기(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1+2순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77.6%)'과 '유튜브 시청(71.5%)'이 높게 나타남

그림 4-16 |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복수 응답)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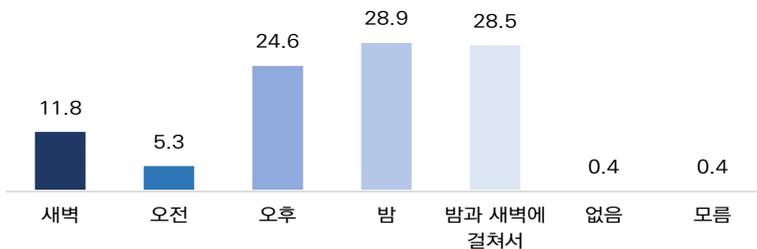


□ 하루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

○ 은둔형 외톨이의 활발한 활동 시간대는 ‘밤(28.9%)’과 ‘밤과 새벽에 걸쳐서(28.9%)’가 높게 나타남

그림 4-17 | 하루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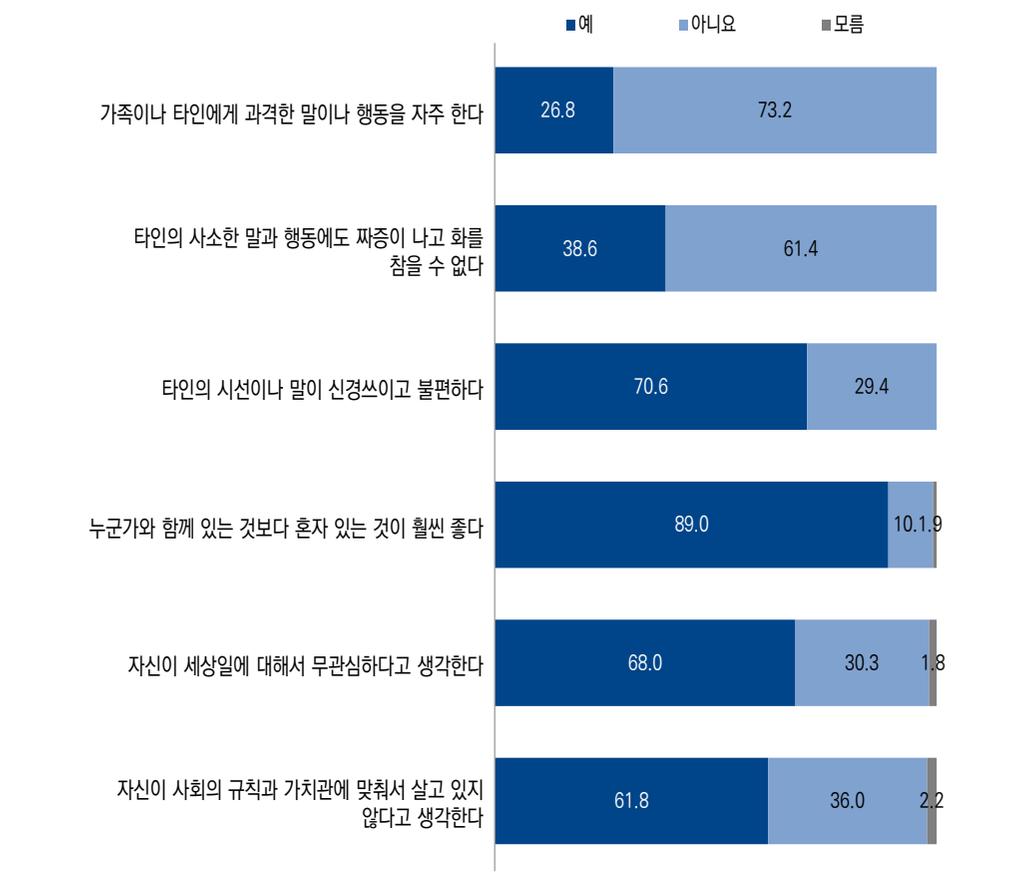


□ 사회생활

- 은둔형 외톨이의 89.0%는 사회생활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타인의 시선이나 말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다(70.6%)', '자신이 세상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68.0%)' 등의 순임

그림 4-18 | 사회생활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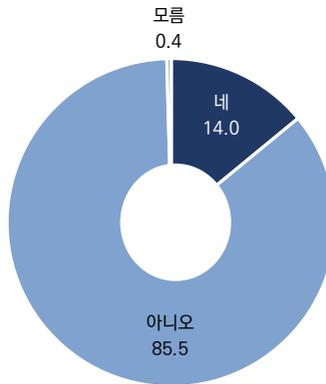


□ 음주 여부

○ 은둔형 외톨이의 14.0%만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9 | 음주 여부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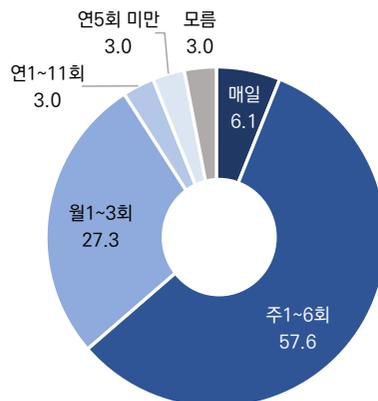


□ 음주 횟수

○ 음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중 57.6%는 '주1~6회'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0 | 음주 횟수

(음주하는 응답자 33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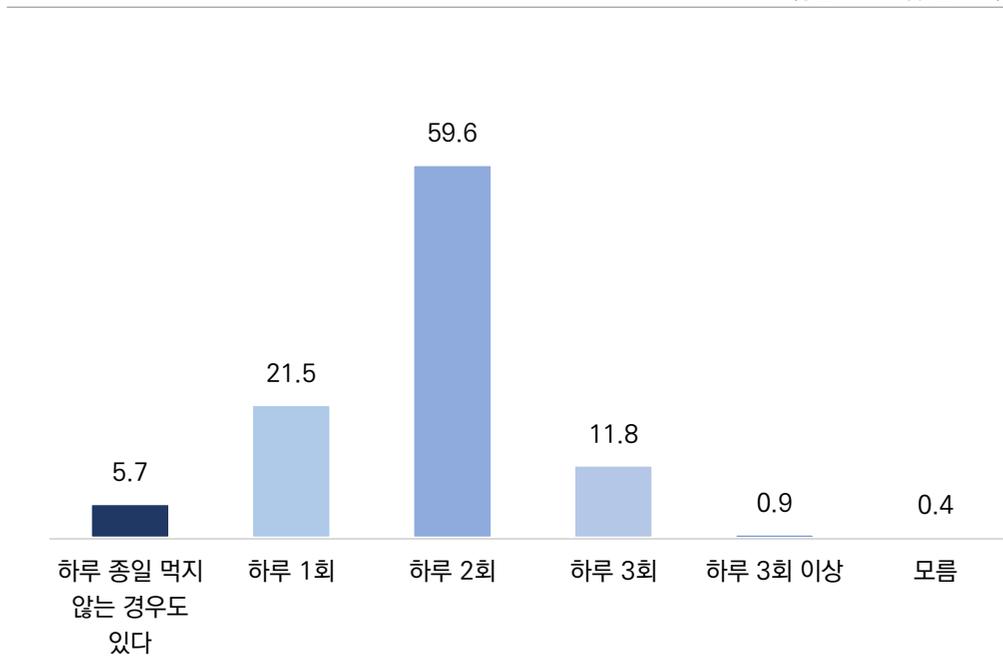


□ 하루 식사 횟수

○ 은둔형 외톨이의 하루 식사 횟수는 2회가 5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하루 1회 (21.5%)', '하루 3회(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하루 종일 먹지 않는 경우는 5.7%임

그림 4-21 | 하루 식사 횟수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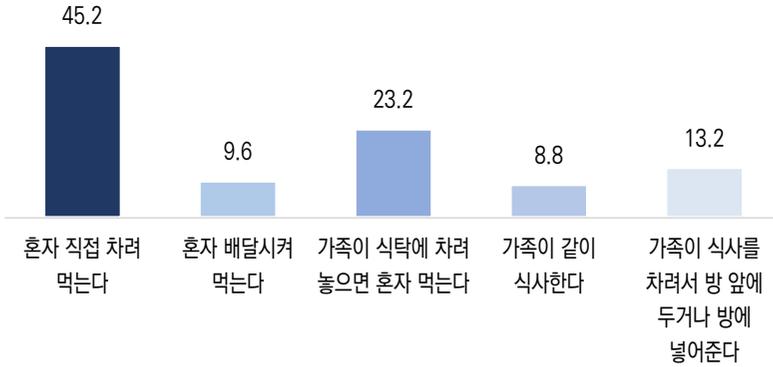


□ 식사 방식

○ 은둔형 외톨이의 식사 방식으로는 '혼자 직접 차려 먹는다'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가족이 식탁에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가 23.2%로 높았음. 가족과 같이 식사 한다는 8.8%로 매우 낮음

그림 4-22 | 식사 방식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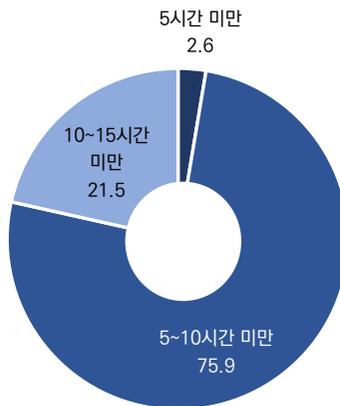


□ 하루 평균 수면 시간

○ 은둔형 외톨이의 평균 수면 시간 '5~10시간 미만'이 7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15시간 미만'이 21.5%로 높았음

그림 4-23 |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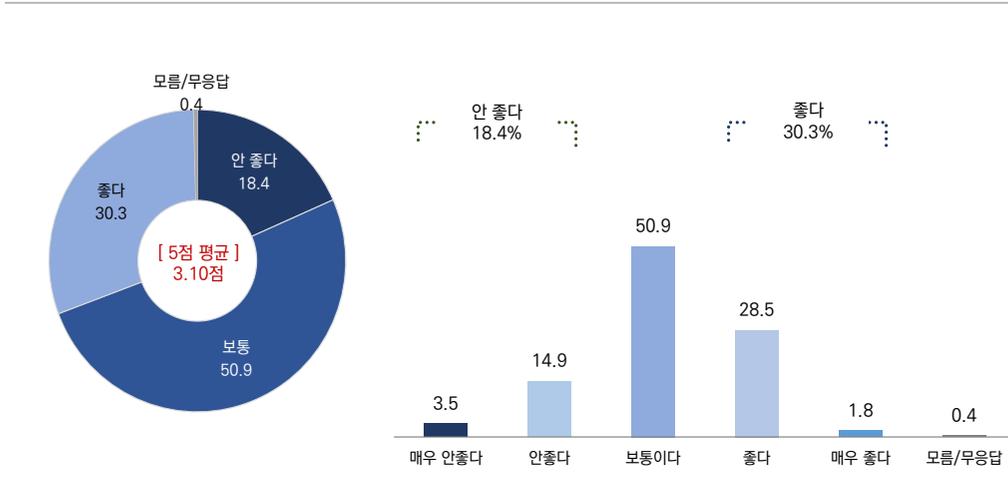
(4) 건강 상태 및 행복 수준

□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

- 은둔형 외톨이의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30.3%(매우 좋다: 1.8% + 좋다: 28.5%)로 나타남. 반면, '안 좋다'는 응답은 18.4%(매우 안 좋다: 3.5% + 안 좋다: 14.9%)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4-24 |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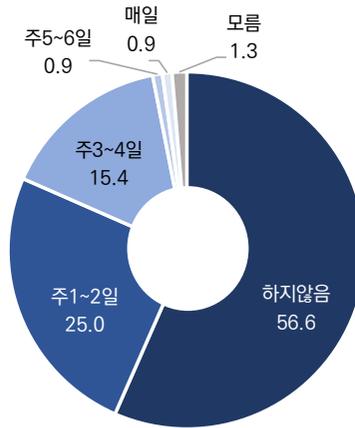


□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빈도

- 은둔형 외톨이 56.6%는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을 '주1~2일'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25.0%로 나타남.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56.6%로 매우 높음

그림 4-25 |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빈도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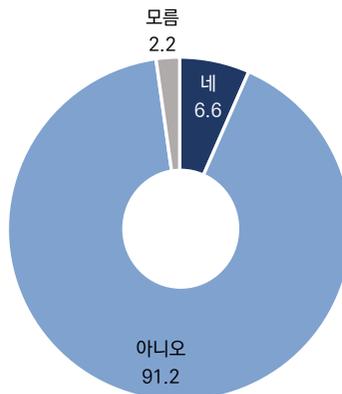


□ 신체적 질환 또는 치료 필요 여부

○ 은둔형 외톨이 91.2%는 신체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응답함. 반면, 신체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는 6.6%로 매우 낮음

그림 4-26 | 신체적 질환 또는 치료 필요 여부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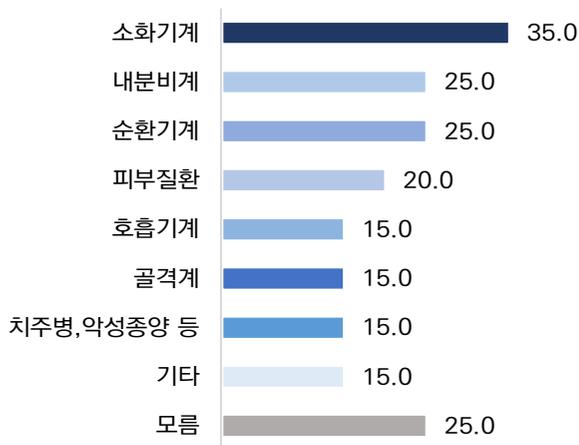


□ 신체적 질환 병명

- 신체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 중 35.0%가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내분비계', '순환기계' 질환은 각각 25.0%, 피부질환은 20.0%로 나타남

그림 4-27 | 신체적 질환 병명(복수 응답)

(응답자 2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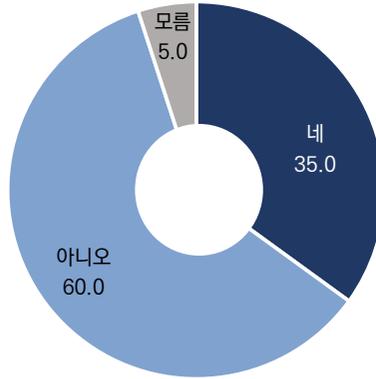


□ 신체적 질환에 대한 치료 여부

- 신체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 중 35.0%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치료를 받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는 60.0%로 반 이상 높았음

그림 4-28 | 신체적 질환에 대한 치료 여부

(응답자 2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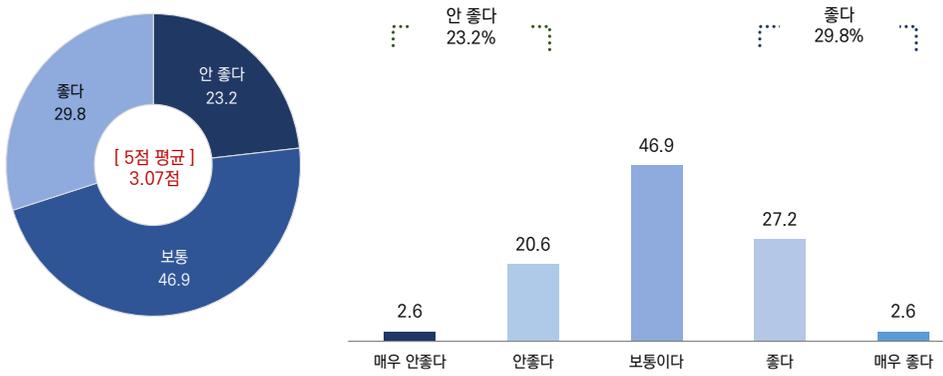


□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 상태

○ 은둔형 외톨이의 29.8%(매우 좋다: 2.6% + 좋다: 27.2%)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함. 또한, 안 좋다고 응답은 23.2%(매우 안 좋다: 2.6% + 안 좋다: 20.6%)로 나타남

그림 4-29 |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 상태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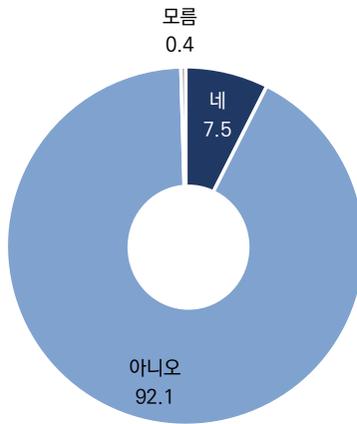


□ 정신적 질환 또는 치료 필요 여부

- 은둔형 외톨이 92.1%는 정신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응답함. 반면, 정신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는 7.5%로 매우 낮음

그림 4-30 | 정신적 질환 또는 치료 필요 여부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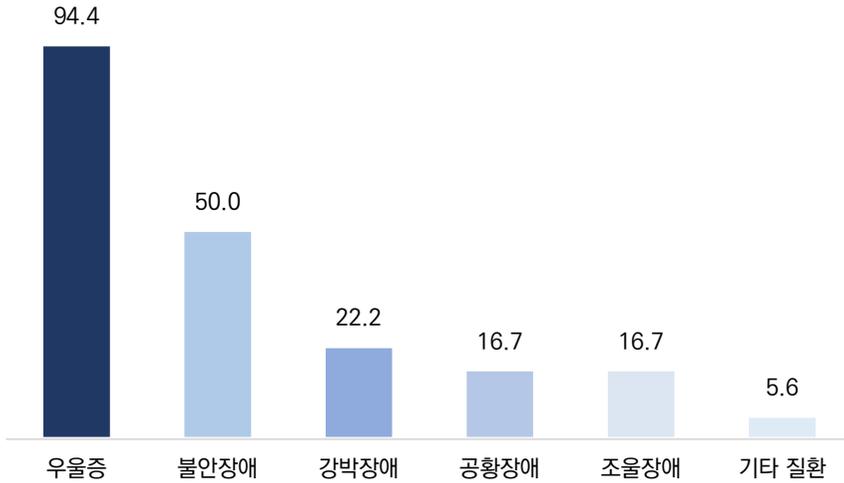


□ 정신적 질환 병명

- 정신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 중 94.4%가 우울증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불안장애(50.0%)', '강박장애(22.2%)', '공황장애(16.7%)', '조울증 장애(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1 | 정신적 질환 병명(복수 응답)

(응답자 1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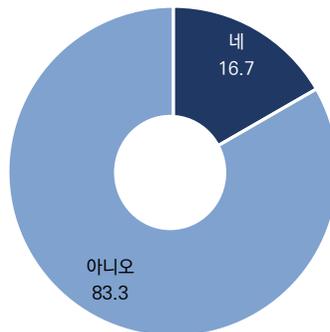


□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 여부

○ 정신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 중 16.7%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치료를 받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는 83.3%로 높았음

그림 4-32 |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 여부

(응답자 18명, 단위:%)



□ 우울 유병률(PHQ 10점 이상)

○ PHQ는 최소 0점에서 최대 27점으로 평균이 7.6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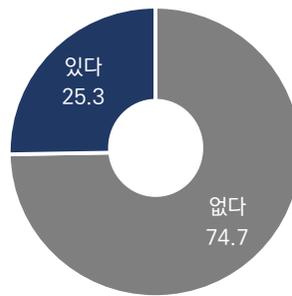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의 우울 유병률은 28.3%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자살 충동 경험 여부

○ 은둔형 외톨이의 25.3%는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3 | 자살 충동 경험 여부

(응답자 198명, 단위:%)



□ 자살 시도 여부

○ 자살 충동을 경험한 은둔형 외톨이 중 18.0%는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4 | 자살 시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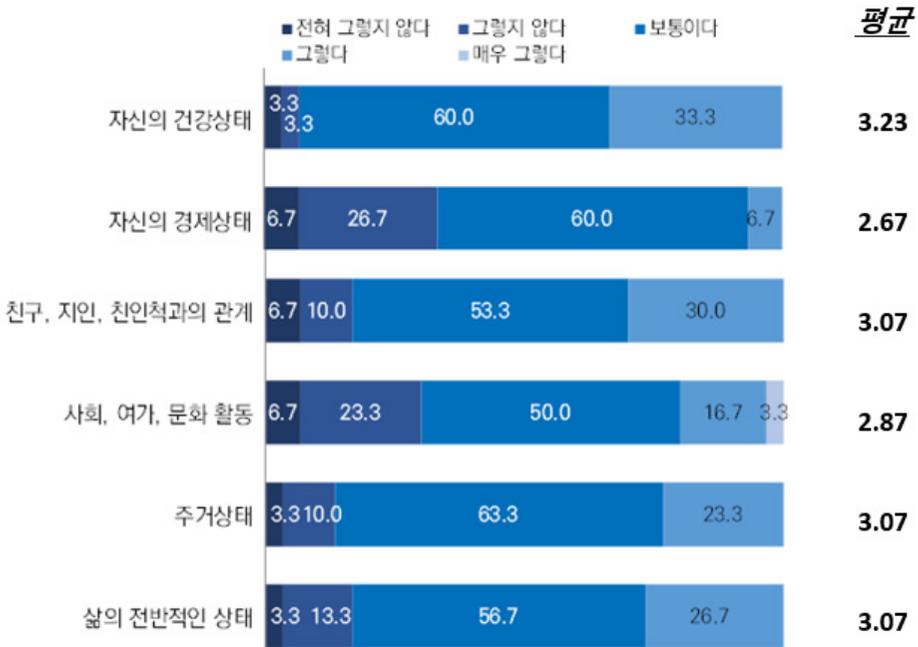
(응답자 50명, 단위:%)



□ 영역별 만족도

- 은둔형 외톨이의 영역별 만족도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평균 3.0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다음으로 ‘주거상태(2.87점)’가 높게 평가됨
- ‘자신의 건강 상태(3.05점)’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2점대 이하로 낮게 평가됨

그림 4-35 | 영역별 만족도



□ 나의 현재 상태(행복사다리)

○ 은둔형 외톨이의 현재 상태(행복도)는 10점 만점 중 3.31점으로 행복도가 매우 낮음

그림 4-36 | 나의 현재 상태(행복사다리)

(응답자 198명, 단위:점)



○ 가장 좋은 상태

○

○

○

○

○

○

○ ← [10점 평균] 3.31점

○

○

○ 가장 나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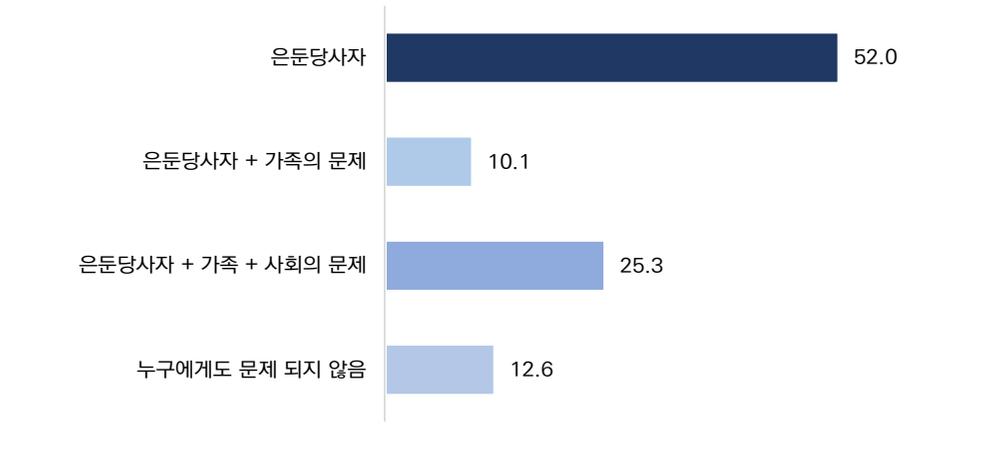
(5) 은둔 상황 인식

□ 은둔의 문제 대상

○ 은둔형 외톨이가 생각하는 문제 대상으로는 '은둔 당사자'가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은둔 당사자 + 가족 + 사회의 문제(25.3%)'가 높았음

그림 4-37 | 은둔의 문제 대상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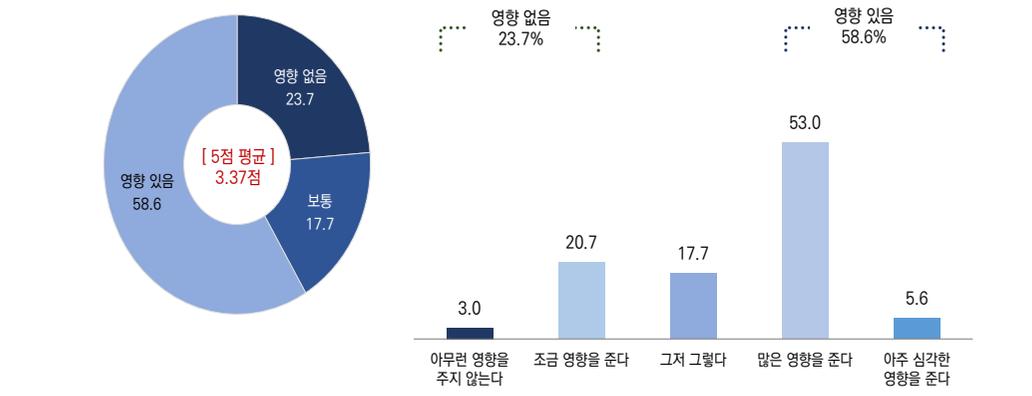


□ 은둔이 은둔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

○ 은둔이 은둔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58.6%(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5.6% + 많은 영향을 준다: 53.0%)로 나타남

그림 4-38 | 은둔이 은둔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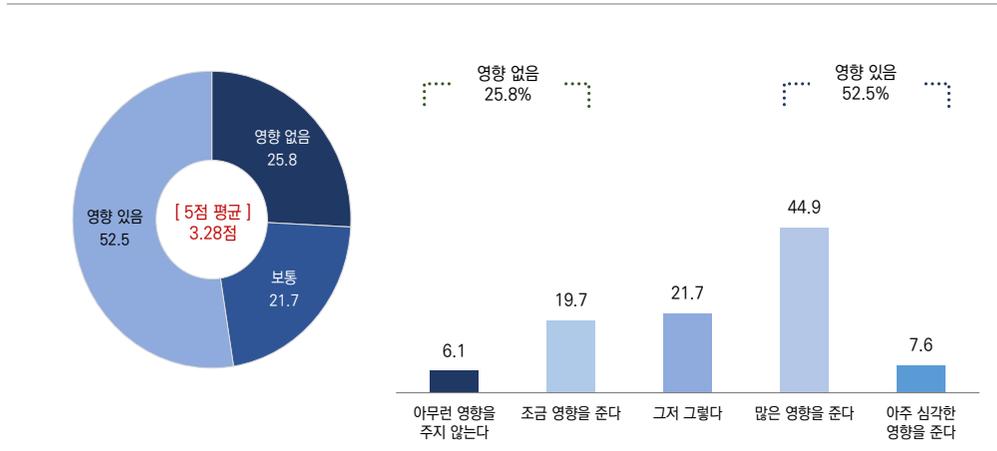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가족에게 주는 영향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가족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52.5%(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7.6% + 많은 영향을 준다: 44.9%)로 나타남

그림 4-39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가족에게 주는 영향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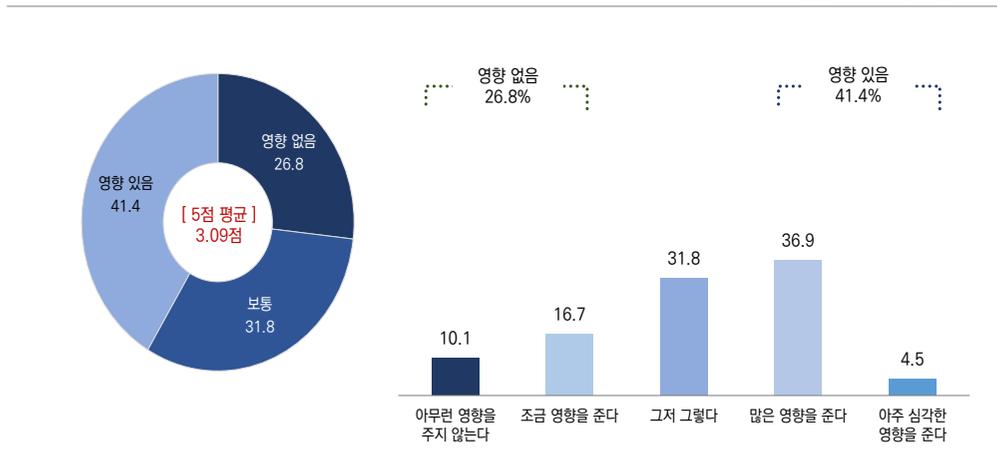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41.4%(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4.5% + 많은 영향을 준다: 36.9%)로 나타남

그림 4-40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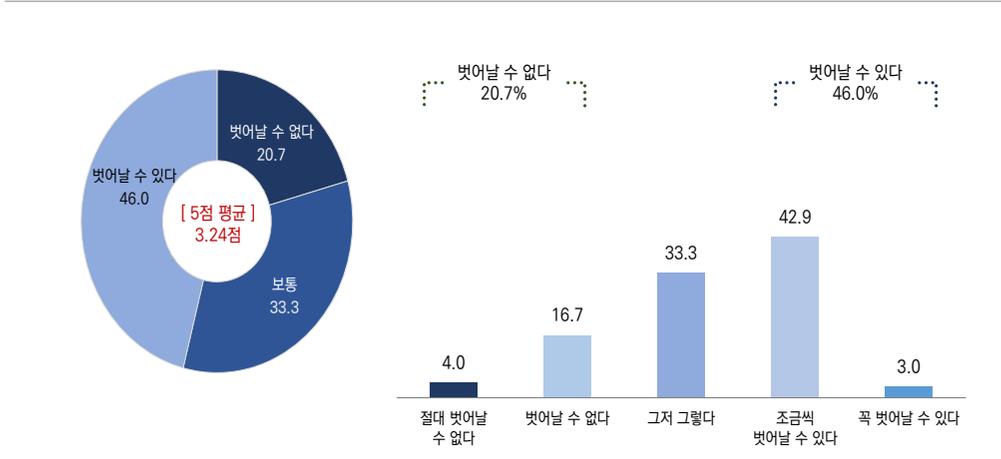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의 은둔생활 극복 여부

○ 은둔형 외톨이의 46.0%(꼭 벗어날 수 있다: 3.0% +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42.9%)는 은둔 당사자의 은둔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 4-41 | 은둔 당사자의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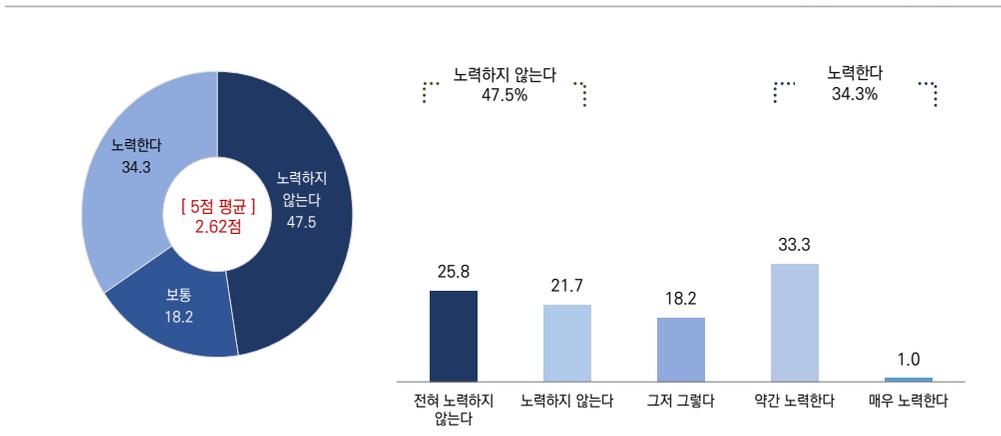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가 은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정도

○ 은둔 당사자가 은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34.3%(매우 노력한다: 1.0% + 약간 노력한다: 33.3%)로 나타남. 반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5.8%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4-42 | 은둔 당사자가 은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정도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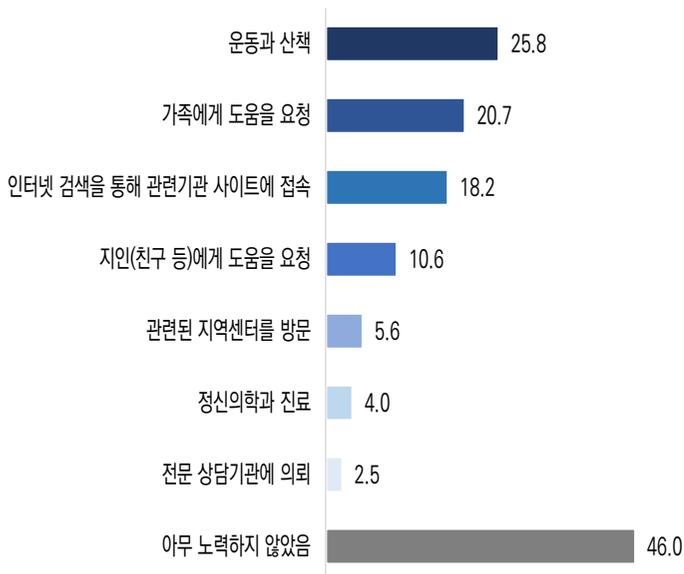


□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복수 응답)

- 은둔 당사자가 은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으로 '운동과 산책'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20.7%)',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기관 사이트에 접속(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음

그림 4-43 |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복수 응답)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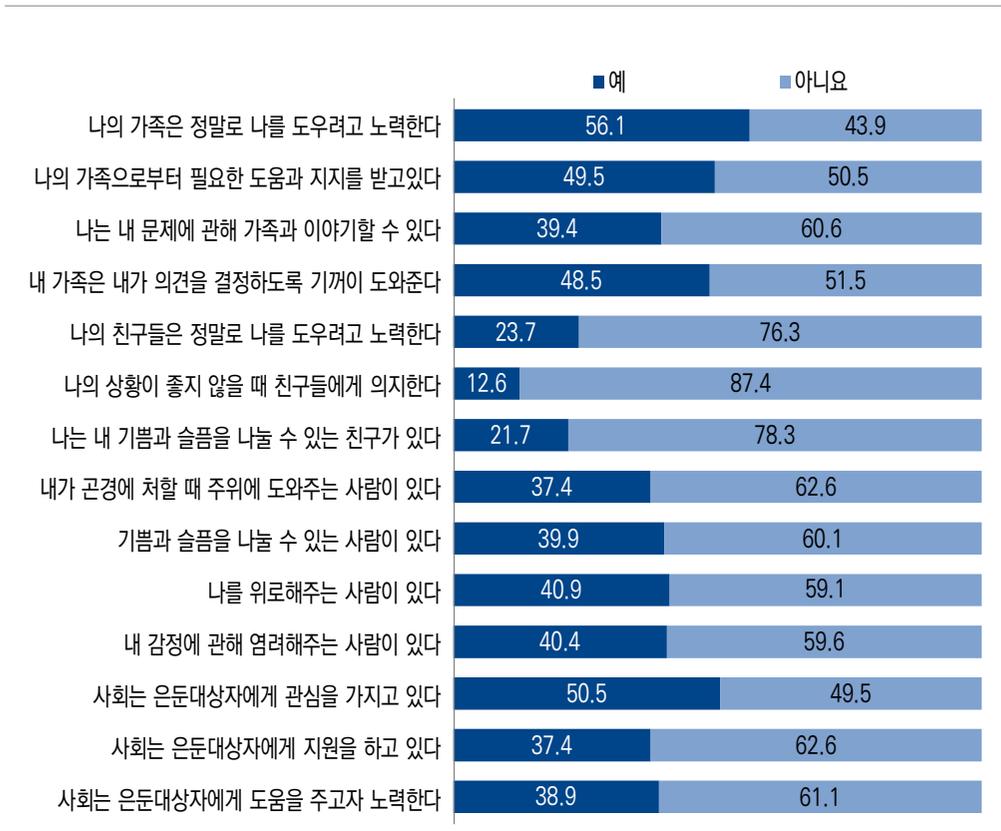


□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경험

- 은둔 당사자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경험으로 ‘나의 가족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사회는 은둔 당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50.5%), ‘나의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49.5%), ‘내 가족은 내가 의견을 결정하도록 기꺼이 도와준다(48.5%) 등의 순임

그림 4-44 |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경험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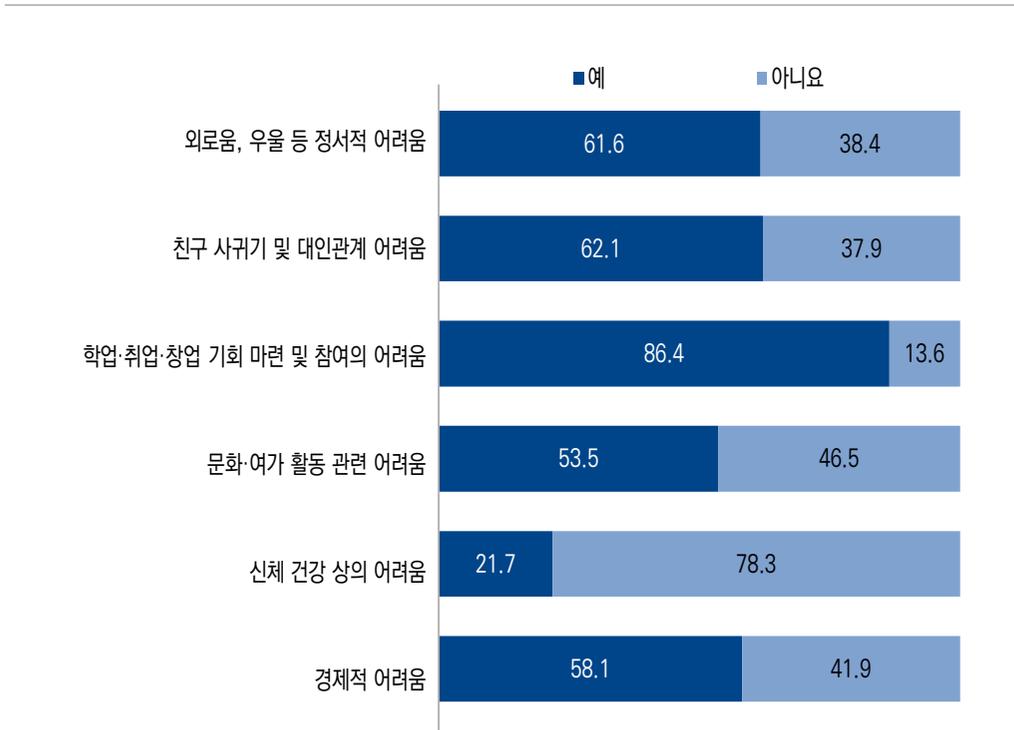


□ 은둔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은둔 당사자의 86.4%가 '학업·취업·창업 기회 마련 및 참여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은 21.7%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4-45 | 은둔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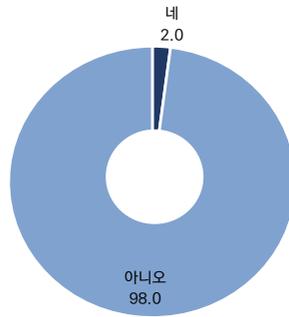
(6) 상담 및 지원

□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

- 은둔 당사자의 98.0%는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6 |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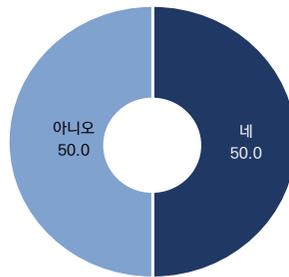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경험

-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0%로 나타남

그림 4-47 |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경험

(응답자 4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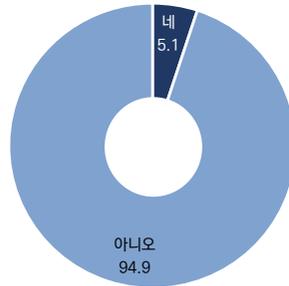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인지도

○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5.1%로 낮게 나타남

그림 4-48 |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인지도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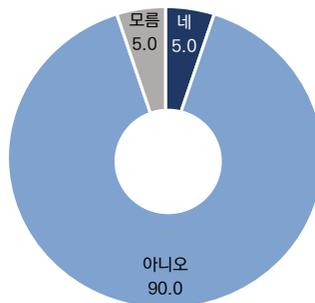


□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경험 여부

○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남. 반면,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0.0%로 높게 나타남

그림 4-49 |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경험 여부

(응답자 4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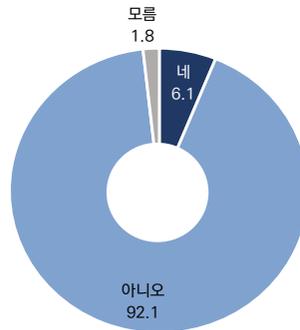


□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 여부

-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1%로 나타남. 반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1%로 높았음

그림 4-50 |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 여부

(응답자 22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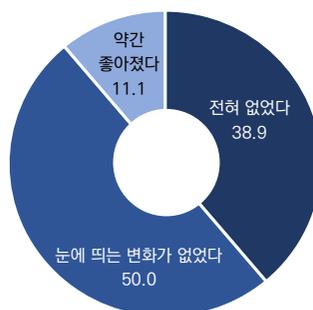


□ 상담을 받은 이후 변화

-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0.0%가 상담을 받은 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응답함. 또한, 상담을 받은 후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는 응답은 38.9%로 나타남

그림 4-51 | 상담을 받은 이후 변화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 1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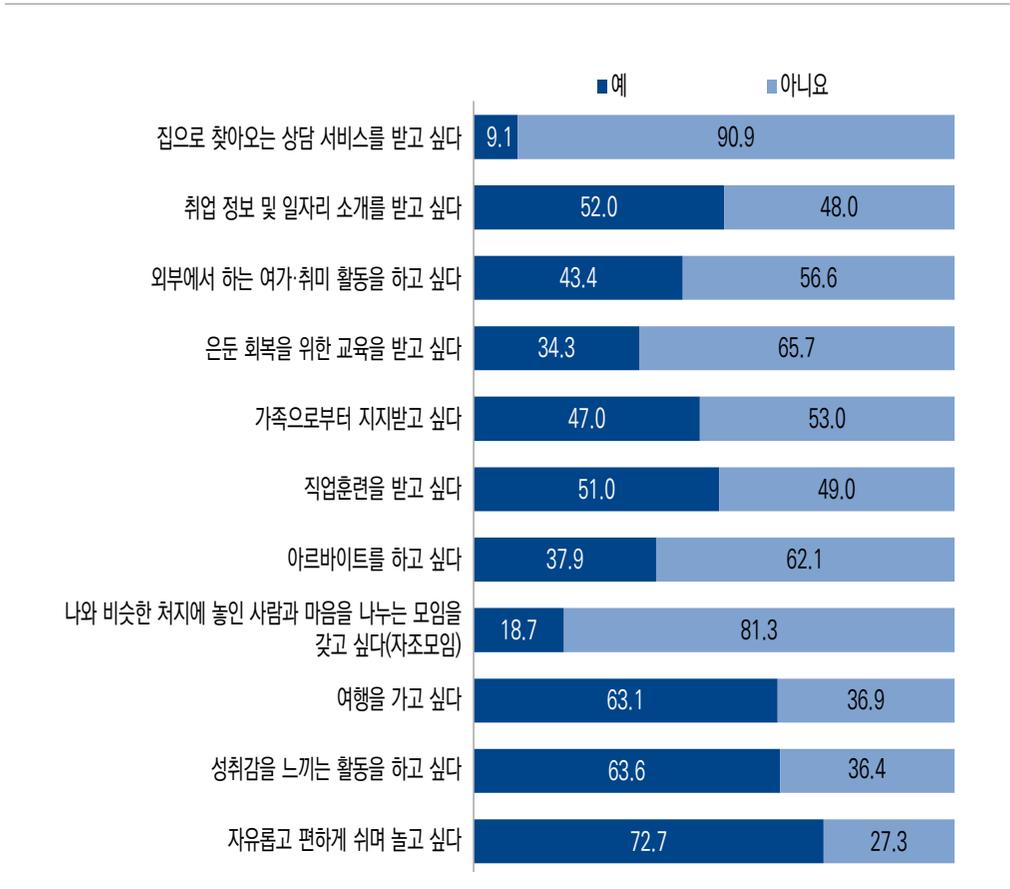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의 욕구

○ 은둔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 중 '자유롭고 편하게 쉬며 놀고 싶다'가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을 하고 싶다(63.6%)', '여행을 가고 싶다(63.1%)' 등의 순임. 반면, '집으로 찾아오는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욕구는 9.1%로 낮게 나타남

그림 4-52 | 은둔 당사자의 욕구

(응답자 198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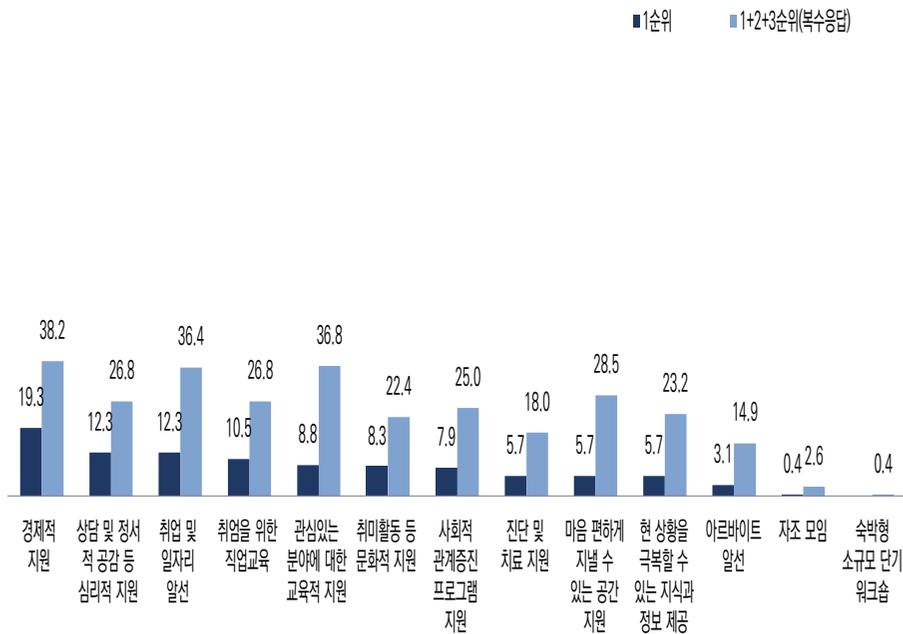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 지원 방법 선호도

-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1순위 기준 '경제적 지원'이 19.3%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상담 및 정서적 공감 등 심리적 지원(12.3%)', '취업 및 일자리 알선(12.3%)',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10.5%)' 등의 순임

그림 4-53 | 은둔 당사자 지원 방법 선호도

(응답자 228명, 단위:%)



□ 은둔 당사자의 「은둔형 외톨이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 주관식 문항은 총 110명이 대답하였음. '경제적 지원 필요'가 22.7%로 가장 높았고, 취업 교육과 알선 등 '취업 지원 요구'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 개선과 정책지원 확대'가 각각 18.2%로 나타남
- 그 외 '전문적인 상담 지원' 15.5%, '문화생활 지원' 5.5%,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 지원'과 '자조 모임'이 각각 4.5%, '정신과적 치료지원' 1.8%, '은둔자를 위한 장소제공' 0.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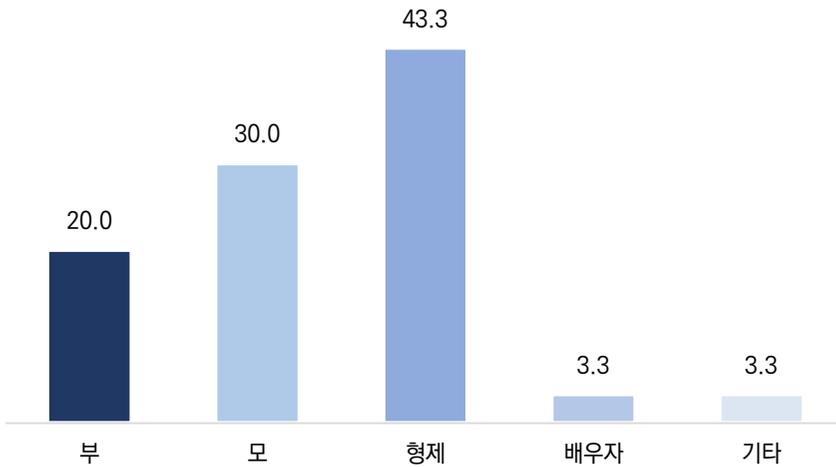
2) 은둔 당사자 가족

□ 은둔 당사자와 동거 여부

- 은둔 당사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 중 형제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어머니' (30.0%), '아버지' (20.0%) 등의 순임

그림 4-54 | 은둔 당사자와 동거 여부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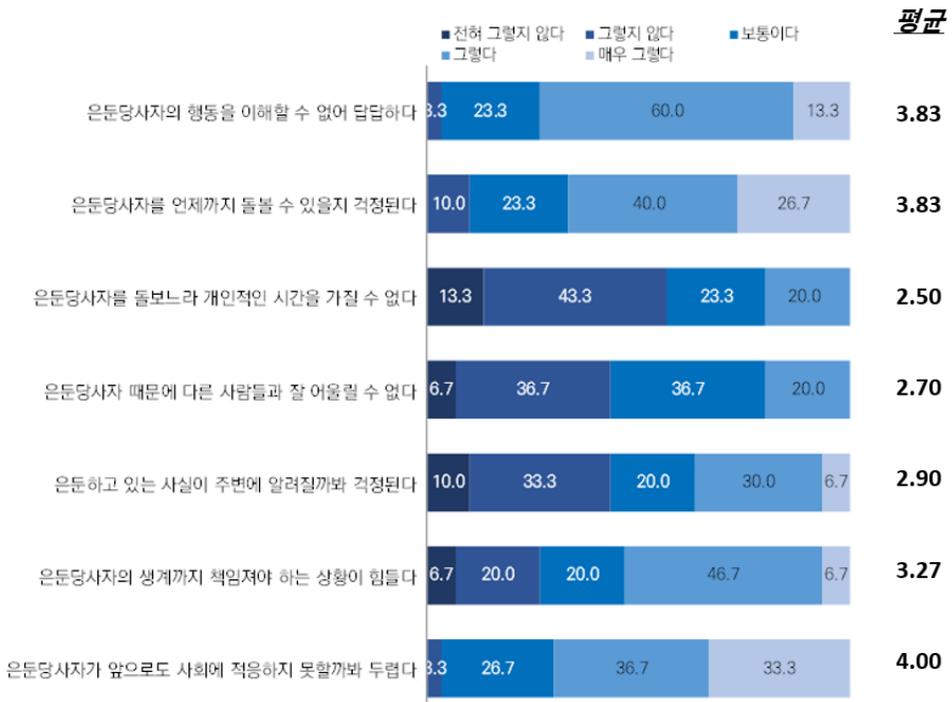


□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

- 은둔 당사자로 인해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은둔 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다’에 동의한 비율이 73.3%(‘그렇다’ 60.0%, ‘매우 그렇다’ 13.3%)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은둔 당사자가 앞으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렵다’가 70.0%(‘그렇다’ 36.7%, ‘매우 그렇다’ 33.3%), ‘은둔 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는 66.7%(‘그렇다’ 40.0%, ‘매우 그렇다’ 26.7%)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은둔 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2.50 점)’와 ‘은둔 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다(2.70 점)’라는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5 |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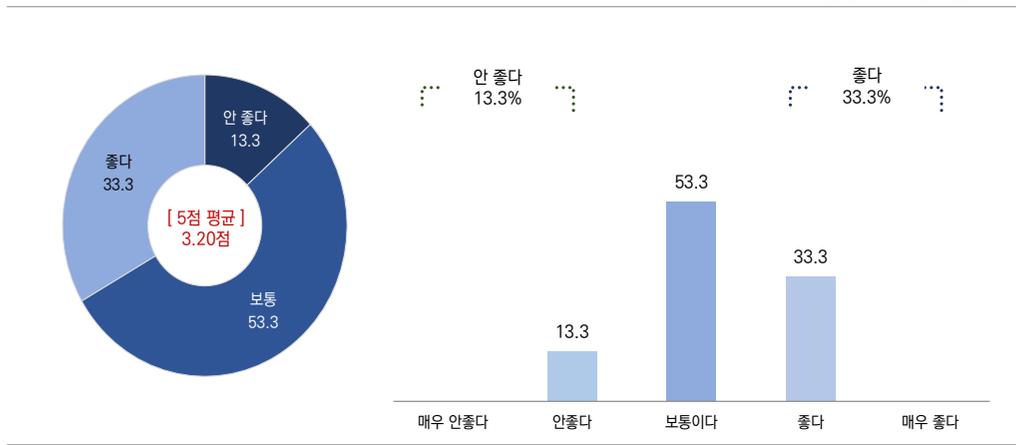


□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에 대한 신체적 건강 상태는 '좋다'가 33.3%로 '안 좋다(13.3%)'보다 20.0%p 높게 나타남

그림 4-56 |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 상태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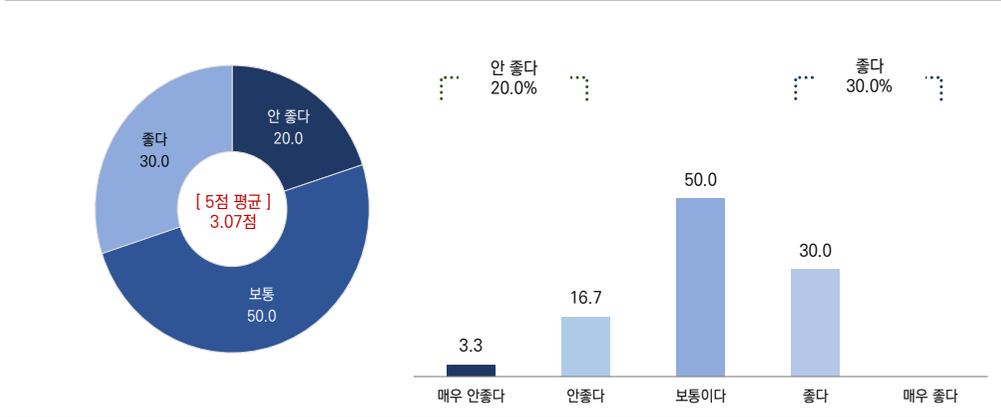


□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 상태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건강 상태는 '좋다'가 30.0%로 '안 좋다(20.0%)'보다 10.0%p 높게 나타남

그림 4-57 |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 상태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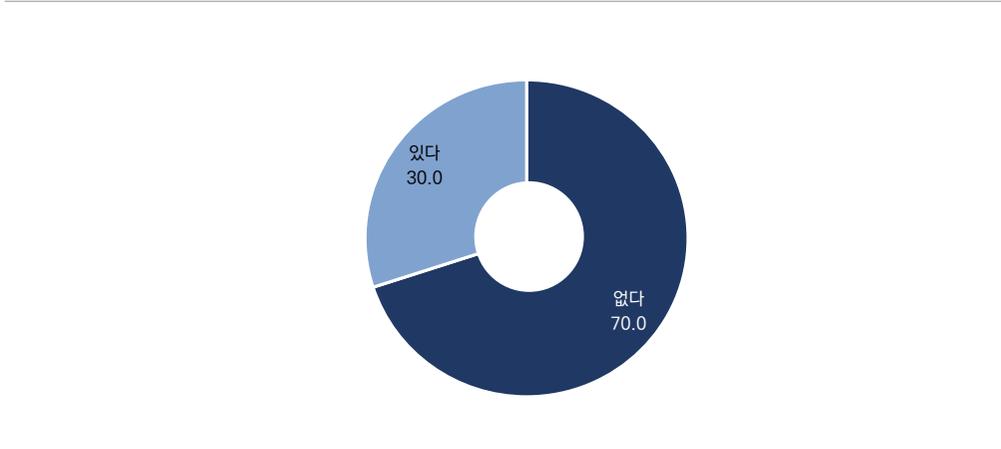


□ 자살 충동 경험 여부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중 30.0%가 자살 충동 경험이 있음

그림 4-58 | 자살 충동 경험 여부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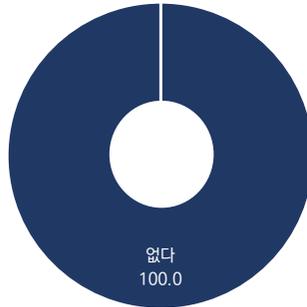


□ 자살 시도 여부

○ 자살 충동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9 | 자살 시도 여부

(응답자 9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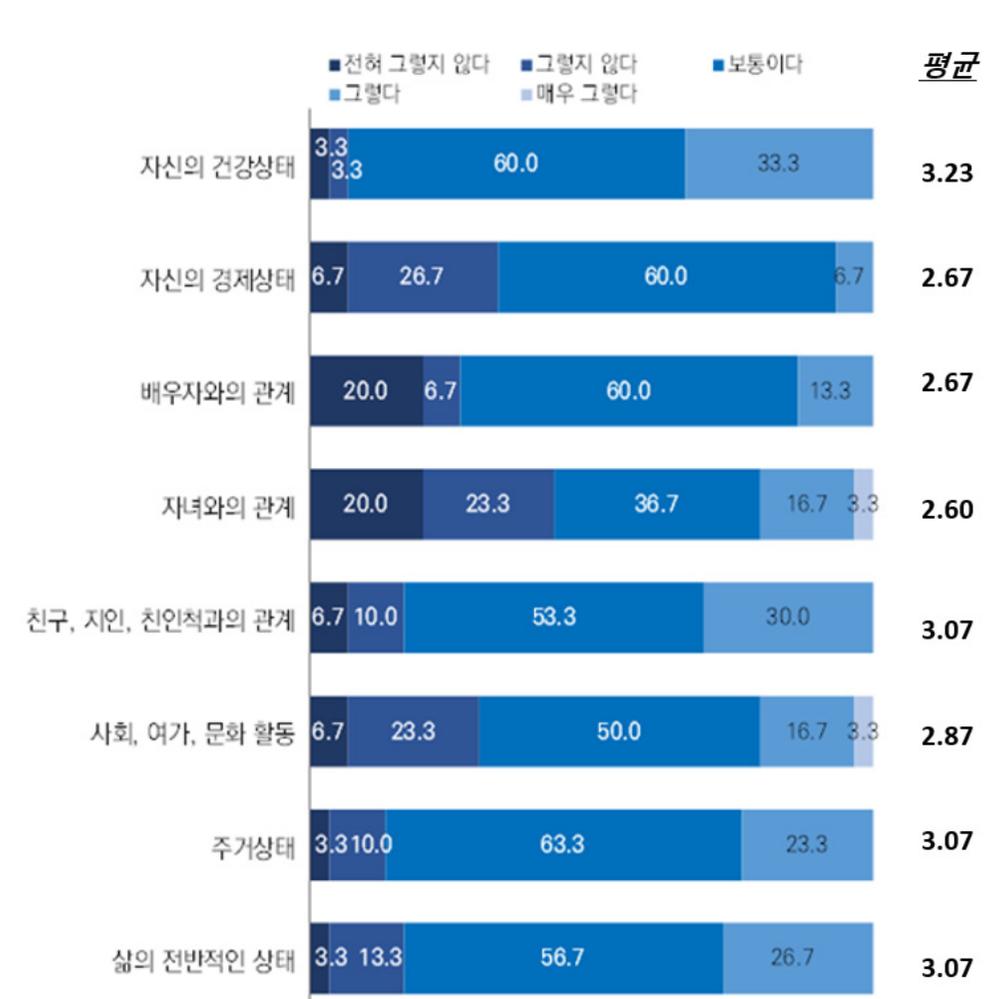


□ 영역별 만족도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중 '자신의 건강 상태' 만족도는 평균 3.2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됨. 다음으로 '친구, 지인, 친인척과의 관계', '주거상태', '삶의 전반적인 상태'의 만족이 각각 3.07점으로 평가됨

그림 4-60 | 영역별 만족도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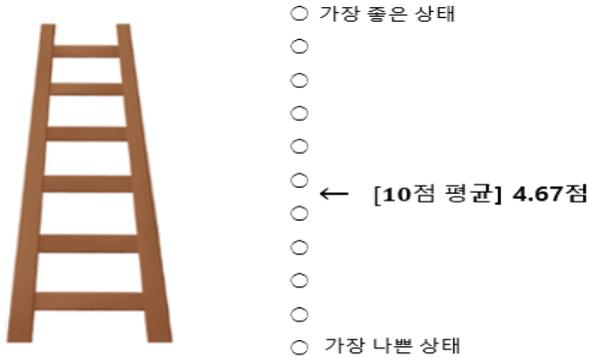


□ 나의 현재 상태(행복사다리)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현재 행복도는 10점 중 4.67점으로 낮은 편임

그림 4-61 | 나의 현재 상태(행복사다리)

(응답자 30명,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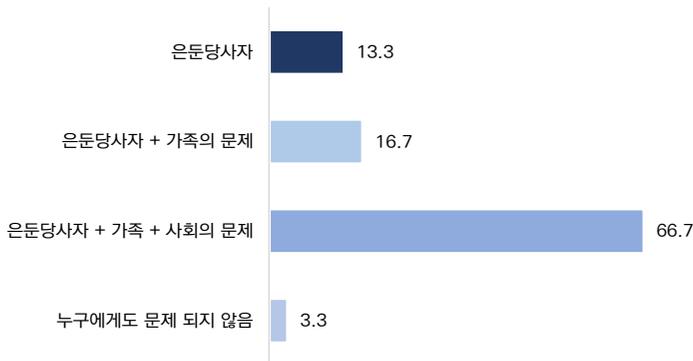


□ 은둔의 문제 대상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66.7%는 '은둔 당사자 + 가족 + 사회의 문제'가 은둔의 문제라고 응답함

그림 4-62 | 은둔의 문제 대상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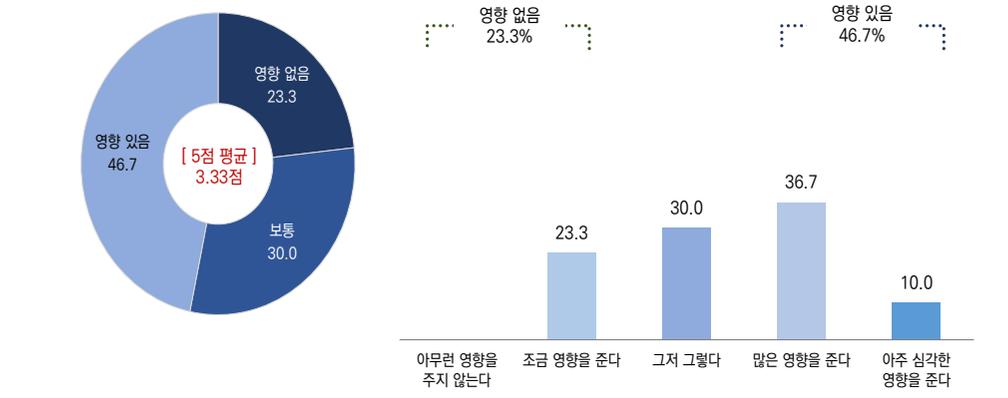


□ 은둔이 은둔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당사자에게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46.7%(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10.0% + 많은 영향을 준다: 36.7%)로 나타남

그림 4-63 | 은둔이 은둔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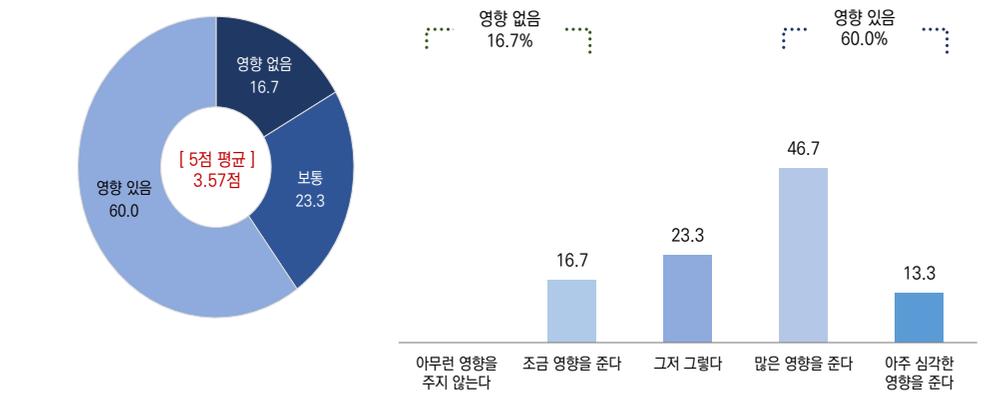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가족에게 주는 영향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0.0%(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13.3% + 많은 영향을 준다: 4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64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가족에게 주는 영향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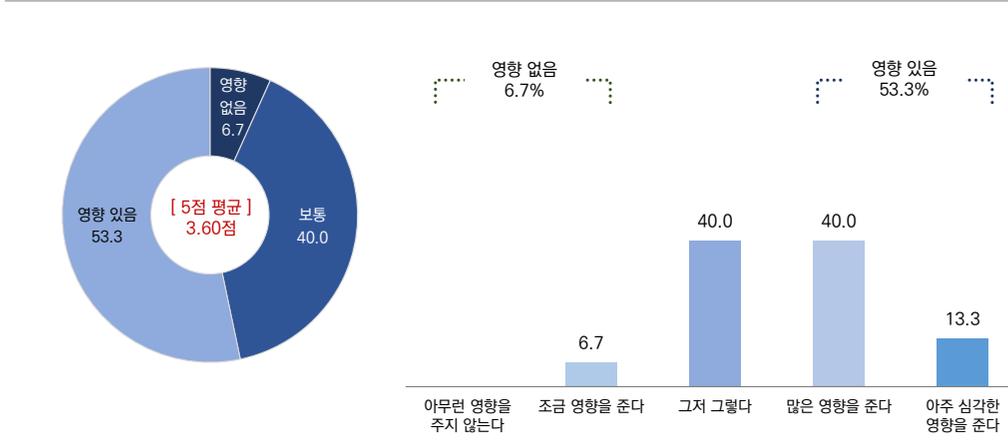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사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3.3%(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13.3% + 많은 영향을 준다: 4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65 |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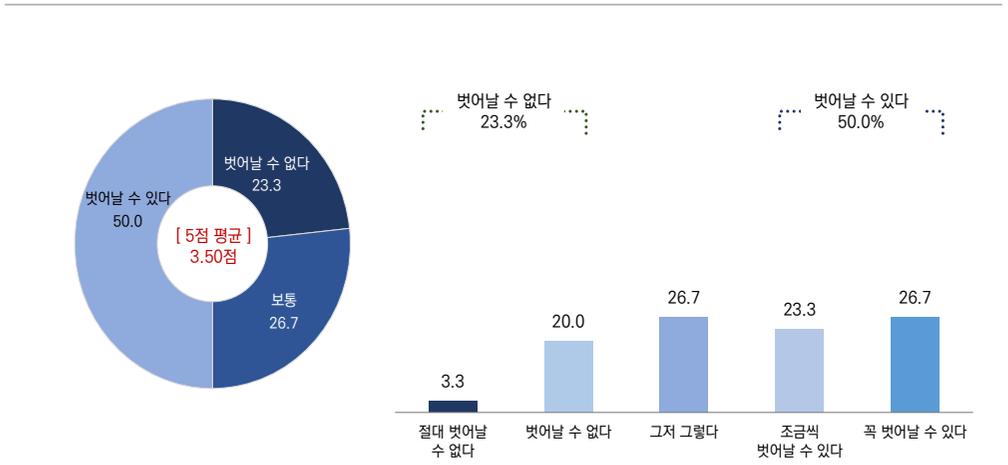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의 은둔생활 극복 여부

○ 은둔형 외톨이 가족 중 50.0%(꼭 벗어날 수 있다: 26.7% +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23.3%)는 은둔 당사자의 은둔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 4-66 | 은둔 당사자의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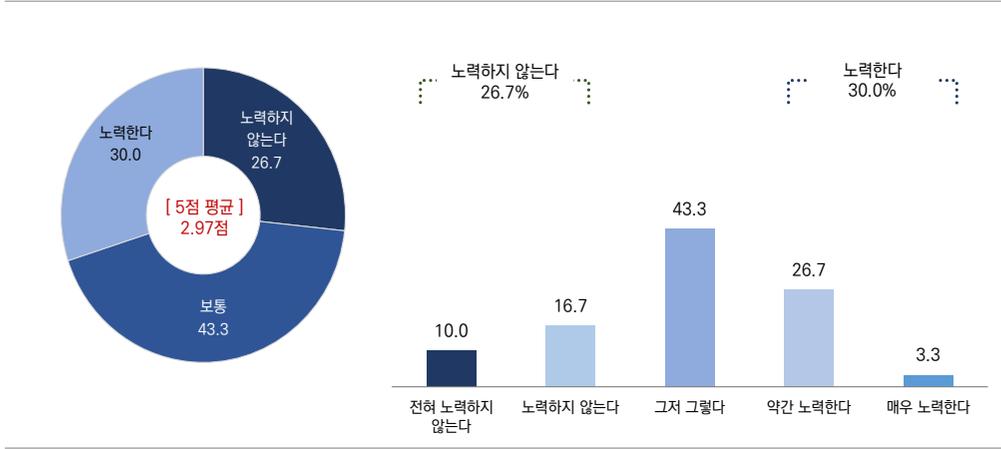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가 은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정도

- 은둔 당사자가 은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30.0%(매우 노력한다: 3.3% + 약간 노력한다: 26.7%)로 나타남. 반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7%(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0.0% + 노력하지 않는다: 16.7%)로 나타남

그림 4-67 | 은둔 당사자가 은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정도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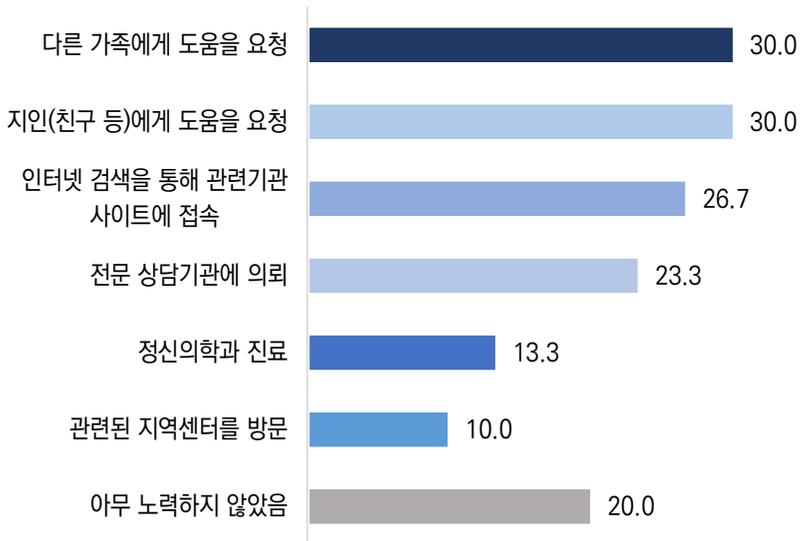


□ 은둔 회복을 위한 지원

- 은둔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인(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각각 3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관련된 지역센터를 방문’한 경우는 10.0%로 가장 낮았고, ‘정신의학과 진료’도 13.3%로 낮은 편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는 20.0%로 나타남

그림 4-68 | 은둔 회복을 위한 지원(복수 응답)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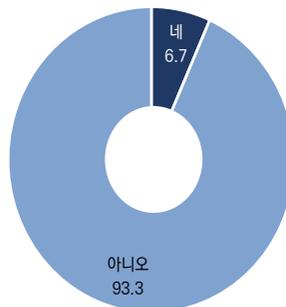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7%로 낮게 나타남

그림 4-69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인지도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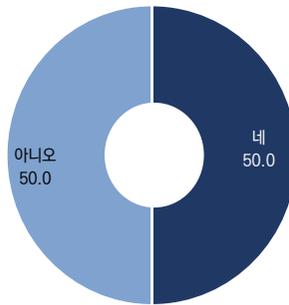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경험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0%로 나타남

그림 4-70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경험

(응답자 2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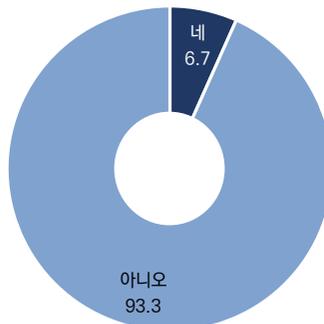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인지도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6.7%로 낮게 나타남

그림 4-71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인지도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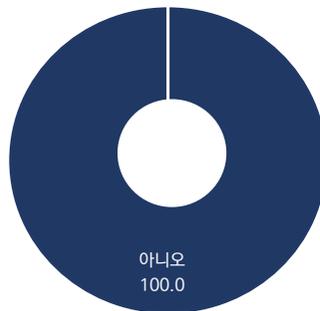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경험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었음

그림 4-72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경험

(응답자 2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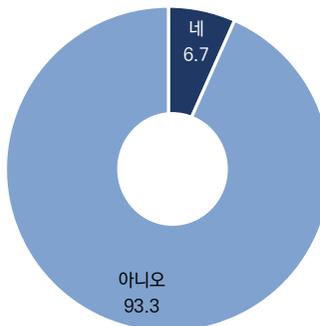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로서 상담받은 경험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로서 상담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7%로 낮았음

그림 4-73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로서 상담받은 경험

(응답자 3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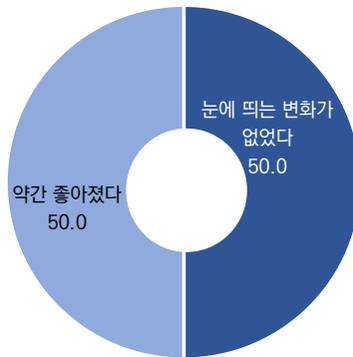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로서 상담받은 이후 변화 정도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로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상담을 받은 이후 '약간 좋아졌다'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가 각각 50.0%로 나타남

그림 4-74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로서 상담받은 이후 변화 정도

(응답자 2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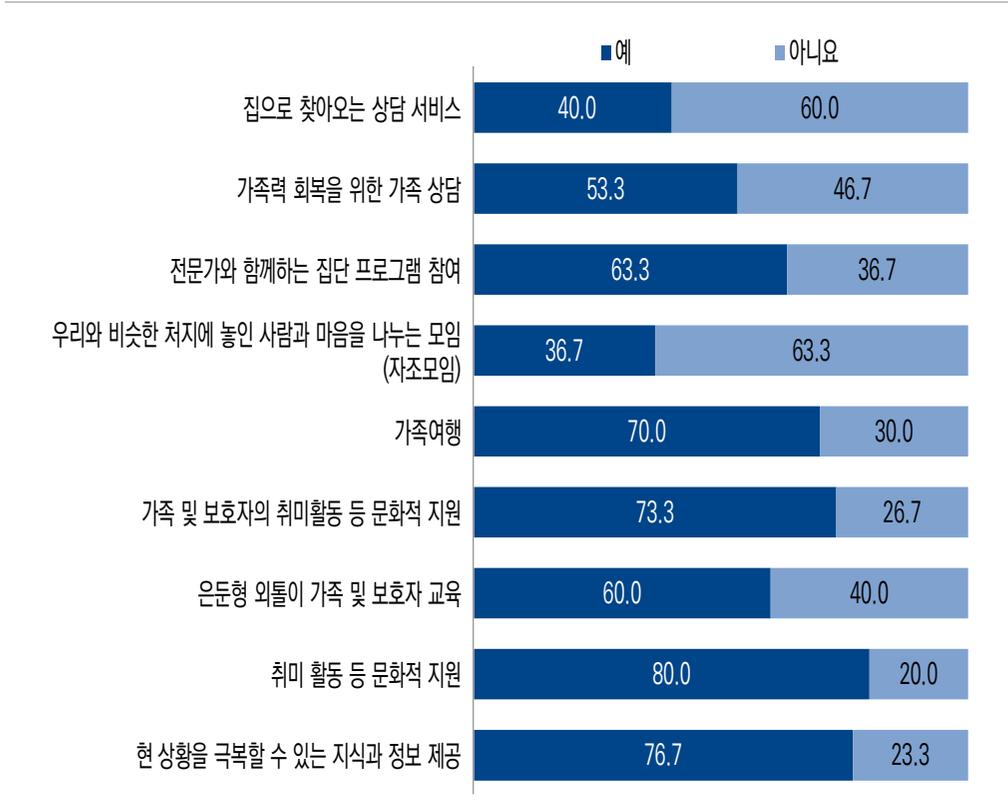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참여 의향

- 고양시가 은둔 당사자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중 참여하고 싶은 지원 사업으로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제공(76.7%)', '가족 및 보호자의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73.3%)', '가족여행(7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75 |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참여 의향

(응답자 30명, 단위:%)



□ 은둔 당사자의 가족 및 보호자의 「은둔형 외톨이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 주관식 문항으로 총 25명이 대답하였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 개선과 정책지원 확대’가 33.0%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적인 상담 지원’ 16.0%로 나타남
- 그 외 ‘자조 모임’이 12.0%, ‘취업 교육 및 지원’ 8.0%, ‘경제적 지원’ 8.0%, 그리고 ‘정신과적 치료지원’과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 지원’이 각각 4.0%로 나타남

제2절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 심층 면접

1. 심층 면접 개요

1) 배경

-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고양시 내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은둔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은둔 기간과 계기, 생활 방식,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대인관계 형성 과정,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활동, 상담 경험 및 요구사항, 가족이 겪는 어려움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2) 조사 대상자 선정

- 본 연구는 기존 사회복지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수행됨. 이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회피하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는 특성이 있어, 연구 대상자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집단으로 예상되었음
-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고양시 내 종합사회 복지관과 행정 복지센터 등 지역 내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면접 대상자를 소개받았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심층 면접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모집하였음. 모든 참여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거쳐 연구에 동참하였음
-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나이, 성별, 지역, 은둔 기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모든 변수를 동시에 조정하여 모집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

3) 심층 면접 진행 상담사 선정

-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를 모집하여 선정함

4) 조사 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음
-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5) 조사 방법

- 연구 대상인 은둔형 외톨이는 외부와의 접촉이나 노출을 매우 꺼리는 특성이 있어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불편하게 느끼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심층 면접은 1:1로 진행되었음
-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이 이루어졌으며, 심층 면접이 가능할 만큼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진행되었음
- 주말이나 야간 등,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면접이 진행되었음
- 은둔형 외톨이 대상의 심층 면접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었음
-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모두 1:1 심층 면접이 사용되었으며, 한 명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음. 일부 참가자는 담당 사회복지사와 이견 조율을 통해 지역기관 내 상담실에서 면접이 이루어졌음
- 대면 면접 이후 추가적인 상황 파악이나 미흡한 상담 부분의 보완을 위해 사전 안내 후 2차 대면 면접과 전화 면접도 함께 이루어졌음

6)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 면접 대상자 관련 질문

- 대상자의 개인적인 배경과 외출 빈도, 은둔의 계기 또는 시작 시점
-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사회 및 직장생활 경험, 대인관계
- 은둔생활 중 주로 하는 활동, 심리적·정서적 상태, 신체 건강 상태
- 필요한 지원 및 정책
- 가족으로서의 어려움과 소망
- 기타 설문으로 파악할 수 없는 폭넓은 질문

□ 면접서 작성 및 분석

- 심층 면접 참여자의 진술은 면접 후 녹취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선별, 유사한 진술을 범주화

□ 윤리적 고려 사항

- 연구 목적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면접 장소 및 시간 조정
- 면접 중단 가능성을 안내하고 자필 서명을 통해 동의 절차 완료
- 연구진은 비판적 태도를 배제하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호화된 표현 사용

2. 은둔 당사자 심층 면접 분석 결과

1) 은둔 당사자 심층 면접 참여자

- 은둔 당사자와 가족 참여자는 총 10명으로 남자가 3명, 여자가 7명이었으며, 나이 범위는 19세에서 70세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총 은둔 기간은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0년으로 조사되었음
- 연구 참여 경로는 등록된 지역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전 달받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심층 면접에 응한 사람만 조사를 진행하였음

표 4-5 | 심층 면접 참여자

참여자	성별	나이	은둔 기간	참여 경로
당사자 A	남	46세	4년	온라인 설문
당사자 B	여	28세	8년	문촌9 종합복지관
당사자 C	남	57세	3년	문촌9 종합복지관
당사자 D	여	19세	1년	고양청소년상담센터
당사자 E	남	39세	10년	문촌9 종합사회복지관
당사자 F	여	23세	7개월	온라인 설문

참여자	성별	나이	관계	은둔 기간	참여 경로
가족 G	여	45세	모	-	온라인 설문
가족 G-은둔자	남	16세	자	4년	
가족 H	여	70세	고모	-	문촌 9 종합복지관
가족 H-은둔자	여	28세	조카	8년	
가족 I	여	68세	모	-	온라인 설문
가족 I-은둔자	남	28세	자	2년	
가족 J	여	46세	모	-	온라인 설문
가족 J-은둔자	여	22세	여자	5년	

2) 은둔 당사자 심층 면접 분석 결과

□ 은둔 이전 생활(학교, 가정, 직장생활 등)

- 유년기에 대부분은 내성적 성격으로 인한 대인관계 갈등과 부모님의 이혼 등 가정불화 경험 다수임
-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이 중단되거나 자퇴를 경험함
- 청소년기의 경우 부모의 권위적인 태도로 인해 본인의 고민을 말하지 못함
-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음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자폐랑 간질환자여서 저랑 남동생을 제대로 안 챙겨줬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가출했어요. 가출 후에 아버지에게 여러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아빠가 회사에서 사고를 당하고 1년 정도 제가 병간호하다가 결국 요양병원에서 7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젊을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서 가지고 아버지가 더 일찍 돌아가셨다면 좋았을 거라고 늘 생각하게 되요. 제대 후에 취업은 했었지만 3개월 만에 나가라고 해서 나오고 이후에도 취업은 했는데 월급을 안주거나 나가라고 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당사자A)

할머니랑 살아서 한 번도 부모님 만나본 적 없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살다가 기초 수급비 나왔었는데 지금은 중지되서 안나오고 전단지 알바로 살아요. 우울증이 오래되긴 했는데 치료는 여건상 안 받아요.(당사자B)

오래전 이혼해서 자식은 엄마(할머니)랑 함께 살고 저는 저 혼자 살아요. 오랫동안 쌀장사를 했는데 이후에 직장생활 6~8개월 정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3년 전쯤에 그만두게 되었죠. (당사자C)

유년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나름 받으며 성장했는데 그 때문인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는 걸 좋아하고 조금은 집착했던 것 같아요.(당사자D)

어린 시절은 부친과 새어머니의 폭행과 구타로 힘들었으며 친모는 일본을 이주하여 잘 만나지 못하며 살다가 일본에서 돌아가실 때 저를 많이 찾았다고만 전해 들었어요. 여동생도 저랑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제가 동생 대신 맞아주기도 했어요.(당사자E)

중학생 때 부모님과 함께 팔라우(서태평양 섬나라-미크로네시아 지역)로 이주하여 공부했어요. 고등학생 때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늘 혼자였어요. 결국 자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지만 여전히 친구는 없어요.(당사자F)

□ 은둔 계기 및 과정

- 은둔생활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내성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학업 중단, 직장에서의 적응 실패, 사업 실패, 이혼, 가정 내 갈등 등으로 나타나면서 은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컴퓨터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되는 일도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도 다수 보임
- 정신과적 문제를 인식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면서 은둔을 시작하기도 함
- 일부 청소년은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겪은 뒤 은둔생활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경우 일시적인 문제로 기초 생활 수급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부활동을 못하게 되고 은둔생활을 하기도 함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성수동에서 일산으로 이사한뒤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나라에서 주택을 지원해줘서 입주했어요. 배달앱으로 배송일을 하다가 점차 일이 줄어들어 요즘은 집안에만 있게 되요. 20대 초반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아서 3개월 정도 약을 먹었고, 지금은 치료 중단했어요.(당사자A)

학창 시절 무단결석을 많이 했고 졸업 이후부터 본격적인 은둔생활을 시작했어요.(당사자B)

교통사고 당하고나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랑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 받았는데 그 이후 은둔생활을 하게 됐어요.(당사자C)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와의 다툼 중 폭력 상황이 발생했고 그 일로 엄청랑 싸우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엄청랑 다툼하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이후 은둔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Wee센터에서 상담했지만 변화는 없었고,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는데 도움은 안되고 학년 유예 후 자퇴 처리되더라고요. 자퇴 후에는 방에서 전혀 나가지 않고 가끔은 대소변도 방안에서 처리했어요. 엄청랑 싸우면 물건을 부수고 몸싸움으로 다치기도 해서 현재는 부모님이랑 동생들은 친할머니집에서 살아요. 제가 무서워서요.(당사자D)

뇌졸중으로 쓰러진 친엄마를 간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가 일본이라 일본 장례 절차에 따라 직접 씻겨드리고 화장하고 3일 동안 함께 밤을 보냈었어요. 그때의 충격으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난리도 아니었어요.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새엄마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 그러고나서 퇴원 후 은둔생활을 시작했어요.(당사자E)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취업에 도전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부터 은둔했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었지만(고등학생)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거 같아요. 할머니가 알코올 중독이시고 엄마도 많이 아파서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당사자F)

□ 은둔생활 실태(생계유지, 대인관계, 외출 정도, 운동 생활 방식 등)

-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나 조모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성인의 경우는 대부분 기초 생활 수급(긴급생계지원)으로 생활함
- 대인관계를 통해 경험한 상처는 자신감을 저하했고, 그 결과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대인관계를 의도적으로 맺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음
- 은둔형 외톨이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인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불규칙한 생활 방식(식사, 수면)과 게임이나 핸드폰에 몰두하고 있었음
- 운동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천하는 방법을 어려워함

개인적 외출은 거의 안하고 배달일로 가끔 나가긴 하는데 생활은 기초 수급비로 살아요. 남동생이 나를 워낙 무시하니까 서로 연락은 안하는데 소문으로는 동생이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동생이 어디 사는지 이제 조카는 누가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랑 연락하는거 없어요.(당사자A)

집에서는 유튜브, 게임, 그림그리기 하면서 지내고 아주 가끔 아빠라는 사람이 보내는 돈 생기면 배달 음식 주문하기도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 친구가 있었는데 제 생활이 이러니까 처음엔 열심히 이것저것 도와주었지만... 제가 가망이 없으니까 결국 이별했어요.(당사자B)

허리디스크와 당뇨, 뇌경색 진단 받아서 건강이 안좋아요. 그게 제일 힘들죠. 3개월간 긴급생계비 지원 받았었고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반찬을 제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은 사회 복지사가 전부고 보통 때는 TV 보거나 공원 산책하는 정도하죠.(당사자C)

생활은 기초 수급비랑 주거급여랑 의료급여랑 해서 사는데 얼마 전부터 24시간 식당에서 야간에 만 하는 일을 막 시작했어요. 낮에는 일하기 힘들고 사람들도 많고 해서요. 병원이랑 편의점 말고는 외출 안하고 잠은 낮에 자요. 술이랑 담배 많이 해요.(당사자E)

생활비는 부모님이 주세요. 친구는 없어요. 온라인 친구도 없어요. 씻는거 머리 자르는거 다 별로예요. 어차피 못생겨서... 아빠 도움으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만나거나 하는 거 없어요. 외출은 편의점 정도예요. 체중관리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운동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청소는 안해요.(당사자F)

□ 은둔생활에서 은둔 당사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과 필요한 것

- 은둔생활을 하면서 가족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음주 문제, 흡연 문제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
- 주변을 늘 경계하고 자신이 노출되는 상황을 매우 꺼리는 특성을 보임

- 가족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며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음
-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심리적 좌절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취업에 대해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하는 경향이 있고, 감정 기복을 비롯한 폭력적인 행동이나 생각으로 자해 행동과 자살 시도가 동반되기도 함
-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도움을 구하지 못함
- 특히, 연령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에 대한 호소가 많았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넘어 신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마음이 외로운 거랑 취업 문제가 제일 힘들죠. 심리적으로 힘들어요.(당사자A)

생계비 지원이 중지되고 나니까 모든 생활이 어려워져서 굳이 어떻게 힘드냐고 물으니 대답하기가 힘들네요. 국가에서 생활비 50만 원(원래 지원받던 금액)정도가 지원되면 살 것 같아요.(당사자B)

의식주 해결하는게 제일 어렵죠. 마음도 힘들어서 심리지원? 뭐 그런거 있으면 하고싶고 취업 지원도 있으면 받고 싶어요.(당사자C)

살면서 가족의 보살핌을 못 받는게 힘들고 엄마랑 싸울 때가 제일 싫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같이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는게 좀 힘들지요.(당사자D)

기초 생활 수급이 갑자기 정지되었는데 미리 안내 받은 것도 없었고, 월세랑 공과금을 못내서 밀려있는 상태라 힘들어요. 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죠.(당사자E)

취업 해서 돈도 벌고 싶지만 그냥 막막해요. 부모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힘들게 해요. 학업 유지하는 모든게 다 힘들어요. 우울증도 심하고 가끔은 자해도 하고 자살 충동도 막 들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이 더러워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우울증이 워낙 오래되서 벗어나고 싶은데 누가 병원에 입원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치료하게요. 병원치료 지원하는게 있으면 좋겠어요. 식구들이랑 자주 싸우고 제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당사자F)

□ 가족으로서의 어려움(가족만)

- 돌봄의 부담은 물론이고 언제까지 돌봄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음
- 은둔형 외톨이의 돌발행동이나 폭력 행동으로 항상 불안함

언제까지 내가 돌볼 수 없다는 두려움이 들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가족A)

00이가 자주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항상 걱정이 되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저에 생각하면 일에 집중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일 하는게 지장이 많아요.(가족B)

저는 나이가 이미 칠십이고 지금 휠체어를 타는 신세인데 저 아이 두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잠도 안오고 걱정이 많아요. (가족C)

00이 생각만하면 미래가 걱정되고 병원에 데려가도 나아지는 병인건지 알 수도 없을거 같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거라는 생각들어서 늘 우울해요. 요즘은 잠도 잘 못자고요. 우울증 뭐 그런거는 항상 있는거 같아요.(가족D)

□ 은둔에 관한 생각과 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개인적인 성향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운 탓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실패 경험은 이후 은둔생활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경향을 보임
- 계속되는 무기력함과 좌절감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무런 희망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으며 다가가기를 희망하면서도 동시에 과거 대인관계에서 경험했던 상처가 커서 두려움을 느끼고 거부하게 됨
- 자포자기한 상태로 오랜 고립이 되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예전에 최면 치료를 무료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효과는 일시적으로만 있었어요. 술이랑 담배는 별로 안좋아해요.(당사자A)

노력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빵 프로그램에 6개월 정도 참여했지만 취업하는 걸로 이어지지는 않았서 엄청 실망했었어요. 돈이 없으니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힘들구요.(당사자B)

개인 상담 받아본적 있는데 효과는 없었어요.(당사자C)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혼자서 병원 검색해서 찾아가 진료를 받은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다니구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혼자 가서 상담했던 적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안맞았어요.

혼자 있어도 깨끗하게 지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공황장애약이랑 우울증약 먹는데 좀 줄 일려고 노력해요. 가족이랑 연락을 할려고 시도는 하는데 힘들어요.(당사자D)

자조 모임이나 교육 모임이 있다면 열심히 해보고는 싶어요. 지금 면접도 제가 신청한거예요 제가 될 하겠어요. 저희 가족이나 좀 상담같은거 받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랑 대화할려고 하는데 전혀... (당사자F)

□ 국가나 고양시에 바라는 것

- 은둔생활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지원으로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요청함
-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해 심리상담,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취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은둔생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고, 성공적으로 은둔생활을 탈피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조 모임에 대한 요구도 많음

사회 복귀에 필요한건 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도 해서 정상적으로 살고싶구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도움은 될거 같아요.(당사자A)

제가 그림그리는거 좋아해서요. 취미로 그림 그리고 싶어요.(당사자B)

주변에 운동(헬스)시설이 많아서 건강해지고 싶어요.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알고보니 과거에 압류된 차가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기초 수급 자격이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어디있어요. 제도가 있으면 뭐해요?(당사자C)

학교나 상담센터에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는 상담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당사자D)

원래 제가 영업일을 잘했어요. 그 일은 자신 있어요. 영업일에 관련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조 모임 나가서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싶어요.(당사자E)

취업 관련된거 많은거 같긴 한데 정보를 좀 쉽게 알고 싶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잘지내는거 좀 누가 알려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당사자F)

비슷한 문제 가진 사람들과 정보도 좀 공유하고 싶어요.(가족B)

우울증 치료를 국가에서 나서서 도와줘야 하지않나요. 그래야 힘든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취업도 할수 있고요.(가족C)

정서적으로 상담이 필요해서 정신건강센터에 전화 걸었는데 상담을 수 있다고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00이 자해 행동 있다고 했더니 그러는거 같아요. 거절당했어요.(가족D)

□ 기타 사항

-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 면접자가 우울감, 불안감, 외로움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살 충동을 언급함

성인이 되어서 우울증이 심할 때 손목을 긋는 행동을 2번 정도 함(자살 시도의 이유에 대해서는 회피함).

상담사에게 '자살하고 싶어요' '저만 없으면 엄마는 편할 거예요'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라는 말과, '하지만 죽을 용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 편만 들어요' '부모라면 자식이 해달라는걸 다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저의 삶이 엉망이에요' '저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반복하였음.(상담사A)

가족과의 불화 이유에 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함.

남들이 사는 만큼(브랜드 의류, 좋은 대학 진학 등)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안 되면 망한 것이라고 함.

면접 당일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술을 마시고 온 상태로 면접에 참여함.

고도비만으로 어려움이 큼.

감정변화가 심하여 정신과 상담이나 일반 심리상담을 받고자 함.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으로 국내의 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같은 가족 내에서 은둔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저장강박증(쓰레기 등을 모음)이 있음.(상담사B)

제3절 조사 결과 종합

1. 설문조사 결과 종합

1) 은둔 당사자

□ 일반 특성

- 분석 대상인 된 은둔 당사자는 남성이 28.5%, 여성이 71.5%로 여성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옴
 - 본 설문조사가 가구 전수조사나 대표성 있는 확률 표집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사 대상자
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기존 선행 실태조사에서도
남녀 비율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중 여성 비율
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은둔 당사자 95.6%가 청년으로 청소년, 중장년, 노년 응답자가 거의 없지만 원래 모집단
에 청소년, 중장년, 노년 인구가 적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청년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한
접근성에 높아서 그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은둔 당사자의 비율이 높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마련 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 은둔 현황 및 배경

- 은둔 당사자의 은둔 정도는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가 20.6%, '자기 방에서 나
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가 30.7%로 은둔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은둔 시작 시기가 만 20~30세가 68%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년기 이
전 은둔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집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은둔의 주된 이유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은둔 관련 경험에서도
취업, 창업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은둔 대상자는 은둔과 관련된 단
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 4개의 중복된 원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둔은
단순히 취업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경험의 산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상생활

- 가족과의 대화 빈도가 '서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대화함'이 가장 높고(38.6%) '거의 없
음(36.8%)'도 높으며 28.7%가 대면 없이 필요시 'SNS'로 대화함. 또한 2주 동안 가족 외

대화를 하지 않은 비율이 67.1%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은둔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 부족을 그대로 보여줌

- 은둔 당사자의 60.1%는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기, SNS 활동, 메신저 채팅 등을 하고 있으며 약 40%가 하루에 10~15시간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개입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은둔 당사자가 밤낮이 바뀐 생활, 불규칙한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 위생 관리가 안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는 일상생활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고’, ‘타인의 시선이나 말이 신경 쓰이고’, ‘세상일에 무관심하며’, ‘사회의 규칙에 맞춰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이상임을 고려할 때 사회관계 관련 교육과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활동 재개에 대한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건강 상태 및 행복 수준

- 신체적인 건강 상태는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비율이 56.6%로 높고 신체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비율이 60%로 매우 높아서 은둔 당사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개입도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정신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은둔 당사자는 7.5%로 매우 낮지만 PHQ-9로 측정된 우울 유병률이 28.3%로(참고: 2022년 청년실태조사 청년의 유병률 6.1%) 매우 높고 자살 충동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 등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 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5점 만점에 1점대로 매우 낮게 나타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매우 심함을 알 수 있고, 사회,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 상태 만족도도 2점대 초반으로 낮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줌
- 특히 삶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2.29점, 캔트럴 행복사다리로 보여주는 행복도 역시 3.31점/10점 만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은둔형 당사자의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은둔 상황 인식

- 은둔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은둔 당사자 혼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고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2.6%로 나타남. 은둔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3.37점/5점인,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3.27점,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3.09점으로 은둔 당사자가 은둔이 가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은둔 당사자의 46%는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20.7%는 은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등 은둔 극복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개인마다 상이함. 은둔을 위한 극복 노력도 ‘노력한다’가 34.3%로, ‘노력하지 않는다’가 47.5%로 나타나 노력하지 않은 비율이 높음. 이는 은둔 당사자의 태도는 극복을 위한 의사 및 은둔 극복이라는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은둔 당사자의 개별적인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음
- 은둔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는 운동과 산책, 가족에게 도움 요청, 인터넷 검색, 지인에게 도움 요청 순으로 나타남
-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경험에 있어서는 가족이 노력하는 부분을 친구나 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노력이나 가족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절반가량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음
- 은둔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업, 취업, 창업 참여의 어려움(86.4%)이고 다음으로 친구 사귀기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 순으로 나타남

□ 상담 및 지원

- 은둔 당사자의 98.0%는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5.1%로 매우 낮음.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상담 경험률은 6.1%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이 11.1%로 매우 낮게 나타나 상담 서비스 제공과 효과 있는 양질의 상담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은둔 당사자의 욕구는 ‘자유롭고 편하게 쉬며 놀고 싶다’가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을 하고 싶다(63.6%).’, ‘여행을 가고 싶다(63.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집으로 찾아오는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욕구는 9.1%, ‘자조 모임’은 18.7%로 낮게 나타났는데 기존의 전형적인 개입 방법인 상담, 교육, 치료와 더불어 여가, 문화, 성취 활동 등의 개입도 중요함을 보여줌
- 지원 방법 선호도를 1+2+3순위로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적 지원, 취업 일자리 알선, 마음 편한 공간 지원, 직업교육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일자리 등의 지원 등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2) 은둔 당사자 가족

-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러 항목 중 ‘은둔 당사자가 앞으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 두렵다’가 4점/5점 만점, ‘은둔 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다’가 3.83점, ‘은

돈 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된다' 3.80점, '은돈 당사자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3.27점으로 가족들이 은돈 당사자에 대한 걱정과 본인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3.20점으로 은돈 당사자 3.10점보다 높지만,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 3.09점보다 더 낮은 3.07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충동 경험 여부도 30%로 당사자 2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족들의 정신 건강상 어려움이 매우 높으며 가족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줌
- 삶의 만족도는 각 항목이 3점 내외이며 전체 항목 중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행복도 역시 4.67점으로 당사자 3.31 점보다는 높지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들은 은돈당사자에 비해 은돈의 문제가 가족, 사회의 공동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당사자와 가족의 은돈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큼을 보여줌
- 가족들은 은돈당사자가 은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3.3%로 당사자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 20.7%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은돈에 대한 가족의 절망감을 보여줌
- 은돈 회복을 위한 가족의 노력으로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인터넷 검색, 전문 상담 기관 의뢰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0%로 높게 나타남
- 가족들도 은돈 지원 관련 온라인 플랫폼 및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해 93.3%가 인지를 못 하고 있으나 인지하는 경우 이용률이 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플랫폼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보여줌
- 상담을 받은 경험은 6.7%로 매우 낮지만,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는 5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은돈 당사자보다는 상담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은돈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의 참여 의향은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정보 제공, 가족여행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 집단 프로그램, 가족 상담 등에서는 50~63.3% 정도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집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자조 모임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욕구는 당사자보다는 더 높게 나타난 것임. 가족들에게는 현재 스트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을 보여줌

2. 심층 면접 결과 종합

□ 자존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 심층 면접 참여자 대부분은 자존감이 낮고 내성적인 성향을 지니며,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적고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함. 유년 시절 힘들었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보이고 이에 따라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주변인들과의 갈등이 은둔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임

□ 대인관계와 정서적 스트레스 회피

-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주로 은둔생활을 통해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특히 20~30대 참여자 중에는 억압된 부정적 감정이 불만이나 분노의 형태, 특히 가족을 향한 폭언과 폭력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 표출되는 경우도 많았음
-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담 없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선호함

□ 외부환경 변화를 기대하는 문제 해결 태도와 상담에 대한 양가감정

- 자신의 문제를 내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나 지원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함. 은둔생활 중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경험한 경우가 일부 있으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전문 상담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방문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의향을 보이는 양가감정 있음

□ 사회복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인관계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사회복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
- 게으르거나 의지가 박약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임

□ 은둔 현상은 일련의 과정을 따름

- 은둔생활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은둔의 정도가 심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중요한 시점이 있음을 보여줌. 이는 은둔이 시작되는 시기와 은둔에서 벗어나려는 회복 노력을 스스로 나타내는 시점이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가족 체계와 사회체계의 지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내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이해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고립과 은둔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였고 가정, 지역사회 내 학교, 직장, 복지

센터 등에 도움을 구하는 일을 잘하지 못함

□ 불규칙한 생활과 외로움이 큼

- 참여자들은 식사와 수면이 불규칙하고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 특히, 깊은 우울감으로 인한 무기력함을 보이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에 대한 언급이 많음
- 특히,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을 전반적으로 보였고 개인이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힘든 경우가 다수임

□ 개인에 따른 은둔생활의 다양함

- 공통으로 은둔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작 시점, 계기, 기간, 상황적 맥락 등에서 차이가 있었고, 현재 상태에서도 외출 빈도, 소통 정도, 활동 수준, 건강 상태, 재정적 여건 등에서 다양성을 보였음. 또한, 가족 및 친구와의 애착과 지지 수준, 사회적 지원의 수혜 여부와 그 효과도 각기 달랐음

□ 사회구조적 요인도 강함

- 일부 면접 사례에서는 개인적 취약성 외에도 이혼, 취업난, 경쟁 심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인터넷 발달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 지속 등이 은둔생활 지속 가능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음

제5장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

제1절 지원 정책 방향

제2절 주요 지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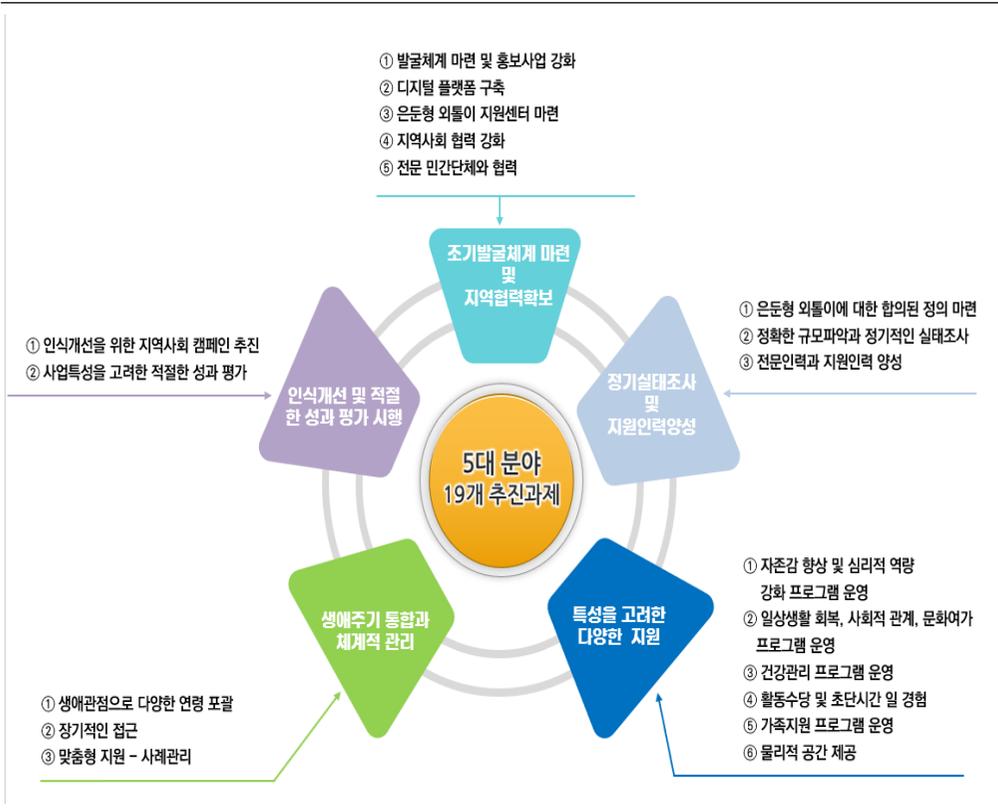
1. 조기 발굴 체계 마련 및 지역 협력 확보
2.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원 인력 양성
3.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4. 생애주기 통합과 체계적 관리
5. 인식개선 및 적절한 성과평가 시행

제1절 지원 정책 방향

-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앞서 2023년 2월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지금까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중앙정부와 몇몇 광역시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고양시가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고양시의 움직임은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 앞으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됨
-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사례 분석,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정책,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을 실시하였음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은둔형 외톨이 조기 발굴 체계 마련 및 지역 협력 확보가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는 발굴이 쉽지 않으므로 발굴 체계 마련과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함
 - 은둔형 외톨이의 다수가 정보에 취약하고 반면 온라인 활동은 적극적이므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정보 및 이용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수행할 전달 체계로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센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정책 전반에 걸쳐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은둔형 외톨이의 예방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망을 강화해야 함
 - 기존의 은둔형 외톨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전문 민간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함
 - 둘째,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기실태조사 및 지원 인력 양성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우선 고양시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함
 - 은둔형 외톨이가 탈 은둔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과 동료 상담자 등 지원 인력을 (서포터즈 등) 양성해야 함
- 셋째, 은둔형 외톨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해야 함
-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일상생활 회복, 사회적 관계, 문화 여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 활동 수당 등 경제적 지원과 초단시간 일 경험부터 시작하는 직업재활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물리적 공간 제공
- 넷째, 은둔형 외톨이 전 생애주기를 통합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현재 청년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애 관점으로 다양한 연령을 포괄해야 함
 -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의뢰, 프로그램 진입 및 탈 은둔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1:1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가 필요함
- 다섯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성과평가 시행
-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
 - 은둔형 외톨이 사업의 적절한 성과평가 시행

그림 5-1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5대 영역 19과제)



제2절 주요 지원 과제

1. 조기 발굴 체계 마련 및 지역 협력 확보

1) 발굴 체계 마련 및 홍보사업 강화

- 은둔형 외톨이는 기존의 복지사업과 비교하더라도 대상자 발굴이 매우 어려움.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임
- 은둔은 한 번 발생하면 반복되거나 장기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제적 개입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
 -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위험 징후군을 빨리 찾아내 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관심 속에서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조기에 받도록 해야 함
- 가족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이 당사자를 의뢰하는 형식의 발굴도 필요함
- 거부형 당사자일 경우 가족이나 기관과 협력해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가정 방문을 하는 등) 꾸준히 방문하고 정보를 주는 등의 '발굴' 활동도 필요
- 은둔형 외톨이 발굴을 위해서는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병원 등 민·관 협력이 필요함
- 고양시 신문, 방송,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지역사회 홍보 캠페인, 직능단체를 통한 은둔 가구 확대 등 은둔형 외톨이가 발굴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확보가 필요함

2)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실태조사 결과, 은둔 당사자의 98.0%는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5.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플랫폼, 프로그램, 서비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은둔 당사자의 60.1%는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기, SNS 활동, 메신저 채팅 등을 하고 있으며 약 40%가 하루에 10~15시간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개입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기존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이용자 간 물리적 접

근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자가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며 대면이 힘든 경우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카카오톡 채널 및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마련

- 은둔형 외톨이가 지원체제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할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서울시, 광주시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마련하거나 센터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거점 사회복지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에서는 대상자 발굴, 캠페인, 실태조사,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역 자원 연계 및 사회 협력망 개발 및 관리, 사례관리와 위기관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쉼터와 같은 물리적 연결공간 운영, 사후 모니터링 등 수행하며 서비스를 총괄함
- 또한 은둔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고용센터, 교육지원청, 청소년 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병원, 동주민센터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함
-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립 시 고립과 은둔 대상자를 통합 운영하는 것과 단독 운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의 고민이 큼
- 단독형과 통합형의 장단점은 다음 표와 같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현재 고양시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고립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지원센터가 필요함

표 5-1 |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단독 운영과 고립·은둔 통합 운영

측면	단독 운영	통합 운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의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과 고립을 통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은둔과 고립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고 은둔과 고립은 한 연장선상에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합시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초기 고립 단계에서부터 은둔 상태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규모가 크지 않고 발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비용효율성, 자원 포괄성의 한계 • 은둔과 고립의 구분이 어려울 때 기관 선택에 있어 당사자와 실무자의 혼란 발생 • 은둔에서 고립으로 전환 시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 있음 • 정부에서 2024년부터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립·은둔 통합센터로 중앙, 경기도와 다른 시스템으로 정부 지원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실적이나 성과를 요구하게 되었을 때 센터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어 보이는 고립경험자 지원이 집중될 부작용도 있고 은둔 경험자들을 발굴이 소홀해지거나 발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은둔과 고립 대상자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프로그램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은둔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 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은둔했던 1세대 히키코모리를 제외하면 현재 청(소)년 세대의 히키코모리 문제는 ‘은둔-고립-사회이행-고립 반복’되는 양상이어서 히키코모리 센터라 명명하는 곳에서 통합적 대응이 이루어짐
- 서울시 및 복지부 지원센터도 고립·은둔 통합모델이며,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도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위탁 등을 시도하면서 고립·은둔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정책 대상은 집중하여 성공 사례를 만든 후 확대하는 것이 좋으므로 고양시는 광주광역시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센터에서 시작하여 고립 대상을 통합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원센터의 인력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센터와 같이 4명 (15명의 객원 상담사) 정도로 시작하여 청년미래센터의 고립·은둔 청년팀으로 배치되어 있는 8명 정도로 확장하는 방안이 있음
- 사업 수행기관은 고양시 전역을 아우르고 공익성이 있는 고양시민복지재단에서 맡는 것을 제안함

4) 지역사회 협력 강화

-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사회복지, 정신건강, 의료, 주거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지역 지역사회 협력망은 발굴부터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종합지원을 가능하게 함
- 고양시청 및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병원, 경찰서, 소방서, 복지관, 통합사례 관리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등이 참여하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공동 사례관리 할 협력체계 구축

5) 전문 민간 단체와 협력

-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 사업은 민간 단체에서부터 시작하였고 현재는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은둔형 외톨이 정책 초기에는 사업이 활성화된 민간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씨즈의 은둔 고립 청년 온라인 플랫폼인 '두더지 땅굴'은 정회원 은둔 고립 청년 3천 5백여 명 연계할 수 있으므로 여기와 협력을 통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할 수 있음
- 씨즈와 제주 패스파인더는 협업하여 씨즈는 은둔·고립 청년 발굴과 심리적 케어를 담당, 패스파인더는 청년 농업가 및 창업가 등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사회적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례 등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외 KHPA(한국은둔형 외톨이부모 협회), KSHS(한국은둔형 외톨이지원 연대), (사)PIE 나다운 청년들, 안무서운 회사,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 등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활발한 사업을 하는 민간 단체가 있는데 이들과 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원인력 양성

1)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합의된 정의 마련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 정부, 실천 현장 간 합의된 정의가 없음
- 은둔형 외톨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니트(NEET), 고립 등이 있으며 특히 실천 현장에서는 은둔과 고립의 구분이 어려워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함
-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정책 대상자 선정, 사업 내용, 협력체계 구축, 정책 평가 등 일련의 정책추진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은둔을 고립의 극단 형태로 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은둔형 외톨이란 3개월 이상을 자신의 방, 집안 등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단 임신, 신체적, 정신적 질환·장애로 인한 은둔은 제외함

2) 정확한 규모 파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 증거 기반 정책추진을 위하여 고양시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및 선제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국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규모 파악 및 실태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정부는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립과 은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청년을 제외한 다른 생애주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2017년~2021년)와 청년 삶 실태조사(2022년)가 국가승인 통계로 이루어졌고 확률 표집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긴 했으나 청년에 국한된 조사이며 광역 시도 단위로 조사되어 기초지자체에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표본조사로 대상을 19~39세 청년으로 한정하여 청년 가구 5,16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그 외 광역시 지자체 실태조사는 주로 스크리닝 작업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선별하여 온라인으로 실태를 조사하였으므로 전체적인 규모 추정은 어려움
- 고양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규모 추정과 생활 실태 파악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은둔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포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의 은둔형 외톨이 규모 파악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상적이지만 예산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확률 표집 방법으로 매년 실시되는 고양시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새로운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며 공적 지원의 성과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구축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3) 전문인력과 지원 인력 양성

- 은둔형 외톨이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이 필요함

- 사회적 관계 자본의 결핍으로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외부와의 접촉을 시도할 때 처음 접하게 되는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실망감을 가지게 될 경우 재 은둔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사자의 전문성 및 대상자에 대한 진심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함
- 본 실태조사 결과 상담을 받은 경험률도 낮았지만,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11%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훈련된 은둔 전문인력과 매칭이 매우 중요함
- 현재로서는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은둔 고립에 대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시범 과정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시작된 단계임
-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지원 인재 양성사업을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사례관리자, 관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 양성 연수와 히키코모리 서포터 양성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리 필요
- ‘피어 서포터즈(peer supporters)’ 등 지원 인력의 양성도 필요함
 - 피어 서포터즈는 주로 자원봉사자로 전문가와 함께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참여하며 당사자, 경험자 및 당사자의 가족, 심리복지를 공부하는 학생, 일반 시민 등 전문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 방문에 동행 지원, 쉼터 운영, 행사 활동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3.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1)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실태조사 결과 은둔 당사자들은 은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7%로 높게 나타났고 이 외에도 은둔 당사자들은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과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을 위해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문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를 매칭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이 필요함

2) 일상생활 회복과 사회적 관계, 문화 프로그램 제공

- 실태조사 결과 은둔 당사자가 밤낮이 바뀐 생활, 불규칙한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 위생 관리가 안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느슨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결 프로그램이 필요함
- 사회관계 향상을 위하여 내성적인 성향과 부족한 대인관계를 보완하는 그룹 기반의 활동 프로그램(예: 취미 모임, 소규모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관계를 연습하고 확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을 활동 지원도 필요함
- 은둔 당사자들은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 여행, 편하게 쉬는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함

3) 건강프로그램 운영

- 본 실태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 중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56.6%로 매우 높고 신체적 질환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비율이 6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PHQ-9로 측정된 우울 유병률이 28.3%로 매우 높고 자살 충동 경험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우선 청년은 청년마음건강 바꾸치 및 청년마음건강 특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대상을 은둔 중장년까지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도 필요함

4) 활동 수당 및 초단기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

- 실태조사 결과 은둔형 당사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다양한 정책 중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은둔 기간 중 생활 부채 누적 및 소득 활동 중단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은둔 당사자

에게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하고 활동 수당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은둔 극복을 위해 취업 연계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나 바로 취업을 강조하기 보다 대부분의 은둔 당사자가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초단기 일 경험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일본의 '15분 카페'처럼 출퇴근이 자유롭고, 원할 때만 와서 15분 단위로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이 초단기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곰손 카페', '농장 과일 따기', '코딩 업무'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같은 초단기 일자리 등 일 경험을 점차 늘려 취업 연계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5)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본 실태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 가족들은 은둔형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둔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비율이 높았으며 정신적 건강 상태는 은둔 당사자보다 좋지 않고 자살 충동 경험도 많아 감당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은둔에 들어가면 가족도 고위험군에 들어갈 수 있고 부모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탈 은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은둔형 외톨이를 돕는 데 있어 가족과 주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실전 현장의 활동가는 부모 교육의 효과를 매우 강조하며 탈 은둔에는 부모가 바뀌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부모 교육은 저비용, 고효과를 내는 정책 수단이 된다고 강조함
- 은둔 대상의 가족들은 어려움을 드러내기까지, 또한 도움을 알아보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이에 더욱 은둔을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자료 및 교육이 필요함
- 가족 상담을 통해 은둔의 복잡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족과 보호자가 이해하고 가족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조 모임 구성을 통해 은둔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은둔형 외톨이에 효과적인 정보와 지원기관을 공유하고, 자신의 양육 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를 돌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심리, 문화, 여가 프로그램 제공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물리적 공간 제공

- 은둔하더라도 때가 되면 나가고 싶은데 나갈 데가 없고 머물 데가 없음. 안전이 보장된 사회적 공간 조성과 환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함
- 본 실태조사에서도 지원 방법으로 마음 편한 공간 지원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었음
- 일본의 경우처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자신이 있어도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이바쇼'와 같은 교류 공간이 필요함
-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휴식하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함

4. 생애주기 통합과 체계적 관리

1) 생애 관점으로 다양한 연령층 포괄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주로 9~19세, 19~34세 등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30대 후반 연령자도 많이 발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장년 노인 등 전 세대에 걸쳐 존재하므로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하는 생애 관점적 접근이 필요함
- 각각의 생애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연속적인 지원의 모형을 설계하여 아동 청소년기의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고립화 과정, 청년기 사회 진출 어려움으로 인한 고립화 과정, 중장년기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립화 과정, 노년기 사회적 역할 부재와 연결망 해체로 인한 고립화 과정 등 특화된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청소년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달 체계로, 청년부터 노인은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부처가 다르므로 사업 간 칸막이를 넘나드는 생애 통합 지원이 필요함

2) 장기적인 접근

- 은둔형 외톨이는 의뢰에서부터 프로그램 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은둔 당사자가 사회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며 상담만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쉽게 복귀되지 않음. 다년간 전문가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
-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경우 50번의 가정 방문을 통해 등교 거부로 학업진행이 어려운 초 5학년 학생을 중학교에 진학하게 했던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은둔형 외톨이가 탈은둔 하기 위해서는 성과 시간이 오래 걸림

-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초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소규모 비대면 모임을 제공하고 이후 확대하여 오프라인 모임, 일자리 체험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사회 재적응을 유도해야 함
-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은둔형 외톨이의 탈 은둔 과정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 및 사후 관리 체계 확립하여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대상자의 안정적 적응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 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함

3)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필요

- 실태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 이유, 어려움, 가족에 관한 생각, 행복도, 욕구 등이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구조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각각의 발생 원인부터 과정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묶어서 관리할 수 없는 개별적 문제이고 개인의 상황과 역량, 욕구에 따라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므로,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 자조 모임, 맞춤형 근로 지원 등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강화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속도와 방식에 맞춰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방 밖이나 집 밖으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를 두려워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업으로 이끌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원할 때 일 경험 등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욕구와 장기적인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사례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함

5. 인식개선 및 적절한 성과평가 시행

1)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

-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과 고립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2022, 김혜원).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 원인은 개인, 가족의 문제뿐 아니라 학업 및 진로 관련 요인, 사회의 경제 문화 요인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자신의 부적응으로 스스로 은둔을 선택한 사람, 잠재적 범죄자로서 사회적 위험인물들 등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여 정책추진 시 걸림돌

이 될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더욱 숨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우리 사회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세미나, 캠페인, 교육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성과평가 시행

- 은둔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원인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이라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음
- 은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기획해야 성과를 볼 수 있음
-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단순히 집 밖으로 나왔는지, 취업했는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와 같은 정량적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인 기준이 아닌, 은둔형 외톨이가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
- 지속적 정책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운영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개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발표, 대한민국 정부.
-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2023).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결과 보고집 , 광주광역시.
- 권수영(2023). 은둔경험청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 김광희(2020). 한국의 청년 실업과 히키코모리 문제: 일본의 중장년 히키코모리와 8050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16(3), 467-480.
- 김도희(202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Vol, 24(4), 197-223.
- 김은비 외(2017). 선진 4개국의 직업 교육정책 및 고용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청년 니트 (NEET) 의 교육행정 지원방안, 취업 진로 연구.
- 김종진 외(202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보고서, 유니온센터.
- 김지경 외(2015). 20대 청년, 후기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연구 보고서.
- 김진숙(2023). 은둔형 외톨이의 자활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생명연구, 69, 123-148.
- 김혜원(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1-32.
- 노가빈 외(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노현주 외(2024). 일본의 취약 청년 지원 정책: 니트와 히키코모리 청년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30(가을호), 71-85.
- 류황석(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일본의 지원 정책과 현황: 히키코모리 지원과 '고독·고립 대책'을 중심으로.
- 박지선(2020).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적질연구, 4(2), 19-45.
- 백형태 외(2011).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 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4), 262-270.
- 보건복지부(2023).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 서울시청(2024). 지역사회복지소식 제3989,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2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 신영규(2021). 핀란드 청년정책 동향.
- 신영규(2023). 핀란드의 사회 배제 청년을 위한 지원.

-
-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2023).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ansanmind.or.kr>
- 오상빈(2020). 고립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예방, 솔과학.
- 유민상 외(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윤영 외(2024). 고양시 제도권 밖 사회적 고립 가구의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통한 사회적 관계 프로젝트 2차 보고서. 사회복지법인 우림복지재단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 윤철경 외(2020).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서울: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 이진아(2022). 성인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정진영 외(2023). 은둔형 외톨이의 정신질환 유병률 및 정신사회적 특징, 62(4), 164-172.
- 제세령 외(2022).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61(2), 80-89.
- 지은재(2006).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 차주환 외(202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28.
- 최윤진(1998). 핀란드의 청소년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 토론회 발표문,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 황순길(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국외 문헌]

- DCMS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 Barran, B. & Downen, O. (2020). *Government launches plan to tackle loneliness during coronavirus lockdown*,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Eurofound. (2015). *Youth entrepreneurship - Values, attitudes, polici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Retrieved November 27, 2021, from <https://www.eurofound.europa.eu/publications/report/2015/labour-market/youth-entrepreneurship-in-europe-values-attitudes-policies>
- Guo, Y. (2022). *Beyond the Shadows: Evolving Youth Social Dynamics and Hikikomori Tre*

-
- nds. EPALE. Retrieved from <https://epale.ec.europa.eu>
- Hyvinvointi-indikaattorit. (2021a). *Koulutuksen ulkopuolelle jääneet*. Retrieved November 28, 2021, from <https://indikaattorit.tietoanurista.fi/koulutus/sijoittuminen/peruskoulun-jalkeen-3>
- Kato, T. A., Sartorius, N., & Shinfuku, N. (2024). *Shifting the paradigm of social withdrawal: a new era of coexisting pathological and non-pathological hikikomori*.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37(3), 177-184.
- Koyama, A., et al. (2010). *Lifetime prevalence, psychiatric comorbidity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hikikomori in Japan*. *Psychiatry Research*, 176(1), 69-74.
- Levitas, R., Pantazis, C., Fahmy, E., Gordon, D., Lloyd, E., & Patsios, D.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ocial Exclusion Task Force.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4, August).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UK: August 2024*. Retrieved from <https://www.ons.gov.uk>
- Partonen, T. *Evalua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Finnish Suicide Prevention Project*.
- Smith, A. (2007). *NEETS: Perceptions and Aspirations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The Sunday Times. Retrieved from <https://core.ac.uk>
- 村澤和多里. (2017). 「『ひきこもり』概念の成立過程について - 不登校との関係を中心に」, 札幌学院学人文学会紀要, 102, pp. 111-135.
- 内閣府. (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
- 佐藤隆也. (2018). 「ひきこもり支援の変遷と課題」, 川崎医療福祉学会誌, 28(1), pp. 27-36.
- 内閣府. (2021). 「孤独・孤立対策の重点計画」. https://www.cas.go.jp/jp/seisaku/juten_keikaku/r03/jutenkeikaku_honbun.pdf에서 2023. 11. 8일. 인출
- 関係府省申合せ. (2021. 6. 29.). 第1回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断会議.
- 内閣官房, 内閣府. 文部科学省. 厚生労働省. 農林水産省, 経済産業省. (2006. 1.). 「若者の自立・挑戦のためのアクションプラン」(平成18年1月改訂版). <https://www.mhlw.go.jp/topics/2006/bukyoku/syokuan/04.html>
- 政府広報オンライン. (2023. 12. 12.). 様々な事情で暮らしにお困りのかたのための相談窓口があ

ります! <https://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504/2.html>

孤独・孤立対策推進本部. (2024. 6. 11.). 孤独・孤立対策に関する施策の推進を図るための重点計画. https://www.cao.go.jp/kodoku_koritsu/torikumi/jutenkeikaku/pdf/jutenkeikaku.pdf

こども家庭庁. (2024a). 令和5年度 我が国におけるこどもをめぐる状況及び政府が講じたこども施策の実施状況(令和6年版こども白書).

こども家庭庁. (2024b). ヤングケアラー支援の強化に係る法改正の経緯・施行について(法改正の経緯・概要/現状と課題/法改正に係る施行通知の概要). <https://www.cfa.go.jp/policies/young-care>

[관련기사]

1코노미(2024.10.28.일자). 서울청년기자개센터장 “고립은둔 청년 보듬을 공간이 되길”,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1>, 접속일 2024.11.14.

국민총행복 전환포럼(2024.06.05.일자). 사회적 외로움을 덜어내는 방법, 접속일 2024.10.30.

내일신문(2019.12.05.일자). ‘핀란드 청년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출인 해법은’, <https://www.naeil.com/news/read/333801>, 접속일 2024.10.11.

내일신문(2024.05.28.일자). 고립 은둔 지원 실행, 발굴부터 지원까지 맞춤형 팀플레이로 성취. 광주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 자료실, 접속일 2024.10.28.

뉴스로(2023.04.25.일자). '오세훈 서울시장, 고립·은둔 청년 사회참여 유도...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https://www.newsro.kr/index.php>, 접속일 2024.10.29.

뉴스웍스(2023.05.08.일자). [은톨이 보고서⑩] 민간 지원단체 수도권 '집중'...지방 거주자 찬바람 '쌍쌍',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683> 접속일 2024.12.11.

뉴스웍스(2024.10.21.일자).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기관 '기자개 센터' 전국 첫 개관, <https://www.newsworks.co.kr>, 접속일 2024.11.06.

도요게이사이신문(2024.11.13.일자). 일본 후생노동성의 독거노인 관련 발표를 인용 보도, <https://www.google.com/url?sa=E&source=gmail&q=https://www.google.com/url?sa=>

-
- E%26source=gmail%26q=https://www.nikkei.com. 접속일 2021.12.19
- 동아일보(2021.09.16.일자). 日한식당에 자리한 ‘은둔형 외톨이’들의 재활공간,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916/109300379/1?utm_source=chatgpt.com, 접속일 2024.12.19.
- 복지타임스(2022.07.18.일자). 일본: 생활곤궁자 자립 지원제도, <http://www.bokjitimes.com>, 접속일 2024.12.12.
- 서울신문(2023.04.01.일자). “방에서 거의 만나가요”...이런 사람, 일본에만 146만명,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japan/2023/04/01/20230401500057>, 접속일 2024.11.22.
- 세계 뉴스룸(2023.05.15.일자). 고독은 사회적 전염병... 英·日, 국가서 관리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https://news.nate.com/view/20230515n02135>, 접속일 2024.11.01.
- 세계 뉴스룸(2023.05.15.일자). ‘외로움 부’까지 만든 영국, 고독·고립 인식 개선에 총력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https://gptonline.ai/ko/>, 접속일 2024.10.30.
- 아시아경제(2024.10.21.일자). 서울시, 4500억 투입해 은둔 가구 종합지원 오세훈 “외로운 없는 서울 만들 것”,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2109334323984>, 접속일 2024.11.15.
- 아주경제(2024.12.15.일자). 서울 고립은둔청년, 고립·우울감 20% ↓, <https://www.ajunews.com/view/20241215170736824>, 접속일 2024.12.17.
- 일본통신원(2023.06.02.일자). 日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문제,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https://www.esiur.com>, 접속일 2024.10.24.
- 파이낸셜뉴스(2021.12.15.일자). [숨어버린 사람들(12)日 히키코모리 현주소], https://www.fnnews.com/news/202112151112134378?utm_source=chatgpt.com, 접속일 2024.12.19.
- 핀란드 통계청(2021). *Hyvinvointi-indikaattorit* (2021a), <https://www.kuntaliitto.fi/> 접속일 2024.10.16.
- 한라일보(2024.09.02.일자). “외로운·사회적 처방 내리는 영국...제주 공동체 실험 늘리자”, <https://www.ihalla.com/article.php?aid=1725224400762167020#>, 접속일 2024.11.20.

부록

[부록 1] 은둔 당사자 설문지

[부록 2] 은둔 당사자 가족 설문지

부록 1. 은둔 당사자 설문지

조사표 번호	
--------	--

고양특례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당사자용)

안녕하십니까?

고양연구원에서는 고양시 의뢰로 「고양특례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은둔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누가 응답했는지 알 수 없게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귀하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전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 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통계조사 등의 의무)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동의합니다 2)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양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하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필수항목) -성명, 국문, 성별, 나이, 연락처	나)수집 및 이용 목적 -설문 후 답례품 증정용, 응답 자료 확인용
---------------------------------------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 거부 권리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주관기관	고양시청, 고양연구원	조사기관	케이스탯
문의	케이스탯 김두엽 책임연구원 ☎02-6188-6114		

A. [대상자-스크리닝]

SQ. 귀하는 고양시민입니까?

- 1) 네
- 2) 아니요 → 종료

A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은둔 당사자
- 2) 은둔 당사자의 가족 및 보호자 → [H.가족 및 보호자 스크리닝]으로 이동

A2. 귀하는 13세 이상입니까?

- 1) 예
- 2) 아니요 → 종료

A3.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2)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3)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다녀온다
- 4) 보통은 집에 있지만, 나만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5)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종료
- 6) 여가생활을 위해 가끔 외출한다 → 종료
- 7) 직장이나 학교에 주2-3회 외출한다 → 종료

A4. 귀하가 은둔생활을 하신 총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1) 3개월 미만 → 종료
- 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3) 6개월 이상~1년 미만
- 4) 1년 이상~3년 미만
- 5) 3년 이상~5년 미만
- 6) 5년 이상~7년 미만
- 7) 7년 이상~10년 미만
- 8) 10년 이상

A5. 귀하가 현재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초, 중, 고등학교(학업)을 그만두어서
- 2)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 3)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4)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5)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외출이 불가능해서 → 종료
- 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외출이 불가능해서 → 종료
- 7) 기타()

B. [대상자-일상생활]

B1. 귀하는 하루 동안 가족과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 1) 전혀 없음
- 2) 거의 없음 → B1-1으로 이동
- 3) 서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대화함 → B1-1으로 이동
- 4) 가끔 대화 나눔 → B1-1으로 이동
- 5) 자주 대화 나눔 → B1-1으로 이동
- 6) 모름

B1-1. 귀하는 가족과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B6. 귀하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등)	①	②	③	④	⑤
3 목욕이나 샤워를 잘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옷, 머리 등에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이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이 없을 때만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B7. 귀하가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 인터넷게임
- 2) 인터넷/스마트폰
- 3) TV 보기
- 4) 유튜브 시청
- 5) 음악 듣기
- 6) 잠자기
- 7) 독서
- 8) 실내운동
- 9) 아무것도 안함
- 10) 기타

B8. 귀하가 하루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 1) 새벽 2) 오전 3) 오후 4) 밤 5) 밤과 새벽에 걸쳐서
- 6) 없음

B9. 귀하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요
1 가족이나 타인에게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한다	①	②

	문항	예	아니요
2	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나고 화를 참을 수 없다	①	②
3	타인의 시선이나 말이 신경쓰이고 불편하다	①	②
4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좋다	①	②
5	자신이 세상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6	자신이 사회의 규칙과 가치관에 맞춰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B10. 귀하는 음주를 하십니까?

- 1) 네
- 2) 아니요 → B12로 이동

B11. 귀하의 음주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매일	주1~6회	월1~3회	연1~11회	연5회 미만
①	②	③	④	⑤

B12. 귀하는 하루에 몇 회 식사를 하시나요?

하루 종일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루 1회	하루 2회	하루 3회	하루 3회 이상
①	②	③	④	⑤

B12-1. 귀하는 식사를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1) 혼자 직접 차려 먹는다.
- 2) 혼자 배달시켜 먹는다
- 3) 가족이 식탁에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 4) 가족이 같이 식사한다.
- 5) 가족이 식사를 차려서 방 앞에 두거나 방에 넣어준다.

B13. 귀하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 일 ()시간

C. [대상자-건강상태]

C1.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C1-1.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안좋다	안좋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C1-2. 귀하는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십니까?

하지 않음	주1~2일	주3~4일	주5~6일	매일
①	②	③	④	⑤

C1-3. 귀하는 신체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입니까?

- 1) 네 2) 아니오 → C1-6으로 이동

C1-4. 귀하가 신체적 질환이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순환기계(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2) 소화기계(만성위염, 위궤양, 급성간질환, 지방간, 만성간염, 담석증, 담낭염 등)
 3) 호흡기계(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타 알레르기 등)
 4) 내분비계(당뇨병, 갑상선질환 등)
 5) 골격계(관절염, 골다공증, 통풍 등)
 6) 안과계(백내장, 녹내장 등)
 7) 치주병, 악성종양 등
 8) 피부질환(아토피 등)
 9) 기타 ()

C1-5. 귀하의 신체적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네 2) 아니오

C1-6.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우 안 좋다	안좋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C1-7. 귀하는 정신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입니까?

- 1) 네 2) 아니오 → C2로 이동

C1-8. 귀하의 정신적 질환(진단기준)이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조울장애
 2) 우울증
 3) 조현병
 4) 불안장애
 5) 양극성장애
 6) 공황장애
 7) 강박장애
 8) 기타 ()

C1-9. 귀하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네
 2) 아니오

C2. 귀하는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2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문 항	전혀 아니다	여러날 동안 (3-4일)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 또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①	②	③	④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음	①	②	③	④
3	잠이 들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움,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잠	①	②	③	④
4	입맛이 없거나 과식을 함	①	②	③	④
5	자신을 부정적으로 봄-실패자라고 느끼거나 자신 또는 가족을 실망시킴	①	②	③	④
6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보는 것과 같은 일에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아니다	여러날 동안 (3-4일)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				
7 다른 사람들일 주목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을함, 또는 반대로 평상시보다 많이 움직여서, 너무 안절부절 못하거나 들떠있음	①	①	②	③
8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함	①	①	②	③

C3. 귀하는 은둔생활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 C5.로 이동
- 2) 있다

C4. 귀하는 은둔생활 중 자살을 시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입니까?

- 1) 없다
- 2) 있다 → (횟수 회)

C5. 귀하의 현재 다음 영역에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의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2 자신의 경제상태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지인, 친인척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사회, 여가, 문화 활동	①	②	③	④	⑤
7 주거상태	①	②	③	④	⑤
8 삶의 전반적인 상태	①	②	③	④	⑤

C6.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삶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가장 나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귀하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 [대상자-은둔배경]

D1. 귀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문 항	예	아니요
1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①	②
2	양육자로부터 심한 구타, 모욕, 꾸지람을 당했다	①	②
3	가정불화가 있었다(양육자, 형제·자매 갈등)	①	②
4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죽음, 이혼 등)을 했다	①	②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했다	①	②
6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 또는 따돌림을 당했다	①	②
7	학교폭력을 겪었다	①	②
8	장기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①	②
9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교우관계 등)	①	②
10	상급학교나 대학진학에 실패했다	①	②
11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졌다	①	②
12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힘들었다	①	②
13	취업, 창업이 어려웠다.	①	②
14	직장생활에서의 적응이 어려웠다.	①	②
15	과거 은둔에서 벗어난 경험(재은둔)이 있다	① D1-1로 이동	② D2로 이동

D1-1. 귀하께서 재은둔하게 된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직접기입: _____)

D2. 귀하가 은둔생활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몇 세 입니까?

만 ()세

E. [대상자-은둔 상황인식]

E1. 귀하는 은둔이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은둔 당사자
- 2) 은둔 당사자 + 가족의 문제
- 3) 은둔 당사자 + 가족 + 사회의 문제
- 4) 누구에게도 문제 되지 않음

E2. 귀하의 은둔이 귀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	조금 영향을 준다	그저 그렇다	많은 영향을 준다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E3. 귀하의 은둔이 귀하의 가족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	조금 영향을 준다	그저 그렇다	많은 영향을 준다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E4. 귀하의 은둔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	조금 영향을 준다	그저 그렇다	많은 영향을 준다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E5. 귀하는 은둔에서 언젠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보통이다	벗어날 수 있다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6. 귀하는 은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7. 귀하는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
- 2) 지인(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
- 3) 정신의학과 진료
- 4)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
- 5) 관련된 지역센터(동행정센터, 정신건강센터 등)를 방문
- 6)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기관 사이트에 접속
- 7) 운동과 산책
- 8) 아무 노력하지 않았음

E8. 귀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문 항	예	아니요
1	나의 가족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2	나의 가족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받고있다	①	②
3	나는 내 문제에 관해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4	내 가족은 내가 의견을 결정하도록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5	나의 친구들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6	나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에게 의지한다	①	②
7	나는 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8	내가 곤경에 처할 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9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10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11	내 감정에 관해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다	①	②
12	사회는 은둔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13	사회는 은둔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①	②
14	사회는 은둔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①	②

E9. 귀하가 현재 은둔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시오.

문 항	예	아니요
1 외로운,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	①	②
2 친구 사귀기 및 대인관계 어려움	①	②
3 학업·취업·창업 기회 마련 및 참여의 어려움	①	②
4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①	②
5 신체 건강 상의 어려움	①	②
6 경제적 어려움	①	②

F. [대상자-상담 및 지원]

F1.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알고 있습니까?

- 1) 네
 2) 아니요 → F3으로 이동

F2. 은둔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 1) 네 → (이용기관:)
 2) 아니요

F3.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 1) 네
 2) 아니요 → F5으로 이동

F4. 은둔 당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 기관은 어디입니까?

- 1) 네 → (이용 프로그램, 서비스:)
 2) 아니요

F5.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네
- 2) 아니오 → F7으로 이동

F6. 상담을 받은 이후 변화가 있었습니까?

- 1) 전혀 없었다
- 2)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 3) 약간 좋아졌다
- 4) 많이 좋아졌다
- 5) 기타(_____)

F7.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항		예	아니요
1	집으로 찾아오는 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다	①	②
2	취업 정보 및 일자리 소개를 받고 싶다	①	②
3	외부에서 하는 여가·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4	은둔 회복을 위한 교육을 받고 싶다	①	②
5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고 싶다	①	②
6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	①	②
7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①	②
8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모임을 갖고 싶다(자조모임)	①	②
9	여행을 가고 싶다	①	②
10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11	자유롭고 편하게 쉬며 놀고 싶다	①	②

F8. 고양시가 은둔 당사자를 지원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받기를 원하는지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1) 상담 및 정서적 공감 등 심리적 지원
- 2) 진단 및 치료 지원
- 3) 경제적 지원

- 4)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 5) 취업 및 일자리 알선
- 6) 사회적 관계 증진 프로그램 지원
- 7) 아르바이트 알선
- 8)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 9)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 10)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지원
- 11)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제공
- 12) 자조 모임
- 13)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 14)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F9.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은둔형외톨이 정책 방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G. [대상자-일반적 사항]

G1.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G2.	출생 연도	(_____)년	만(_____)세
G3.	출생 순위	<input type="checkbox"/> 1) 외동	<input type="checkbox"/> 1) 첫째 <input type="checkbox"/> 2) 둘째 <input type="checkbox"/> 3) 셋째 이상
G4.	혼인상태	<input type="checkbox"/> 1) 미혼 <input type="checkbox"/> 3) 이혼	<input type="checkbox"/> 2) 유배우(동거/사실혼 포함) <input type="checkbox"/> 4) 별거 <input type="checkbox"/> 5) 사별
G5.	취업(학업)	G5-1. 현재 취업 중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요	
	유무	G5-2. 현재 학업 중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요	
G6.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1) 덕양구 <input type="checkbox"/> 2) 일산서구 <input type="checkbox"/> 3) 일산동구	(_____)동

G7.	고양시 거주기간	G7. 귀하는 고양시에 얼마나 거주하셨습니다? ()년 ()개월
G8.	거주유형	<input type="checkbox"/> 1)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2) 다가구주택 <input type="checkbox"/> 3) 연립/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3)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4)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5) 준주거 시설(고시원) <input type="checkbox"/> 6) 기타()
G9.	가구원수 (본인포함)	<input type="checkbox"/> 1) 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2) 2인가구 <input type="checkbox"/> 3) 3인가구 <input type="checkbox"/> 4) 4인가구 <input type="checkbox"/> 5) 5인이상
G9-1	은돈 당사자 독방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1) 독방사용 <input type="checkbox"/> 2) 다른사람과 함께 사용(본인을 포함한 인원 명)
G10.	월 평균 가구 소득액 (세전)	<input type="checkbox"/> 1) 월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4)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6) 월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7) 월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8) 월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9) 월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월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1) 월 1,000만원 이상
G11.	가구 경제에 대한 주관적 수준	G11. 귀하 가구의 경제적인 생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하 <input type="checkbox"/> 2) 중하 <input type="checkbox"/> 3) 중 <input type="checkbox"/> 4) 중상 <input type="checkbox"/> 5) 상
G12.	G12. 월 평균 본인 소득액 (세전)	<input type="checkbox"/> 1) 월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4)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6) 월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7) 월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8) 월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9) 월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월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1) 월 1,000만원 이상
G13.	개인 경제에 대한 주관적 수준	G13. 본인의 경제적인 생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하 <input type="checkbox"/> 2) 중하 <input type="checkbox"/> 3) 중 <input type="checkbox"/> 4) 중상 <input type="checkbox"/> 5) 상
G14.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 무학 <input type="checkbox"/> 2)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3) 중학교 중퇴 <input type="checkbox"/> 3) 중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4) 고등학교 중퇴 <input type="checkbox"/> 5)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6)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중퇴 <input type="checkbox"/> 7)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 <input type="checkbox"/> 8) 석사중퇴 또는 수료 <input type="checkbox"/> 9) 석사 졸업 <input type="checkbox"/> 10) 박사중퇴 또는 수료 <input type="checkbox"/> 11) 박사 졸업

G15. 이번 「은돈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 1) 신문, 인터넷 뉴스 등 언론 기사를 보고

-
- 2) 온라인 홍보물을 보고
 - 3) 종이,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보고
 - 4)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 5) 센터 등 기관의 소개로
 - 6) 기타()

부록 2. 은둔 당사자 가족 설문지

조사표 번호	
--------	--

고양특례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가족용)

안녕하십니까?

고양연구원에서는 고양시 의뢰로 「고양특례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은둔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누가 응답했는지 알 수 없게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귀하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전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 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통계조사 등의 의무)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1) 동의합니다 2)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양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하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필수항목) -성명, 국문, 성별, 나이, 연락처	나)수집 및 이용 목적 -설문 후 답례품 증정용, 응답 자료 확인용
---------------------------------------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 거부 관리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주관기관	고양시청, 고양연구원	조사기관	케이스탯
문의	케이스탯 김두엽 책임연구원 ☎02-6188-6114		

A. [가족 및 보호자-스크리닝]

※ 아래의 질문은 은둔 당사자의 은둔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SQ. 귀하는 고양시민입니까?

- 1) 네 2) 아니요 → 종료

A1. 은둔 당사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 1) 부 2) 모 3) 형제 4) 배우자 5) 동거인
 6) 친척 7) 기타()

A2. 은둔 당사자는 13세 이상입니까?

- 1) 예 2) 아니요 → 종료

A3. 은둔 당사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2)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3)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다녀온다
- 4) 보통은 집에 있지만, 나만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5)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종료
- 6) 여가생활을 위해 가끔 외출한다 → 종료
- 7) 직장이나 학교에 주2~3회 외출한다 → 종료

A4. 은둔 당사자의 은둔생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1) 3개월 미만 → 종료
- 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3) 6개월 이상~1년 미만
- 4) 1년 이상~3년 미만
- 5) 3년 이상~5년 미만
- 6) 5년 이상~7년 미만
- 7) 7년 이상~10년 미만
- 8) 10년 이상

A5. 은둔 당사자가 현재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1) 초,중,고등학교(학업)을 그만두어서
- 2)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 3)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4)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5)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외출이 불가능해서 → 종료
- 6)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외출이 불가능해서 → 종료
- 7) 기타()

A6. 은둔 당사자와 현재 함께 동거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B. [가족 및 보호자-은둔 당사자에 관한 문항]

※ 아래의 질문은 은둔 당사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B1.	은둔자 당사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B2.	은둔 당사자 출생	()년 만()세	

	연도		
B3.	은둔자 당사자 출생 순위	<input type="checkbox"/> 1) 외동	<input type="checkbox"/> 1) 첫째 <input type="checkbox"/> 2) 둘째 <input type="checkbox"/> 3) 셋째 이상
B4.	은둔자 당사자 혼인상태	<input type="checkbox"/> 1) 미혼 <input type="checkbox"/> 3) 이혼	<input type="checkbox"/> 2) 유배우(동거/사실혼 포함) <input type="checkbox"/> 4) 별거 <input type="checkbox"/> 5) 사별
B5.	은둔자 당사자 취업(학업) 유무	B5-1. 현재 취업 중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요
		B5-2. 현재 학업 중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요
B6.	은둔자 당사자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1) 덕양구 <input type="checkbox"/> 2) 일산서구 <input type="checkbox"/> 3) 일산동구	()동
B7.	은둔자 당사자고양시 거주기간	B7. 귀하는 고양시에 얼마나 거주하였습니까? ()년 ()개월	
B8.	은둔자 당사자 거주유형	<input type="checkbox"/> 1)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2) 다가구주택 <input type="checkbox"/> 3) 연립/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3)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4)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5) 준주거 시설(고시원) <input type="checkbox"/> 6) 기타()	
B9.	은둔자 당사자 가구원수 (은둔당사자 본인포함)	<input type="checkbox"/> 1) 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2) 2인가구 <input type="checkbox"/> 3) 3인가구 <input type="checkbox"/> 4) 4인가구 <input type="checkbox"/> 5) 5인이상	
B9-1	은둔 당사자 독방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1) 독방사용 <input type="checkbox"/> 2) 다른사람과 함께 사용(본인을 포함한 인원 명)	
B10.	은둔자 당사자 월 평균 가구 소득액(세전)	<input type="checkbox"/> 1) 월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4)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6) 월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7) 월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8) 월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9) 월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월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1) 월 1,000만원 이상	
B12.	은둔 당사자 월 평균 본인 소득액(세전)	<input type="checkbox"/> 1) 월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4)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6) 월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7) 월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8) 월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9) 월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월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1) 월 1,000만원 이상	
B13	은둔 당사자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1) 무학 <input type="checkbox"/> 2)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3) 중학교 중퇴 <input type="checkbox"/> 3) 중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4) 고등학교 중퇴 <input type="checkbox"/> 5)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6)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중퇴	

	<input type="checkbox"/> 7)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 <input type="checkbox"/> 8) 석사중퇴 또는 수료 <input type="checkbox"/> 9) 석사 졸업 <input type="checkbox"/> 10) 박사중퇴 또는 수료 <input type="checkbox"/> 11) 박사 졸업
--	--

※ 아래의 질문은 은둔 당사자의 은둔생활 및 은둔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근접한 상황을 체크해 주십시오)

B15. 은둔 당사자는 하루 동안 가족과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 1) 전혀 없음
- 2) 거의 없음 → B15-1으로 이동
- 3) 서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대화함 → B15-1으로 이동
- 4) 가끔 대화 나눔 → B15-1으로 이동
- 5) 자주 대화 나눔 → B15-1으로 이동
- 6) 모름

B15-1. 은둔 당사자는 가족과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 1) 대면 2) SNS 3) 쪽지(메모) 4) 기타

B16. 은둔 당사자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1) 없음 2) 1명 3) 2명 4) 3명 5) 4명 이상 6) 모름

B17. 은둔 당사자가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가족을 제외한 누군가와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무언가를 같이하며 시간을 보낸 것은 전부 몇 번인가요?

- 1) 없음 2) 1회 3) 2회 4) 3회 5) 4회 이상 6) 모름

B18. 은둔 당사자는 사람들과 비대면 소통(전화통화, SNS, 메신저, 문자, ※ 단 게임상 대화는

제외함)을 얼마나 하십니까?

- 1) 전혀 없음
- 2) 거의 없음
- 3) 가끔 있음
- 4) 자주 있음
- 5) 많이 있음
- 6) 모름

문항	모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①	①	②	③	④	⑤
6	①	①	②	③	④	⑤

B21. 은둔 당사자가 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모름 <input type="checkbox"/>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1) 인터넷게임
- 2) 인터넷/스마트폰
- 3) TV보기
- 4) 유튜브시청
- 5) 음악듣기
- 6) 잠자기
- 7) 독서
- 8) 실내운동
- 9) 아무것도 안함
- 10) 기타()
- 11) 모름

B22. 은둔 당사자가 하루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 1) 새벽 2) 오전 3) 오후 4) 밤 5) 밤과 새벽에 걸쳐서
- 6) 없음 7) 모름

B23. 은둔 당사자에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해주시시오.

문항	모름	예	아니요
1	①	①	②

문 항		모름	예	아니요
2	타인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나고 화를 참지 못한다	①	①	②
3	타인의 시선이나 말이 신경쓰고 불편해하다	①	①	②
4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훨씬 좋아 한다	①	①	②
5	자신이 세상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①	②
6	자신이 사회의 규칙과 가치관에 맞춰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①	②

B24. 은둔 당사자는 음주를 하십니까?

- 1) 네
- 2) 아니오 → B26로 이동
- 3) 모름

B25. 은둔 당사자의 음주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모름	매일	주1~6회	월1~3회	연1~11회	연5회 미만
①	①	②	③	④	⑤

B26. 은둔 당사자는 하루에 몇 회 식사를 하시나요?

모름	하루 종일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루 1회	하루 2회	하루 3회	하루 3회 이상
①	①	②	③	④	⑤

B26-1. 은둔 당사자는 식사를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1) 혼자 직접 차려 먹는다.
- 2) 혼자 배달시켜 먹는다
- 3) 가족이 식탁에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 4) 가족이 같이 식사한다.
- 5) 가족이 식사를 차려서 방 앞에 두거나 방에 넣어준다.

B27. 은둔 당사자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 일 ()시간

B28. 은둔 당사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B28-1. 현재 은둔 당사자의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름	매우 안좋다	안좋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①	①	②	③	④	⑤

B28-2. 은둔 당사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십니까?

모름	하지않음	주1~2일	주3~4일	주5~6일	매일
①	①	②	③	④	⑤

B28-3. 은둔 당사자가 신체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입니까?

- 1) 네
- 2) 아니오 → B28-6으로 이동
- 3) 모름

B28-4. 은둔 당사자가 신체적 질환이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순환기계(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 2) 소화기계(만성위염, 위궤양, 급성간질환, 지방간, 만성간염, 담석증, 담낭염 등)
- 3) 호흡기계(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타 알레르기 등)
- 4) 내분비계(당뇨병, 갑상선질환 등)
- 5) 골격계(관절염, 골다공증, 통풍 등)
- 6) 안과계(백내장, 녹내장 등)
- 7) 치주병, 악성종양 등
- 8) 피부질환(아토피 등)
- 9) 기타 ()
- 10) 모름

B28-5. 은둔 당사자의 신체적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네
- 2) 아니오
- 3) 모름

B28-6. 현재 은둔 당사자의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름	매우 안 좋다	안좋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①	①	②	③	④	⑤

B28-7. 은둔 당사자가 정신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황입니까?

- 1) 네
- 2) 아니오 → B29으로 이동
- 3) 모름

B28-8. 은둔 당사자가 정신적 질환(진단기준)이 있다면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조울장애
- 2) 우울증
- 3) 조현병
- 4) 불안장애
- 5) 양극성장애
- 6) 공황장애
- 7) 강박장애
- 8) 모름
- 9) 기타 질환 ()

B28-9. 은둔 당사자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네
- 2) 아니오
- 3) 모름

B29. 은둔 당사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요.

문 항	예	아니오
-----	---	-----

문항	예	아니요
1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①	②
2 양육자로부터 심한 구타, 모욕, 꾸지람을 당했다	①	②
3 가정불화가 있었다(양육자, 형제·자매 갈등)	①	②
4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죽음, 이혼 등)을 했다	①	②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했다	①	②
6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 또는 따돌림을 당했다	①	②
7 학교폭력을 겪었다	①	②
8 장기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①	②
9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교우관계 등)	①	②
10 상급학교나 대학진학에 실패했다	①	②
11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졌다	①	②
12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힘들었다	①	②
13 취업, 창업이 어려웠다.	①	②
14 직장생활에서의 적응이 어려웠다.	①	②
15 과거 은둔에서 벗어난 경험(재은둔)이 있다	① B29-1으로 이동	② B30으로 이동

B29-1. 은둔 당사자가 재은둔하게 된 이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직접기입: _____)

B30. 은둔 당사자가 은둔생활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몇 세 입니까?

은둔 당사자 만 (_____)세

B31. 은둔 당사자가 은둔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 1) 네 → (이용기관: _____)
- 2) 아니요 → B33으로 이동
- 3) 모름

B32. 은둔 당사자가 은둔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받은 이후 변화가 있었습니까?

- 1) 전혀 없었다
- 2)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3) 약간 좋아졌다

C. [가족 및 보호자에 관한 문항]

※ 아래의 질문은 귀하 즉 은둔 당사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관한 문항입니다.

C1. 은둔 당사자로 인한 귀하의 어려움은 어느정도 입니까? 귀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주시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둔 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은둔 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은둔 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은둔 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은둔하고 있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은둔 당사자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7 은둔 당사자가 앞으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C2.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름	매우 안좋다	안좋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①	①	②	③	④	⑤

C3. 현재 귀하의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름	매우 안좋다	안좋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①	①	②	③	④	⑤

C4. 귀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 C6으로 이동
 2) 있다

C5. 귀하는 자살을 시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입니까?

- 1) 없다
- 2) 있다 → (횟수 회)

C6. 귀하의 다음 영역에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의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2 자신의 경제상태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지인, 친인척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사회, 여가, 문화 활동	①	②	③	④	⑤
7 주거상태	①	②	③	④	⑤
8 삶의 전반적인 상태	①	②	③	④	⑤

C7.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삶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가장 나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귀하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닥 ←-----> 꼭대기										
0	1	2	3	4	5	6	7	8	9	10



C8. 귀하는 은둔이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은둔 당사자
- 2) 은둔 당사자 + 가족의 문제
- 3) 은둔 당사자 + 가족 + 사회의 문제
- 4) 누구에게도 문제 되지 않음

C9. 귀하는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	조금 영향을 준다	그저 그렇다	많은 영향을 준다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C10. 귀하는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가족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	조금 영향을 준다	그저 그렇다	많은 영향을 준다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C11. 귀하는 은둔 당사자의 은둔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	조금 영향을 준다	그저 그렇다	많은 영향을 준다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C12. 귀하는 은둔 당사자가 은둔에서 언젠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저 그렇다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꼭 벗어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C13. 은둔 당사자는 은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C14. 귀하는 은둔 당사자의 은둔 회복을 위해 다음 중 어떤 지원을 해왔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1)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
- 2) 지인(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
- 3) 정신의학과 진료
- 4) 전문 상담 기관에 의뢰
- 5) 관련된 지역센터(동행정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를 방문

-
- 6)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기관 사이트에 접속
 - 7) 아무 노력하지 않았음

C15. 귀하는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알고 있습니까?

- 1) 네
- 2) 아니오 → C18으로 이동

C16. 귀하는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네
- 2) 아니오

C17. 귀하는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 1) 네
- 2) 아니오 → C20으로 이동

C18. 귀하는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네 → (이용 프로그램, 서비스:)
- 2) 아니오

C19. 귀하는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로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네
- 2) 아니오 → C22로 이동

C20. 귀하는 은둔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로서 상담을 받은 이후 변화가 있었습니까?

- 1) 전혀 없었다
- 2)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 3) 약간 좋아졌다
- 4) 많이 좋아졌다
- 5) 기타(_____)

C21. 고양시가 은둔 당사자의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한다면 귀하는 다음 항목에 있는 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문항		예	아니요
1	집으로 상담 서비스	①	②
2	가족력 회복을 위한 가족 상담	①	②
3	전문가와 함께하는 집단 프로그램 참여	①	②
4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모임 (자조 모임)	①	②
5	가족여행	①	②
6	가족 및 보호자의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①	②
7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 교육	①	②
8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①	②
9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제공	①	②

C2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은둔형 외톨이 정책 방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D. [가족 및 보호자-일반적 사항]

※ 아래의 문항은 귀하 즉 은둔 당사자의 가족 및 보호자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D1.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D2.	출생 연도	()년 만()세	
D3.	취업 유무	<input type="checkbox"/> 1) 없음 <input type="checkbox"/> 2) 있음	<input type="checkbox"/> 1)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2) 농림어업종사자 <input type="checkbox"/> 3) 사무종사자 <input type="checkbox"/> 4) 서비스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5) 단순노무직 <input type="checkbox"/> 6) 판매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7) 군인 <input type="checkbox"/> 8) 기타()
D4.	혼인상태	<input type="checkbox"/> 1) 미혼 <input type="checkbox"/> 3) 이혼	<input type="checkbox"/> 2) 유배우(동거/사실혼 포함) <input type="checkbox"/> 4) 별거 <input type="checkbox"/> 5) 사별
D5.	자녀 수	<input type="checkbox"/> 1) 없음	<input type="checkbox"/> 2) 1명

Abstract

Korean Hikikomori in Goyang Special City: Current State and Policy Measures

Junghwa Moon¹⁾, Bongeun Choi, ²⁾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state of hikikomori in Goyang Special City and to propose support policy measures for them.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y of the reclusive loner (review of the concept of hikikomori, review of previous research),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support for the reclusive loner (overseas case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private projects, and projects related to Goyang City). In addition, a survey (198 hikikomori, 30 family members) and in-depth interviews (6 hikikomori, 4 family members) were conducted for hikikomori and their families in Goyang. Special City.

By synthesizing the results of the study, 5 policy directions and 19 policy tasks were derived. The five policy directions were "Establishment of a policy foundation for hikikomori", "Life cycle integration and continuous and systematic management", "Strengthen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use and building a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Providing various services in stages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Recognizing social issues and establishing a consensus". The nine detailed tasks are (1) 'Establishment of a consensus definition of hikikomori',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exact size of hikikomori and regular surveys', 'Establishment of a support center for hikikomori',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and support personnel'. (2) The tasks in the

1) Senior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2)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areas of life cycle integr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are 'inclusive of various ages from a life perspective', 'long-term approach', and 'customized support_case management'. (3) In the areas of strengthen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use and building a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there are 'digital platform construction', 'establishment of discovery system and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project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cooperation with specialized private organizations', and (4) policy tasks in the areas of step-by-step provision of various service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are 'operation of programs to impro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competency', 'operation of programs for recovery of daily life, social relationships, and cultural and leisure programs', 'operation of health care programs', 'activity allowances and ultra-short-time work experience', There is 'Operation of family support programs' and 'provision of physical space'. (5) In the area of recognizing social issues and establishing consensus, it was suggested that there was a 'promotion of a community campaign to raise awareness' and 'an agreement on the evaluation of project performance'.

정책 24-01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발행일	2024년 00월 00일
저자	문정화, 최봉은
발행인	김현호
발행처	고양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2971-58-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KoPubWorld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Social Withdrawal(Hikikomori) in Goyang Special City: Current State and Policy Measures